

	철도□연장수	보급정도(면적 100km <sup>2</sup> 당)
□□	2,2□0km	0.4km
타이국	2,140	0.6
필리핀	1,140	0.4
버마	2,315	0.5
말레이	1,□20	1.1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7,300	0.4
인도	66,100	1.5
호주	45,000	0.6
뉴질랜드	5,350	2

남방권은 각종의 중요 원료자원을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것은 '동아' 자급 경제 건설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는 미영의 국방 경제에 있어 사활적 중요성을 갖는 것과 같은 원료 자원도 있다. 이러한 것으로써 주지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고무와 주석을 들 수 있다.

대체로 합중국은 소위 민주주의 진영의 병기창으로 자리매김하여, 각종 자원이 풍부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합중국도 요긴한 군수 자원이 여러 가지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양모, 견(낙하산용), 수은, 알루미늄 및 트류인 정유(화학제조상 중요)등이 부족하다. 분명히 그들의 부족은 대용품이나 소비 규정 등의 방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해도 합중국의 국방 경제에서 치명적인 것은 첫째로 고무, 석광(錫鑛) 자원이 부족한 것이고, 둘째로 특수광의 합금에 부족해서는 안 될 제 금속광물—니켈, 텅스텐, 크롬, 안티몬 및 망간이 부족하다. 남방권에서 고무 공급을 받지 못하면 합중국의 거대한 자동차 공업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망간 없이는 강철 제작을 할 수 없다. 단 고무에 관해서는 합중국은 최근년산 10만 톤의 능력을 지닌 합성고무공장을 건설하고, 인조 고무 제조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합중국의 고무 소비를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종래 합중국은 1년에 약 50만 톤의 고무—세계 산액의 약 반—를 말레이나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것이다.

특수광의 합금에 필요한 금속 광물중 합중국이 그 외의 미 대륙에 공급을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니켈(캐나다), 안티몬(볼리비아) 및 일정 선까지의 텅스텐(볼리비아, 알제틴), 크롬(쿠바)이다. 망간은 소련에 공급을 의존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해외 무역이 두절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5

남방자원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이미 대부분 주지한 대로지만, 실제 남방권을 포함한 대동아권은 자급경제를 위한 자원적 기초를 본질적으로 구비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중요 원료 자원에 대해 많은 적든 이윤을 가질 수 있고, 이것으로써 세계 경제의 신 건설에 기여할 수도 있다. 더구나 그 중에는 미영과의 경제전에서의 무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도 존재한다.

우선 첫째로 식량 경제에 관해 말하자면, 기술한 바와 같이 극동권에서 약간 부족을 보이는 쌀은 프랑스령 인도지나, 타이국 및 버마 등에 다량의 잉여가 있고, 현재 이들 나라들에 서는 쌀이 수출품의

주류를 이룬다. 또한 보리는 호주에 다량의 잉여가 있어 양모에 뒤이어 제2의 중요 수출품일 뿐만 아니라, 호주는 캐나다 및 아르헨티나와 함께 세계에서 3대 보리 수출국이다. 옥수수는 프랑스령 인도지나 및 네델란드령 인도네시아 등에 잉여가 있고, 특히 전자에서는 그것이 미 다음 가는 제2의 중요 수출품이다. 설탕은 네델란드령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큰 잉여가 있다

둘째로, '동야'의 섬유 원료경제도 남방권을 포함하는 것에 따라 아마를 제외하면—아마는 소련이 세계 산액의 70%를 산출한다—즉시 자급적 기초 위에 놓일 뿐만 아니라, 큰 잉여까지 낼 수 있다. 즉 면은 인도가 세계 제2의 면 산국이고 그 나라 산출품의 주류를 이룬다. 종래 '우리나라'는 제1의 수입국이고, 또한 영국 본국은 제2의 수입국이었다. 양모는 주지한 바와 같이 호주, 뉴질랜드에 무척 풍부하며, 전자는 세계 최대의 양모 산출국임과 동시에 수출국이다. (1938-9년의 산액은 호주 43만 톤 남짓, 뉴질랜드 13만 톤 남짓 합계 57만 톤 남짓으로, 세계 산액 178만 톤 남짓의 3분의 1 가까이를 산출하고 있다) 그 최대의 수입국은 영국 본국이고, 종래 '우리나라'가 제2의 수입국으로서 1년에 1억 수천만 엔 분을 수입하고 있었다. 마류에 관해 말하자면 우선 대마의 대용품 아바카, 일명 마닐라마가 필리핀, 네델란드령 인도네시아에 산출을 하고 특히 전자가 거의 세계 유일의 산출국이고, 또한 황마는 인도가 거의 세계 유일의 산출국이다.

셋째로, 중요 광물 원료에 관해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석유 자원이 주지한 바와 같이 네델란드령 인도네시아, 영국령 보르네오 및 버마에 풍부하다. '대동아전쟁'은 합중국이 그 석유 자원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이 전략적 광물을 대일 경제전의 무기로써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교만을 감행한 것이 직접 큰 원인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남방권의 석유 자원의 중요성은 자명하다. 남방권의 석유자원은 다음과 같이 거의 1천만 톤에 달한다.

	1939년	1938년	1937년
네델란드령 인도네시아	7,943천 톤	7,398천 톤	7,262천 톤
영국령 보르네오	939	910	789
버마	1,100	1,061	1,103

석유 연 산 1천만 톤이라고 하면 세계의 석유 산액(1939년 2억 8천4백8십만 톤)의 3.5%를 차지하지 만, 그러나—그 중요성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독일의 석유경제를 예로 들면— 그것은 1937년 독일 석유수요(약 350만 톤)의 거의 3배에 상당한다. —단 독일의 경우는 주지한 바와 같이 그 외에 석탄 액화에 의한 인조 석유를 다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 방법에 의한 독일의 합성 가솔린 생산은 1937년에 약 95만 톤, 1938년에 120만 톤 내지 18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어서 철강도 말레이, 인도 및 호주 등에 풍부하여, 인도에서의 추정 매장량은 품위 65%의 부광 30억 톤이라고 일컬어진다. 1938년의 산액은 말레이 130만 톤, 필리핀 50만 톤, 프랑스령 인도지나 7만 톤, 인도 179만 톤, 대양주 153만 톤(그중 호주 151만 톤) 등이고, 대 남방권 전체적으로는 약 500만 톤(단 모두 광석의 중량이 아니라 철함유량 추정)이다.

특수강의 합금에 필수불가결한 망간은 인도에 자원이 풍부하여, 인도는 소련에 이어 세계 제2의 망간광 산출국이다. 1937년 세계의 망간산액은 302만 톤이고, 소련 125만 톤, 인도 53만 톤으로 되어 있다 (모두 금속 함유량 추정). 또한 니켈은 대양주의 뉴칼레도니아가 상당량을 산출하며, 캐나다를 논외로

한다면 가장 다량으로 산출된다. 1938년의 세계 산액 11만 톤(단 광석의 중량이 아니라 니켈 함유량 추정)이고, 캐나다 95,600톤, 뉴칼레도니아 7,300톤으로 되어 있다.

그밖에 동, 납, 아연은 대양주의 자원에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납 및 아연광에 있어서는 호주가 합중국에 이어 세계 제2의 산출국이고, 1938년 납 2천7만 8천 톤, 아연 22만 3천 톤(세계 산액은 전자 179만 2천 톤, 후자 186만 7천 톤)을 산출하고 있다. 버마도 '우리나라'에 수배에 이르는 산액을 올리고 있고, 1년에 납 약 9만 톤, 아연 약 6만 톤을 산출하고 있다. 주석광은 풍부한 남방 제 자원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버마에서 말레이반도를 거쳐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일대는 세계의 대주석광지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지나' 남부 운남성(雲南省)에도 기술한 바와 같이 다량으로 주석을 산출을 하고 있고, 남방권을 포함한 '대동아권' 전체적으로는 세계 주석 산액(약 18만 톤)의 약 70%를 산출한다. 즉 주석은 '대동아권'이 세계 경제의 신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광물원료의 하나이다.

알루미늄의 원료로써 중요한 보크사이트는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에 자원이 풍부하다. 현재 산액은 30만 톤 남짓이다(1938년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24만 5천 톤, 말레이 5만 6천 톤). 또한 남방권, 특히 대양주제도에는 과린산비료 원료인 인광이 무척 풍부하며, 그 산액은 약 150만 톤에 달하고 있다(1938년 세계 산액 1,460만 톤).

마지막으로, 남방권은 중요한 여러 종류의 열대식물자원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무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주지한 바와 같다. 대동아 남방권의 고무 산액은 실로 세계 산액의 96.5%까지 차지한다(1939년 세계 산액 120만 톤, 그 중 대동아권 98만 5천 톤). 이 식물 원료의 공급이 없으면 세계경제의 신건설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6

'대동아' 남방권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중요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미개발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그 인구 밀도도 기술한 바와 같이 특정 지대를 제외하고 대개 극동권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것이 영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때에는 인구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종래는 남방권이 부당하게 소위 앵글로색슨적 성격을 강요받아왔던 것이 이 점에 관한 결정적 장애를 이뤘지만, 금후 이와 같은 장애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인구밀도 1  $km^2$ 당 불과 1명이라는 대양주일 것이다. 호주는 면적이 '지나' 본부의 2배 이상, 거의 미합중국(784만  $km^2$ )에 필적하고, 섬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대륙이지만, 나아가서 인구는 '조선'의 3분의 1 이하에 불과한 약 700만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그 90% 이상이 앵글로색슨계이다.

무엇보다도 호주는 명백히 기후 및 토지의 관계상, 면적에 비해 큰 인구 수용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일컬어진다. 일 년간에 20인치 이상의 강우량인 곳은 이 대륙의 3분의 1 이하, 31%이다. 그 반면 호주대륙의 36%는 1년 강우량 10인치 이하라는 가뭄지대이다. 예를 들면 합중국에서 년 강우량 10인치라는 것은 그 4분의 1, 즉 합중국 전토의 9%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5분의 2는 열대에 속하고, 그래서 이들 지방은 그 60%가 일 년간에 20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기는 하나, 증발량이 온대에서보다 훨씬 크다. 덧붙여 말하자면 많은 강우는 가장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내린다. 또한 물이 풍부한 지방의 상당 부분은 산이 많거나 토지가 메말라있거나 해서 농업에 적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강우가 불규칙하다. 호주에서는 불과 그 7분의 1이 평균 일 년에 30인치 이상의 강우량지대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는 예상될 만큼의 인구 수용력을 갖지 못한다. 현재 그 인구분포가 동해안 및 남서해안에 집중해 있는 것은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크게 불가피적인 사정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별로 물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도 어떤 곳은 훌륭하게 목축에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호주대륙의 “30%의 토지”만큼은 상당히 완성된 식민이 가능하고, 또한 현재 인구의 약 3배인 2천만의 수용 여력을 지닌다고 일컬어진다. “호주의 인구는 약 700만으로 증가하여 그 대부분이 여섯 개의 수도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더욱이 2천만의 인구를 지지할 수 있을 만큼의 제 자원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뉴젠티 및 헬 공저 태평양지역과 그 제 문제, 영문, 1938년 간행, 130쪽). —무엇보다도 『농업국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1938년 간행)의 저자 부른너는 호주의 인구 수용력을 현재도 포함해서 2천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11쪽).

바야흐로 일본은 전대미문의 대작전을 일으켜, ‘황군’의 정예는 세계대전사상 유례없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빛나는 전과의 역사적 의의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여 신 ‘동아’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가다듬고, 그 정예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체 없이 대규모의 신건설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 때 ‘대동아’ 국토계획이 적정한 인구배치계획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고, 더구나 이 인구 배치계획에서는, 남방 제자원의 개발 촉진을 위해서도 또한 극동의 밀집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도 남방권으로의 극동인구의 이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임무라 생각한다.

〈출전 : 京城帝國大學教授 森谷克己, 「大東亞戰爭の經濟的意義」, 『大東亞戰爭と半島』, 55~72쪽〉

#### 4) 서춘(徐椿), 대동아공영권에서 반도의 지위와 사명

매일신보 주필 서춘(徐椿)

과거 반세기 동안의 우리 대일본제국의 발전과 팽창의 사적(史蹟)을 돌이켜보면 거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제국이 비약적인 큰 발전을 이루어야 할 기회에 조우할 때마다 그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병참기지가 되어 도움을 준 것은 조선 및 조선인이었다는 한 가지 사실이다. 48,49년 전의 ‘일청전쟁’이 그것이고, 38, 39년 전의 ‘일러전쟁’이 그것이며, 만주사변, 지나사변, 대동아전쟁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그 범주에 해당하지 않은가.

우리 일본제국의 국방상에서 보자면 일본 내지와 조선은 일청전쟁 이전부터 이미 내선일체(內鮮一

體)였다. 이른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에 있고, 또 이른바 송무백열(松茂栢悅)의 관계로, 한쪽의 변영은 동시에 다른 한쪽의 변영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긴밀한 연쇄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제국은 상대가 아무리 대국일지라도, 또 아무리 강국일지라도 그 대국 또는 강국이 조선에 간섭의 손을 뻗치는 것을 수수방관, 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는 태도를 취할 수는 없었다. 저 조선의 내란인 동학당의 난을 기회로 청국이 조선에 출병하자 우리 제국이 즉각 국운을 걸고 청국과 싸움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고, 그로부터 10년 뒤 러시아가 남하하려는 야심을 품고 만주, 조선으로 손을 뻗치려는 것을 보고 황국(皇國)의 흥폐를 걸고 러시아와의 일전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일청전쟁과 일러전쟁은 당시 일본이 조선을 자기 자신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기에 일어난 전쟁이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 전쟁이었다. 50년 전의 지나는 지금의 지나와는 다른 지나였다. 그것은 비록 잠자고는 있었지만 사자와 같이 보이는 지나였다. 또한 40년 전의 제국 러시아는 지금의 소련과는 다르다. 러시아는 그야말로 세계최강의 나라라는 인정을 받고 있던 나라였다. 이에 반해 우리 일본은 50년 전에는 지나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고, 40년 전에는 러시아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고 세계 열국들이 인식했고 일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다. 따라서 일청전쟁과 러일전쟁은 각각 상대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청국도 러시아도 ‘이겨도 져도 상관없는 전쟁’이었지만, 우리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칫 잘못하면 빛나는 3천 년의 역사를 종잇조각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 실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쟁은 결코 몇몇 물질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누구도 타인들끼리의 싸움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나서는 자가 없는 것처럼, 그 어떤 나라도 타국끼리의 분규에 국운을 걸면서까지 일전을 벌이는 나라는 일찍이 없었다. 이를 통해 보면 당시 조선인이 인식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일본제국의 국방상으로 본 내선일체는 이미 50년 전부터 사실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일청전쟁과 일러전쟁은 조선이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어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면적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조선반도가 만약 함몰되어 황해와 일본해가 연결되어 있었다면 분명 50년 전의 일청전쟁도, 40년 전의 일러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한다.

“황국의 흥폐는 이 일전에 달려 있다”란 일러전쟁 당시 도고(東郷)<sup>89)</sup> 원수가 한 말인데, 일청전쟁 당시도 역시 일본으로서는 당시의 나라 사정을 여실히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것이리라.

이렇게 위험한 전쟁을 시작한 것인데, 양대 전쟁에서 모두 훌륭하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무엇보다 어능위(御稜威) 아래 제국 장병들의 용전분투의 결과이고 천우신조에 따른 것임은 물론이지만, 그 양대 전쟁에서 당시 조선의 정부 요인들 중에는 이른바 사대당(事大黨)도 있었고 친러파도 있어서 일본제국의 국책 수행을 방해한 자도 있었던 모양이지만, 그러나 조선의 영토는 당시 일본군의 작전상 유리하게 사용되었고, 또한 조선의 대중은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군의 군사행동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다. 미나미(南) 총독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번 총독부 국장 회의석상에서 “일러전쟁 당시도 부산에서 봉천까

89)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1847~1934). 청일·러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사령관.

지의 철도 부설에서 당시 애국단체 일진회원들의 눈부신 협력은 지금도 이야깃거리로 감사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당시 협력한 것은 일진회뿐만 아니라 조선인 전부였다. 또한 철도 부설은 훨씬 이후의 일이고, 그 이전에 군수품 수송을 비롯한 기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일에는 조선의 장정들이 그 임무를 맡았다. 또 이런 종류의 협력은 일러전쟁뿐만 아니라 이미 일청전쟁 당시에도 조선의 대중은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군에 협력했다. 이로써 양대 전쟁에서의 조선인의 협력은 분명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양대 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 요인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당시 청국 또는 구 러시아제국은 이기든 지든 상관없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진 것이고, 우리 일본은 필승불패의 신념으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이 사실은 이번 대동아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본다.

양대 전쟁에서 우리 일본은 대승했다. 그 결과 일본은 역사상 미증유의 비약적인 대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일본과 조선은 국방상 일체가 되었다. 정치상의 내선일체는 일러전쟁 후 5년이나 지나 1910년 8월의 ‘일한합병’을 기다려 실현되었지만, 국방상의 내선일체는 이미 1905년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성립되었다.

양대 전쟁의 결과 인구 2천만, 면적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조선은 일본제국의 판도 내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써 일본제국은 인구, 면적 모두 30% 이상 증가했다.

이 양대 전쟁에서 조선 및 조선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첩경은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보는 것이다.

만약 면적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조선반도가 해저에 함몰되어 황해와 일본해가 연결되어 애당초 하나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면, 그래도 50년 전의 일청전쟁이 일어났을까? 압록강 연안에서 일본 내지까지의 거리는 상해에서 일본 내지까지의 거리 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본 내지까지의 거리보다 짧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 문제를 상상해 볼 때, 그래도 50년 전의 일청전쟁, 40년 전의 일러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메이지(明治) 초기부터 1905년까지를 일본제국의 발전·팽창시대라고 본다면, 일러전쟁 이후 1931년 9월 만주사변 직전까지의 약 25년 동안은 집약시대(集約時代) 또는 충실시대(充實時代)에 속한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의 집약시대에 조선 및 조선인의 역할 또한 세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본디 조선인은 일본 내지의 야마토민족(大和民族)<sup>90)</sup>과 동조(同祖), 동문(同文), 동종(同種)으로, 저 구미제국의 식민지 토인과는 부류가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역대 총독들의 적절한 시정(施政) 덕분에 조선의 대중은 완전히 일본제국의 신민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것이다. 같은 2천만이라는 숫자라도 이것이 만약 아프리카의 토인 같은 것이었다면 일본제국에 누(累)를 끼쳤으면 끼쳤지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을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 어떤 지역을 보더라도 불과 22만 평방킬로미터 안에 조선과 같이 풍부하고 많은 종류의 지하자원, 지상자원, 바다의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은 없을 것이다. 이런 풍부한 자원은 일본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이다.

---

90) 일본민족.

필자는 이로써 과거 반세기 동안의 일본제국의 발전 팽창이 단지 조선 및 조선인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규슈(九州)의 바다 건너편에 조선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과거 50년 동안의 일본제국의 비약적 발전의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되었음을 지적할 따름이다. 일본제국이 오늘날과 같은 위대한 발전을 이룬 근본 원인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비할 바 없는 일본의 국체의 힘에 있으며, 우수한 야마토민족의 구상과 활동의 선물이다. 조선인이 여전히 꿈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던 50년 전에 이미 조선반도를 국방상, 일본 내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야마토민족의 혜안이다. 또한 설령 혜안을 갖고 있었다 해도 어지간한 용기와 자신감이 없었다면 일청전쟁과 일러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이고, 1894, 1895년경의 일본은 면적이 불과 38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3천만 정도에 지나지 않는 소국이였다. 이러한 소국이 그렇게 큰 청국, 또 그렇게 강한 제국 러시아를 상대로 무력으로 승패를 결정지으려는 결심하게 된 사실만 보더라도 야마토민족의 용기와 자신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야마토민족이 이러한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팔굉일우(八紘一宇)의 건국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조선반도 및 조선인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을 따름이다.

한편 이를 조선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조선의 고대 역사는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조선인이 손바닥만한 면적과 2천만 정도의 인구로 사방의 강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능히 거취에 잘못을 범하지 않고 일본에 협력한 감정은 오늘날 조선인이 대일본제국의 신민이 되어 황국신민으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40, 50년 전의 조선의 나라 사정과 당시의 국제정세를 대조해볼 때, 당시의 조선은 도저히 독립국으로서 존재할 힘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청국 편에 서는 사대당이 있었고, 제국 러시아 편에 서는 친러당이 있었고, 일본 편에 서는 개화당 혹은 친일파가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그것을 방증하고 있다. 더 이상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면 조선은 사방의 어느 한 나라에 붙게 되는데, 그러나 어느 나라에 붙을지는 바로 조선인 천년의 역사,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때에 조선이 저 청국의 발톱에서 벗어나고 제국 러시아의 범의 아가리에서 벗어나 일본제국에 붙었다는 것은 조선 및 조선인을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1905년 5월 27일 일본해에서의 해전은 불과 30분 만에 승패를 결정지었다는데, 만약 당시 도고 함대가 이기는 대신 발틱 함대가 이겼다고 한다면 지금쯤 조선 및 조선인은 어떻게 되었을지는 상상만 해도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무서운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유럽 러시아에서 악질적인 죄를 저지른 자는 시베리아에 보낸다고 하는데, 만약 조선이 제국 러시아에 붙었다고 한다면 지금쯤 조선은 유럽 러시아의 악질 범죄인 또는 그 자손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조선인 장정들은 러시아의 서부 국경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인부로서 이송되었을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조선이 러시아에 붙지 않고 일본제국의 판도에 붙은 것이 조선인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요컨대 일청전쟁과 일러전쟁이라는 양대 전쟁은 일본이 자기 자신을 팽창 발전시키고 국방상에서 조선 및 조선인을 구원하고 아시아 민족들을 각성시킨 획기적인 전쟁이었다. 이리하여 집약시대는 가고 다시 활약시대에 들어섰다. 1931년 9월의 만주사변은 그 발족이었는데, 당시 조선은 글자 그대로 병참선이 되고 병참기지가 되었다. 당시 만주에 있던 백만의 조선인들이 황군(皇軍)의 만주에서의 군사행

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이미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이다

1937년 7월부터의 지나사변은 만주사변의 연속이고 또 1937년 8월부터의 대동아전쟁은 그 연속이다. 지난 12년 동안 조선이 일본제국의 영토로서 맡은 역할, 조선인이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맡은 임무 및 역할은 분명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가령 75전과 1원의 차이는 불과 25전이지만 75전이라는 것과 1원이라는 것은 그 울림이 다르다. 1원이라고 하면 단위가 달라서 상대에게 주는 울림이 매우 크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인구를 1억이라고 하면 세계에 대한 그 울림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일본 국민 자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으로 든든하다는 느낌을 준다. 또 일본 내지와 조선이 하나가 된 지 불과 30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조선인은 완전한 황국신민이 되어 내지인과 조선인이 형제처럼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낸다는 것이 세계, 특히 대동아공영권 내의 민족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들은 필경 놀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일본제국은 대동아공영권 내의 민족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또 공영권 내의 민족들은 그 전례를 보고 단사호장(簞食壺漿)으로 황군을 맞이하지 않겠는가.

또 이 조선, 면적 22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이천사백만의 조선반도가 일본제국의 일부로서 소비에트 러시아의 동부 국경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해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유사시의 경우에 매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사변이 사직된 이래 조선인은 지원병, 또 출정 장병 환송·환영식, 국방헌금, 제일선 장병 위문, 저축 및 근로를 비롯한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었고, 또 현재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황국신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 이상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제국의 백년대계에서 보더라도 황국신민으로서의 조선인의 영원한 행복에서 보더라도 조선 및 조선인이 짊어진 사명 및 임무가 그 이외에도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러한 선에 입각해 적성(赤誠)을 다해야 함을 여기에 강조하는 바이다. 예컨대 일본 내지는 내지의 각 설비로 태평양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조선반도는 그 구역 내의 설비로 내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북방의 국경을 지킨다는 결심을 하는 것도 그 하나이다. 또한 남방 개발에 조선의 인적 자원을 다수 동원하는 것은 잔지 내지인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중의 의의 및 효과가 있음에 분명하다.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도중 및 완성 뒤에는 조선은 적어도 대동아권 내에서의 공장이 될 운명에 있다. 일본제국의 국토계획에서 보더라도 대동아공영권 내에서의 적지생산주의(適地生産主義)에서 보더라도 기후가 온난하고 전력이 풍부하며, 또한 노동력이 많은 조선이 일본 내지와 마찬가지로, 혹은 내지를 능가하는 정도의 공장의 중심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황해 연안은 일본해 연안 이상으로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인의 해외 발전열은 매우 왕성해지고 반도인은 일본제국의 신민이 된 덕분에 세계를 받아들여 두고 널리 활약하는 길이 열린다. “천지가 변영하는 이 시대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천황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보람이 있으리”란 그야말로 이러한 경지를 누러한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태어난 동포들이여, 대동아공영권 확립 도상에서의 그 지위와 임무를 깊고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용왕매진(勇往邁進)하지 않겠는가.

〈출전 : 徐樞, 「大東亞共榮圈に於ける半島の地位と使命」, 『大東亞戰爭と半島』, 人文社, 1942년, 73~82쪽〉



## 5)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병참기지와 반도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 1. 머리말

‘대동아전쟁’ 발발 이래 ‘황국’의 대전과가 잇달아 오르고, 그것은 싱가포르 함락에 의해 실로 일전기를 구획했다. ‘대동아공영권’은 이미 단순한 이상 내지 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야흐로 구체적 현실이 되고 그 확립과 육성이 전적으로 우리 일본인의 책임이 되기에 이르렀다.

### 2. ‘대동아공영권’의 핵심 —‘내선일체’

우리들은 그 때문에 지금 다시 ‘대동아공영권’에서의 조선의 지위를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나는 오늘날만큼 “내선일체”의 진의가 청신 또한 심원한 의미로써 재확인되어야 될 때는 없다고 믿는다. 처음부터 ‘동아’ 신질서이든 혹은 ‘대동아공영권’이라고 하든 그 중심적 주체가 어디까지나 우리 ‘황국’ 일본이고, 우리 ‘황국’ 일본의 지도적 실력을 근본적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는 바이다. 만일 병렬적, 평판적인 ‘동아제국 및 ‘동아’ 제 민족의 연합 내지 연맹이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난번 정부가 단호히 경고를 발한 “‘황국’의 주권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동아’ 연맹론적인 생각임에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면 ‘동아’ 신질서의 건설을 단순한 관념적 빈 말로 끝나게 하는 비실제적인 추상론임에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동아’ 신질서의 건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또한 한발 한발 그 실천을 밟아가려고 하는 자는 우선 제일 먼저 그 중심적 주체인 일본의, 국가로서의 강력함을 더 한층 회구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는 바의 ‘동아’ 신질서라는 것이 영미의 착취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아시아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는 이상, 이는 당연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동아’ 신질서 내지 ‘대동아공영권’ 건설에는 일본이 어디까지나 그 중심적 주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지만, 그렇다면 주체이어야 할 일본을 중심으로서 본 경우, 소위 객체이어야 할 ‘대동아공영권’의 제 민족은, 예를 들어 보면 주체인 일본이 원의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서 같은 반경의 거리를 갖는 원주상에 병렬한다고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일까? 그러나 이것도 극히 추상적인 생각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전에 의하면 ‘동아공영권’이 ‘대동아공영권’으로 확대되는 것이 이상에서 현실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더욱 그것이 아시아 전체로 확대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도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일본임과 동시에 그 주축은 어디까지나 ‘일만지(日滿支)’의 상부상조 관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만지’가 그 상부상조 관계를 공고히 확립하고 발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대동아공영권’도 장차 어떠한 것으로부터 확대된 공영권도 그 건설을 말하는 것은 빈 말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만일덕일심(日滿一德一心)<sup>91)</sup> 관계는 이 ‘일만지’ 관계의 더욱 보다 깊은 점으로 맺어져 있는 불가분관계라고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 바이므로, 일만 불가분 관계야말로 ‘대동아공영권’ 혹

은 그 어떠한 큰 공영권으로 확대발전하는 것도 그 기초적 주축이어야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어디까지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사물을 생각해 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원대한 이상도 사상 누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기초공사를 공고히 굳히고 이어서 1층, 2층, 3층의 순으로 한발 한발 높이 겹쳐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기초를 경시하고 1층, 2층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커다란 누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외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대동아공영권'의 결합 양식은 주체적 중심이 '황국' 일본에 있을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한발 나아가 이 주체적 중심에서 발전하여 점차 결합의 강도를 달리 하는 단계적, 순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대동아공영권'은 그 구성 제 민족이 모두 주체적 중심에서 등거리의 반경으로써 그려진 원주위에 병렬하는 원형과도 닮은 평판적이 것이 아니라, 이른바 시계의 태엽처럼 중심에 갈 만큼의 강인한 힘을 갖고,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놀랄만한 신장력으로 끊임없이 주어진 원주를 확대하려고 하는 입체적, 발전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일단 불가분 관계가 '대동아공영권'의 기초적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더욱이 한 걸음 더 깊이, 그것보다도 한 층 더 심부에 "내선일체"가 엄존해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해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내선일체"란 반드시 정신적인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함께 경제적인 것도 그것은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내선일체"는 대륙의, 나아가서는 '대동아'에의 '황국'의 모습임에 틀림없다고 나는 믿고 있다.

이 "내선일체"의 엄연한 관계는 조선에 사는 '내선인(內鮮人)'은 물론, 본토에서도 만주에서도 '지나'에서도 또한 '대동아공영권'의 어떠한 지역에서도, 전일본인이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점점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만주사변', '지나사변', 더욱이 '대동아전쟁'으로 발전해서 잇달아 공영권이 확대되어 가도, 아니 확대되어 갈 정도로 점점 더 이 중핵적 유대는 강인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대능위(大稜威)가 남방아시아에 이르러, 남방으로의 관심이 일본인을 사로잡는 것은 실로 당연하고, 남방 발전을 향한 정열을 전일본인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은 잊어버려도 좋다"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

'대동아전쟁' 아래 이 전대미문의 대 팽창기에 있어서 나는 특히 이것을 강조해야 된다고 믿는다.

### 3. 아시아 해방운동의 주체인 '반도 동포'

이와 관련해서 부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반도' 2400만 동포가 처한 입장이다. 새삼 말할 필요도 없지만, '반도' 2400만 동포는 일본인이고, 내지인과 함께 '대동아공영권' 지도자인 영예와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다. '대동아전쟁'은 당연히 아시아 민족의 해방 전쟁이어야 하고 '동아' 신질서의 의의는 실로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주의해야만 될 것은 이 '대동아전쟁'에 의해 아시아 민족이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할 때 그 '동아' 신질서라는 것은, 미영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적 세력의 아시아 제 민족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라고 하는 점이다.

91) 일제가 만주국 지배의 당위성을 내건 슬로건.

그런데도 우리 ‘반도 동포’는 구미인의 식민지적 지배를 아직도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지나’나 태국이 종래 그랬던 것처럼 구미인의 소위 “반식민지”조차도 아니었던 것이다. 만일, ‘일청전쟁’이 없었다면 조선은 청국에 대한 종주 관계를 통해 혹은 반식민지 ‘지나’의 일부분을 따라 구미의 반식민지적 지배하에 놓였을지도 모르고, 또한 만일 ‘일러전쟁’이 없었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직접지배하에 있는 식민지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청, 일러의 양 역할은 조선이 서양적 세력의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가 되는 것을 구했다. 이전에 대동강(大同江)에서 미국함선 셔먼호를 격퇴시키고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한 조선의 명예는 일본에 의해 유지된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에서 서양세력의 식민지적 내지 반식민지적 지배에 처한 역사를 갖지 않은 조선이야말로 가령 ‘일한병합(日韓併合)’이 없었다고 해도 일본과 손을 잡고 아시아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자이어야 할 훌륭한 자격을 갖고 있었다고 해야 되겠지만, 하물며 ‘일한병합’의 대업을 이루고, 도처에 구미의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아시아 동쪽에서, 아직 그 오점을 모르는 내선이 실로 일체가 되어 대 일본인으로서 일어난 이후는, 이것은 드디어 점점 더 명약관화해지는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 2400만 동포야말로, ‘대동아전쟁’하 아시아민족 해방운동의 지도자이자 주체인 영예를 짊어지는 것이고, ‘지나인’이나 태국인이나 말레이인이나 필리핀인과 같이 해방되어야 할 객체는 단연 아닌 것이다. 이것은 대다수의 ‘반도 동포’에 대해서는 새삼 말해야 할 바는 아니지만, 아시아민족 해방의 기운이 팽배하게 높아져가고 있는 이 때, 일부 소수의 편협한 민족 사상의 소유자로 하여금, 이 해방운동의 방향을 잘못 짚어서 조선 및 조선 동포의 아시아에서의 높은 위치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감히 피압박민족이라고 간주해서 ‘반도’를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인 것으로부터 해방함을 ‘반도’ 대중의 행복이라고 잘못 믿는 자가 전무하지는 않기 때문에 행하는 고언이며, 또한 그와 동시에 아무런 깊은 성찰 없이 단지 명칭히 조선을 식민지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바의 일부 경솔한 내지인에 대한 충언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이 볼 때 이 ‘대동아전쟁’ 하에 있어서 또한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대동아공영권’의 확립확대 과정에서, “내선일체”의 팔굉일우적 의의는 점점 큰 중요성으로써 확인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한층 더 실천적 전진을 필요로 한다.

#### 4. ‘대동아공영권’에서의 조선경제의 비중

‘대동아전쟁’의 전과 확대에 의해 각종 자원이 풍부한 남방권이 현실적으로 ‘대동아공영권’으로 편입되어감에 따라, 혹자에 따라서는 조선경제의 전도에 대해 일말의 적막함을 품는 자가 없지도 않은 것 같다. 심한 정도에 이르러서는,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사명이 다소 그 중요성을 감소한 것과 같이 생각하는 자가 없지도 않다. 그렇지만 사견에 의하면 그것은 큰 오류다.

우선 첫째로 명확하게 해두어야 할 것은 조선경제가 일본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있는지, 따라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라고 하는 점이다.

조선경제는 일본경제의 일부분이고 일본국민경제의 한 지방경제이지만, 지금 편의상 조선경제를 내지경제와 분리하여, 대만도 마찬가지로, 즉 조선 대만 등의 외지를 일단 외국이라고 간주해서 이들을

포함한 제 외국에 대한 일본 '내지'의 경제관계를 상품무역의 비중에서 보면 아래 표와 같고, 내지로부터 보아 조선은 미국에도 만주국에도 그 다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전 세계 최대의 상품공급지이자, 또한 자산동결전의 미국에는 뒤지지만 그 밖의 어떠한 나라보다도 우수한 제2의 상품수요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 표는 1939년의 무역통계로부터 산출한 것이고, 자산동결은 물론 제3국 무역도 아직 비교적 순조로웠던 소위 무역정당시대의 계수(計數)이지만, 시대적으로 이미 이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한층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본토 총 수이출액(輸移出額) 중 대(對) 조선 이출이 차지하는 비중		
본토총수이출액	5,192,609(천엔)	100.0%
대 조선	<b>1,229,417(제1위)</b>	122.7
관동주	755,943	14.6
북미합중국	641,509	12.4
만주국	535,681	10.3
중화민국	455,479	8.8
대만	397,608	6.9
영국령 인도	210,995	4.1
네덜란드령 인도	137,802	2.7
영국	132,085	2.5

(1억 엔 이하 생략)

본토 총 수이입액(輸移入額) 중 조선 이입이 차지하는 비중		
본토총수이입액	4,209,539(천엔)	100.0%
대 북미합중국	1,002,384	23.8
조선	<b>736,882(제2위)</b>	17.5
대만	509,744	12.1
만주국	405,561	9.6
중화민국	215,662	5.1
영국령 인도	182,263	4.3
독일	141,003	3.3

(1억 엔 이하 생략)

비고) 1939년도. 본토에는 가라후토를 포함한다. 총수이출입액에는 남양(南洋)만 1938년의 이출입액을 가산.

즉 조선이 '내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경제적 관계에 있는가는, 위 표를 언뜻 보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도 영국도 우리의 통상관계로부터 탈락한 금후의 '대동아공영권'에서, 조선경제가 얼마나 커다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 5. 조선공업화의 심원한 의의

조선경제가 이와 같은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선경제가 '대동아공영권'의 어떤 지역

의 경제보다도 가장 '내지화'하고 있다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내지화'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서의 공업선진국인 내지에 접근해가는 것이라는 것임에 틀림없다. 조선공업화가 멋진 발전을 초래한  
 사실에 관해서는 이에 새삼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공업화에 대해서 나는 심오한 의의가 헤아려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원래 아시아에는 공업, 그 중에서도 중공업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환경을 타파한 공업 일본이 자국 '내지' 뿐만 아니라 외지인 조선과 동맹국 만주국도 공업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에 대한 서양의 제국주의적 경제 지배—아시아를 영구히 서양 공업의 판매 시장으로  
 서 운명지려는 욕심—에 대한 본질적인 반항이고, 그 자체가 '동아' 신질서의 심원한 의의를 갖는 것이  
 라고 해석해야 마땅할 것이다. 호칸친(何幹之)의 『지나의 경제기구(支那の經濟機構)』라고 하는 책은  
 '지나' 경제가 얼마나 반봉건적이고 반식민지인가를 논한 결과, "지나에는 연료공업, 강철공업 등의 중  
 공업의 기초가 없다. 조금이지만 그 기초를 갖고 있는 경공업도 이것을 다른 제1류 제2류 국가와 비교  
 한다면 실로 불쌍할만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국가가 과연 하나의 현대적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하나의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방역, 이와나미 신서판 41쪽)라고 개탄하고 있다. '동아' 구  
 질서에서는 '지나'와 같은 형식상은 훌륭한 독립국이라도, 구미 자본의 경제적인 지배하에 놓이면, 사실  
 상은 그 식민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나인'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조선에서는 경공업은 물론 "연료공업, 강철공업, 기계공업 등의 상공업 기초"도 지금은 대단한  
 기세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내지자본의 진출, 제패로만 보지 말고,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에서의 근대경제의 발전 및 그 고도화라고 하는 것에 우선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두고 이  
 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요컨대 아직 '대동아전쟁'의 심원한 의의에 투철하지 못한 서양적 공시주의의  
 포로밖에는 안될 것이다.

## 6. 경제의 "내선일체"화 — '대동아공영권'의 공업중심이어야 할 조선

이렇게 해서 이 공업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히 '내지화'해가고 있는 조선경제, 바꾸어 말하면 경  
 제적으로도 "내선일체"화 해가고 있는 조선이, '대동아공영권' 경제의 중심적 위치에 앉아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내지' 및 조선은 '대동아공영권'의 가장 경제적 밀도가 높은 공업중심, 공업지대이  
 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대동아공영권'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기 위해서  
 는 권역 내의 풍부한 원료자원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공업생산력 및 이들 원료자원  
 과 교환으로 각종 완성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공업생산력이 중심 지도국인 일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내지'만으로는 도저히 불충분한 것이고, 더구나 '내지' 전토를  
 모두 다 공업지대로 만들어 한 치의 경작지도 남기지 않고, '내지' 전생산 인구를 모두 공업인구로 만들  
 어 한 명의 농업인구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국토 계획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경제적  
 발달 정도로 보아 제2의 '내지'인 조선의 공업에 기대되는 바가 무척 큰 것이고, 따라서 현재 진행해가  
 고 있는 조선공업화의 경향은 한층 더 박차가 가해져야 된다고 믿는 것이다. 더구나 풍부한 수력전기,  
 본토와 비교하면 훨씬 풍부한, 그리고 공영권의 다른 제 지역과 비교하면 풍부 저렴한에서는 뒤쳐질

지도 모르지만, 교육보급, 국어의 이해, '황국 신민화(皇國臣民化)'의 정도에 있어서는 가장 '내지인'에 근접해 있는 노동력,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대동아공영권'을 결합하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요건인 해상운수에 있어서의 유망한 입지조건 그리고 특히 치안, 풍속, 기후 그 밖의 모든 환경이 가장 본토에 접근해 있다고 하는 이 자연적 및 사회적 입지조건 즉 아마도 "대륙진진병참기지"로서의 사명을 짊어지기 위해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조선의 이 같은 입지 제 조건은, 모두 그대로 '대동아공영권'의 공업 중심이여야 할 조선에 대해서도 실로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동아경제전쟁에서의 조선의 사명 또한 무겁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7. '대륙진진병참기지'된 사명은 점점 가중된다

그런데 당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륙진진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역할은 내가 이전에 '대동아전쟁' 발발 이전부터 강조해온 것처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 오늘날에도 아무런 수정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즉 대륙진진병참기지는 '지나사변' 발발 당초, '동아공영권'의 범위가 아직 대륙 부분 면에서도 북방권에 한정되어 있었던 시대라서 '반도'가 그 필요성을 중심으로 주장해온 바이지만, '동아공영권'이 '대동아공영권'으로 확대되어지고, 네델란드령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해양부분 혹은 프랑스령 인도, 태국, 말레이 같은 해양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대륙남방권부분이 포용되고, 따라서 공영권의 중심이 대륙에서 해안으로, 북방권에서 남방권으로 이행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반도'의 대륙진진병참기지로서의 중요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니 한층 그 중요성을 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요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이란, '대동아공영권'의 북방권 내지 대륙부분이 아직 건설 과정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반도'의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은 종전과 아무런 변화가 없고, 중심이 가령 남방으로 이행했다고 해도 기성의 북방권을 포기하는 것이 단연 아닌 이상, 대륙병참기지로서의 '반도'의 사명은 결코 마지막이 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동아전쟁'이 이미 발발한 오늘날에는 바쁘기 이를 데 없는 본토경제에 대신해서, 대륙은 가능한 한 조선이 인수하여 본토로 하여금 후환의 염려 없이 그 전 자세를 태평양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것은 이미 사실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즉 '대동아전쟁' 발발 이후 경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상(事象)—1월 14일 다케베(武部) 만주국 총무장관의 경성방문, 총독부 당국과의 간담, 그 결과 행해진 1월 28일, 29일 양일 신경(新京)에서의 물자교류에 관한 선만연락회의(鮮滿連絡會議), 그 성과로 판단하여 '북지' 당국도 가담해서 오는 3월 내지 4월 경에는 경성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제2회 연락회의, 1월 24일 청도(靑島) 및 제남(濟南)의 무역관계자의 내성(來城)에 의해 경성에서 개최된 조선 청도 무역 간담회 등등—을 볼 때, 대동아 개전 이후 소위 북방대륙권이 얼마나 조선경제에 기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종래 '북지(北支)', 만주 등의 북방 대륙권은 그 대일(對日) 기대물자의 획득에 대해서 걸핏하면 직접 일본 본토와 결탁하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그것은 물자수송루트를 해상으로 바라는 것이고, 지금은 개전 이후 당면한 적재량 문제는 그것을 무척 곤란하

게 여기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대륙의 육지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육상수송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며, 더구나 대륙권중 가장 종합적으로 각종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조선경제가 주목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사명은 대동아 개전의 오늘날이야 말로 크게 그 발휘가 기대되어지고 있다고 해야 될 것이다.

이 중요성이 한층 가중된다고 하는 것은, ‘대동아전쟁’ 발발 후 태평양이 작전 무대가 되어, 본토가 작전 직접 배후지가 됨으로써, 산업 경제적으로 제2의 본토로서 대륙에 있는 조선은 나아가서 본토의 후방병참기지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대륙전진병참기지라고 하는 말은 대만이 남진 기지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조선은 북진 기지이고, 대륙으로 전진하는 기지이지만, 그러한 의미와 함께, 또한 본래 본토에 있어야 할 병참기지가 바다를 넘어 대륙의 일각에까지 전진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대륙전진병참기지의 “대륙”이라는 것은 전진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또한 병참기지 그 자체가 거기까지 전진해오고 있다고 하는 그 위치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극히 대충 말하자면, 그것은 대륙에까지 전진하고 있는 본토경제라고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대륙전진병참기지는 물적으로 본 내선일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대동아전쟁’ 하의 오늘날 전진의 방향이 남방에 중점이 두어지는 경우에도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사명의 중요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니 한층 그 중요성이 가중되었다고 해야 될 것이다.

## 8. 양양한 조선경제의 전도

물론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이 움직여서는 안 될 현실이 된 오늘날, 일본의 산업구조는 종전의 원료 자원 경색에 즉각 대응해서 새삼 재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에 관련해서 개개의 산업, 개개의 기업에서의 성쇠는 단시일 내에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방적 견지에서 생각해도, 일률적으로 대용원료에 의한 공업이 버려진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석탄액화, 카바이트, 반토혈암(礬土頁岩) 등에 의한 알루미늄 공업 등, 또한 동종 원료자원에 대해서도 풍부한 남방 자원 앞에 전혀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린다고도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쌀과 같은 경우는 수송과 국민 기호라는 점에서 선미 증산(鮮米增産)의 필요는 결코 느끼지 못할 것이고, 또한 산금(産金)과 같은 경우는 남방 작전의 확대에 대응해서 점점 더 필요해질 것이다.

특히 쌀에 관해서는 프랑스령 인도지나, 태국, 버마 등의 대신미지의 공영권 편입에 의해 조선의 쌀 산출 전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점에 의문을 품은 자도 없지는 않았을 테지만, 제79 제국회의에서 분명해진 정부 방침은 이와 같은 의문을 기우에 지나지 않게 하였다. 즉 미우라(三浦) 농림차관은 국민 주식량인 쌀은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가지고 올 방침임으로 따라서 내외지, 만주에서 자급을 도모하고, 태국, 프랑스령 인도지나, 버마 등의 잉여된 쌀은 홍콩, 말레이, 자바 등의 부족 지역에 보급할 방침이라고 언급하고, 또한 이노(井野) 농림수산장관도 쌀은 국방상의 관점에서 ‘내외지’ 자급을 도모하고 남방권의 쌀은 저장미 및 흥년이 든 경우의 보충미로서만 이를 수입한다고 언명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의 이러한 방침을 반영해서, 조선총독부의 확충대증미계획(擴充大増米計劃)(1942년 이후 1955년까지로 총액 7억 50만 엔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137만석의 증산을 꾀한다)이 통과한 것은 이번 기회에 크게 주목되어야 한다. 대체로 여러 가지 입지조건으로부터 생각해서, 조선과 같은 남방권과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고, 더구나 기후 그 밖의 관계에서 남방권과는 많이 다른 생산조건을 갖는 지역에 있어서는, 남방에서는 다할 수 없는 각종의 산업적 경제적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선경제의 전도는 점점 더 양양한 부분이 있고, 점점 더 중요성을 증대한다. 남방 발전 시대가 되므로 조선의 전도는 적료(寂寥)할 것이라는 등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자금과 같은 경우는 남방 개발을 위해 금후 아무리 있어도 부족할 것임으로, 종래와 같이 조선이 그 자금의 대부분을 '내지'에 의존하고 있었던 상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그 지역의 축적이 금후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태와 같은 저축 실천으로써는 도저히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반도'는 장래의 비약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크게 자금의 축적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들은 밝은 희망을 가지고 한층 더 경제총력의 발휘에 노력해야 한다.

(출전 : 鈴木武雄 「兵站基地としての半島」, 『大東亞戰爭と半島』, 人文社, 1942년, 83~98쪽)

### 3. 조선인의 통치협력

#### 1) 윤덕영 박춘금의 시국 대담

반도를 대표하여 둘밖에 없으니 진취갈려합시다

윤 - 성함은 익히 들었소만은 이렇게 만나기는 참이로구려.

박 -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터에 객지에서 불편하신 것이나 없으십니까?

윤 - 왜 없겠소. 일전에 우가키(宇垣) 각하를 만났더니 그도 그렇디다. 늙은이가 객지에서 될 일이 아니요. 다음에는 가족을 데리고 오라고 하나 그게 거추장해서 되겠소. 박대의사 나 내나 다 국가를 위한 일이니까 설사 좀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참을 수밖에.

박 - 그 일을 말씀입니까.

윤 - 년 내로 박대의사의 반도를 위한 노력은 가락하였지만 금년 의회만 하더라도 금증산(金增産)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기타 박대의사의 활약은 그 공이 불소하다고 생각하오. 반도를 대표해서는 우리 단 둘 밖에 없으니 진취갈려할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지만 나는 이미 늙은 사람이요. 박대의사는 한참 일할 나일 뿐이라. 중의원은 귀족원보다도 제일선이니 많이 활약해 주시기를 바라오.

박 - 힘 자라는 데까지는 분투하겠습니다. 대감 말씀과 같이 금으로 말씀하면 전시에는 더욱 필요한 것인데 현재의 금증산 계획을 보면 더 개척 개량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제가 이번 의회에 주로 이 문제에 주력한 바이며 그 밖에 이상으로 말씀하면 미나미 총독 각하 이하 총독부 당국에서도 매우 열심히 노력합니다만은 참정권(參政權) 문제와 의무 교육 문제도 우리가 앞장을 나서서 일반 내지인에게 인식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윤 - 그 이를 말이겠소. 나도 그동안 유아사(湯淺) 내대신 아베(阿部) 요나이(米内) 양 신구 수상 고다마(児玉) 내상을 위시하여 우가키(宇垣) 대장 테라우치(寺内) 대장 세키야(關屋貞三郎) 씨 등 제각각을 만나서 미나미 총독 치하에 반도의 견고한 총후 상태와 참정권 의무 교육 등에 대한 반도 민중의 요망을 전달하였더니 모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하여간 박대의사 같이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이에 게 반도 민중은 여간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소.

박 - 감사합니다.

### 반도인의 참정권은 왜 필요한가?

윤 - 그건 그렇다 하고 박대의사가 참정단상에 서려고 결심한 동기 이야기를 들려주시구려.

박 -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내선일체를 하루라도 빨리 실현하려면 반도 대표가 한 사람이라도 참정단상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그 당시 내지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감정적으로는 늘 우월감을 가졌고 정치적으로도 반도를 위하여 개혁할 점이 산적하였었는데 이것을 다만 진정이라든지 요로에 청원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यो. 어쨌든지 반도를 대표한 아무나가 참정석상에서 반도의 여론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되나 안 되나 한번 후보해 보았습니다.

윤 - 그래 지금 내지가 반도에 대한 인식은 그때와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오.

박 - 그야 소양지판임지요. 무슨 일이고 그렇지만 그저 저하기에 달렸나 봅니다. 미나미 총독의 지도도 물론 좋았지요만은 반도인 자신도 많이 각성하였습니다. 지나사변 이후 전선을 시찰갔다 돌아온 대의사들이 저를 보는 이마다 박군 고맙네 고맙네 합니다. 첨에는 무슨 소린가 하였더니 전선에서 활약하는 반도인의 열성에 감격한 용사들이 시찰 간 대의사들에게 돌아가거든 전선의 내선일체의 아름다운 정황을 총후에 전해달라고 한 부탁을 받아 가지고 와서 위선 저를 보고 고맙다고 치사하는 것임을 알고 저는 눈자위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 - 그렇소. 서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한 걸음씩 접근해 오면 완전히 일체가 될 날도 멀지는 않습니다.

박 - 내선이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것이 반도인의 행복일 뿐 아니라 내지인에게도 행복이며 따라서 일본의 행복인 이상 필연적으로 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 옛과 다르다 반도인 대의사야 많이 나오라

윤 - 여부가 있소. 그리고 박대의사가 맨 처음에 입후보 했을 때 말하자면 반도인으로는 효시이니까 당선되기까지는 적잖은 파란 곡절이 있었으리라고 상상되는데 그 때 광경은 어떠했소?

박 - 대감 말씀과 같이 파란 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시 연설회에는 입추의 여지도 없이 대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무슨 제 정책이나 주장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요 그저 유산 기분으로 조선

사람 박춘금이란 어떻게 생긴 자인가를 구경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투표해 줄 리 있습니까. 그 때 정보를 들르니까 16명 입후보 중에 제가 14번째라고들 하고 한편 조선 관계의 인사들을 만나면 누구나 가망이 없다고 하기에 틀린 줄로 알았습니다만은 제 밑에도 둘이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싸웠더니 의외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윤 - 참 장한 일이요. 많이 분투해 주시요. 그 당시와는 사정도 다르니까 반도인으로 속속 입후보하는 사람이 나와도 좋을 때요. 또 그래야 되겠는데-

박 - 그렇습니다. 차차 그 기운이 익어가겠지요. 대감 동경은 전에 행차하신 일이 계시든가요.

윤 - 벌써 6번째요. 맨 처음에는 일청전쟁 시에 유람신사(遊覽紳士)로 칙명을 받들어 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토공(伊藤公) 일년기에 봉명하고 왔었고 그 다음에 대정 천황 어직위식 때에 왔었고 그 다음 고왕 전하 동행(東行)하고 싶을 때에 시종장으로 왔고 재등자작 장례식에 귀족 대표로 왔고 이번까지 무릇 여섯 번째가 보요.

박 - 그러면 동경이 그리 생소치는 않으시겠구먼요.

윤 - 웬걸. 늘 타고만 다니니까 어디가 어딘지 아직도 분간 못 하겠소.

박 - 그러실 테이지요.

윤 - 이렇게 만나서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니 매우 반갑소. 후에 또 종종 만납시다. 그리고 다 같이 국가를 위한 일이니 진충갈력합시다.

박 - 그리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종종 뵈겠습니다.

〈출전 : 「尹德榮侯와 朴春琴氏(半島出身 貴衆兩院議員會談)」, 『三千里』 제12권 5호, 1940년 5월, 214~216쪽〉

## 2) 정인섭 김한경 박영희 현영섭의 청년문제좌담회

### 청년문제좌담회(青年問題座談會)

오쿠야마(奥山) 오늘은 더운 날씨에 바쁘신 중에도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국 하에서 특히 청년 문제를 문제 삼아 여러분의 각 방면에서의 의견을 들려주셔서, 이것을 연맹 기관지 총동원에 게재하여, 일반 연맹원에게 참고로 제공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 모임을 개최한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특히 청년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서, 제 쪽에서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내지'에서의 그것보다도 더더욱 중요성을 띤 문제라고 종래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건설이라는 상에서 말하더라도 또한 모든 시설의 추진이라는 점에서 말하더라도 아무래도 청년의 힘에 기대하지 않으면 안되며 더구나 조선에 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이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도 있고,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새로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 교양을 쌓은 사람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청년층인 사람들은 어쨌든 새로운 교육을 받고, 또한

여러 책도 읽고 신문, 잡지 등도 읽어 사회의 추세 따위에도 비교적 통해 있고, 또한 통치 방침이라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독 정치상에서 말하더라도 극히 중요한 계층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총독정치가 성공할지 아닐지 하는 것은 청년층을 잘 잡을지 잡지 못할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일컬어지는 정도라서, 이것은 감히 조선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렇고, 특히 독일처럼 히틀러가 오늘날 저 정도의 성공을 정치상으로도 전쟁상으로도 이룩하고 있는 까닭은 필경 청년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바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 조선이라고 하면, 아직 역시 과도적 시대를 충분히 지나고 있지 않은 듯하여, 원래 조선에는 장유유별이란 것이 상당히 엄중하고, 때문에 청소년은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회적 여러 가지 시설의 추진력에 미치게 하려고 하는 듯한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오늘은 뭐라 해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정치는 물론이고 산업, 교육 내지는 국방도 도저히 그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선의 청년에게는 한편 무척 고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니 해도 아직 일반 사람들에게는 청소년을 중시한다고 하는 듯한 기분이 충분히 널리 퍼져 있지 않은, 무척 소극적이라고 할까 보수적이라고 할까, 청년들이 뭐가 일을 하려고 해도 쉽사리 노인들이 생각하듯 못합니다. 또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도 노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청년들이) 생각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종래 청년의 강습회나 여러 회합 등을 하여 호소 받는 고민은 그러한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해도 조선의 오늘날은 청년의 손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총독부에서도 청년의 교육에는 무척 힘을 들이고 있고, 또한 청년층 사람들도 그 기세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리 대단한 화제는 만들지 않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조선의 청년문제를 얘기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저, 총독부에 있어서 조금 청년운동에 종사해온 경험에서, 어쨌든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서 자신의 체험담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여러분 쪽에 솔직하게 얘기를 부탁드리기로 하고, 차차 얘기를 진행해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에다(上田) 군에게 부탁드립니다. 우에다 군은 최근 일부러 '내지'에 나가서 일, 이년간 동안 대일본청년단 쪽에서 청년운동 연구를 하셨습니다만, '내지'에 가서 여러 연구하신 결과 조선 청년을 어떻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조선 청년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따위를 그 밖에 대해서 느낀 것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반도청년과 이상

우에다(上田) 청년의 특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성을 충실하게 파악하여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년의 특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든 분 입장에서 보면 무척 애매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이상을 가지고 그것에 매진해간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청년은 하나의 이상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선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파들림을 당하고, 노인의 하나의 희생이 된다고 하는 듯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로부터 오늘날까지 올 때까지는 청년들 사이에 아무런 이상도 없고, 단지 노인이

말하는 바를 지켜가는, 노인에게 봉사한다고 하는 형식주의적으로 흘러, 청년이면서 청년이 아닌, 젊은 데도 불구하고 나이 든 자와 같은 기분으로 있는, 젊디젊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소년에서 바로 장년층으로 비약해버린다고 하는 듯한 형태여서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최근 조선연합청년단 결성인가 뭐가로 구체적으로 발전은 해오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선의 청년도 '내지'의 청년과 마찬가지로 이상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조선의 청년도 '내지'의 청년도 같은 형태로서, 엄청난 말입니다만, '천황'의 방패가 되는 것, 그것이 골똥히 생각한 하나의 말로 말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청년에게 부여된 것은 그것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조선의 청년의 전부가 새로운 인생관을 수립해가는, 그것이 우리들이 조선 청년을 가르칠 때의 중심 관(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 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러한 높은 이상을 조선 청년에게 가르칠 때에 우리들이 무척 관념적인 형태로 가르친다고 하는 듯한 여러 어려운 점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교육과 청년운동과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민으로서의 도덕을 갖게 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청년운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들의 생활, 즐거운 생활환경이란 것을 만들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 청년들이 부딪치는 문제로서 결국 자신들의 향토, 태어난 땅이란 것과 자신들이 받들어 모시는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란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지'에서 돌아올 때에 연합청년단의 구리하라(栗原) 상임이사로부터, 자네는 이제부터 조선에 돌아가 여러 일을 할 테지만, 조선 청년들에게도 폐하게 다 바칠 길이 있을 테니까 자네는 그것을 잊지 말고, 확실히 해주게 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태어난 존엄으로써 폐하게 충의(忠義)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지'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공동 상에 선 생활공동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만, 그것을 조선에 갑자기 가지고 오면, 자신이 태어난 향토와 새로운 국가형태 사이에 구별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이라는 것을 일본국가 내에 있어서의 향토라는 것으로 바꾸어놓고, 그 공동의 목적으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의 청년도 유쾌하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러한 것을 하게 할까 하면 많이 있습니다만, 시골이면 우선 거기에 신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사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저는 우선 그런 식으로 해 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인생관, 국가관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 제 평소 희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직 얘기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 혼자만 장황하게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오쿠야마(奥山) '내지'에서는 현재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청년 지도교양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척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수한 청년이 뛰어난 인격자 밑에 많이 양성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적 사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문하에도 남주옹(南州翁)의 지도를 받은 사츠난(薩南)<sup>92</sup> 청년 등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여러 가지 저는 빈약한 힘으로 문헌을 찾아다니며 보았습니다만, 청년의 교양, 양성파위에 대한 시설이 아무래도 종래 없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쪽에서 종래 이러한

92) 사츠마국(薩摩国)의 남부.

것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양성되어 왔다고 하는 듯한 것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우에다 저도 뭔가 없을까 하고 생각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발견되지 않았고, 조선에 돌아와 물어 보아도 □ 자는 없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같군요.

오쿠야마 이시하라(石原)상은 조선 신궁(神宮)에서 신도(神道)라든가 일본정신이라든가 하는 것을 상당히 연구하시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카마노하라(高天原)<sup>93)</sup>의 입장에서 본 조선청년의 교양에 대한 느낌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시하라 아무래도 어려운 얘기로, 연구라고 하셨습시다만, 입학하고 있다고 하시는 편이 저에게는 상당히 편합니다. 다카마노하라 즉 신계(神界)에서 내려다 본 조선청년에게는, 우선 선조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서로 깨달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신도 방면에 입학해서 얻은 점은 무엇인가 질문을 받으면, 전 ‘진정한 선조란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어쩐지 좀 허전하긴 하지만 대답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는 좀 바뀔지라도, 오늘 팔굉일우란 중요한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 세계인류가 ‘진짜 선조’를 서로 발견하고 서로 깨닫고 비로소 명명되는 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팔굉일우, 즉 만천하인이 모두 한민족으로서 원만하게 지낸 것은 유사 이래 한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있다고 하면 유사 이전, 즉 신대(神代)에서는 있었다고 하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의 증거로서는 우리나라의 신화체계도 지나(支那), 서양의 그것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태고에서의 천지개벽설은 서양, 동양을 통틀어 별로 다르다고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천지개벽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우리 인류는 가장 최초로는 한 사람의 몸에서 나뉘어져 온 것이라고 하는 점에 도달합니다. 제가 일본의 신도로부터 진짜 선조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선 우리 조선의 선조 및 지금의 지나의 선조, 그 진짜 선조를 모두 일본에 내장해 두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먼 옛날 것은 글썽 어떻게 모르겠지만 조선의 지금의 역사로써 존중되는 삼국유사(三國遺事), 혹은 동국통감(東國通鑑)과 같은 서적은 ‘내지’ 쪽에 남겨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없는 듯한 것이 일본 ‘내지’에 내장해 두었습니다. 그 문화물은 조선의 선조가 정성을 다하여 연구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몇 백대 몇 천대 할아버지 할머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일본이란 나라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지나, 인도문화의 정수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작년에 참궁단(參宮團)에 가담해서 느낀 것입니다만, 나라(奈良), 교토(京都) 부근에 가서 대불전이라든가 33간당(間堂)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곳을 돌아, 실제로 불교라는 것이 일본에서 멋지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교가 일본에서 이만큼 발전하였다고 하는 것은, 석가(釋迦)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보다 많이 숭배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학(漢學)에서도 정말로 한학을 연구하려고 하는 자는 ‘내지’에 가지, 지나에 가는 바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바른 우리들의 선조는 일본에 와 있는 것을 통절하게 느낍니다. 고려조 시대에 일본에 가서 무사시노(武藏野)<sup>94)</sup>를 개척한 복신(福神)이라 불리운 사람

93) 일본신화의 천상계(天上界).

94) 도쿄도(東京都) 중서부에서 사이타마현(埼玉縣) 남부에 걸친다. 예전에는 잡목림이 무성한 들판이었다.

은 신처럼 숭배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조선인 중에서도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현해탄이라도 돌진해 가는 듯한 사람은 '내지'에 가서, 거기서 훌륭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변 따위에서도 공자나 맹자나 노자는 훌륭하게 되살아나 있고, 일본의 편이 되어 충실한 일본신민이 되어 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 진짜 선조라는 것을 '내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그런 대포용미화력을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만, 여기까지 오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내선일체를 외치고 있는 이상, 이 원천은 사력을 다해서 발견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제 견해를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면 일본 신의 특별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신은, 태고 이후 일본을 만들어 지금까지 키워온 열조열종(烈祖烈宗)입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선조를 모실 때 혈통적인 선조보다도 정신적 선조를 더더욱 중시해 왔습니다. 이 증거로는 오늘 전국의 신사 제신(祭神) 중에 배외국(背外國)이었던 조선 분들도 있는가 하면 지나인도 모셔져 조금의 부자유도 없었던 것이 일본인이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신이 되기 위한 진정한 인간으로서 몇 천대 몇 만대 후세의 자자손손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 힘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신이 되어 신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서양에도 신은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 위에 앉는 신으로 막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신은 분명합니다. 노기대장(乃木大將)<sup>95</sup>은 무인(武人)으로서 훌륭합니다.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正成)<sup>96</sup>,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實)<sup>97</sup>는 충신으로서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sup>98</sup>는 국학자로서 폐하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것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일이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일본인은 신에 대한 관념이 분명하고, 그것이 모두 자신들의 혼화되어, 선조의 유덕(遺德)을 자신들의 손으로 재차 발휘하는, 그것이 일본의 강점으로써 느껴지는 바입니다. 이세(伊勢)신궁에 참배해도 길이 넘칠 정도로 참예인(參詣人)이 있고, 신전에 넘죽 옆드려 있는 저 국민의 모습을 볼 때에, 실제로 일본의 강점은 전선에 있는 제일선 장병은 물론입니다만, 저는 저 국가의 아주 옛날부터의 진정한 수호신이셨던 천조대신 앞에 넘죽 옆드려 있는 국민의 모습, 저것이야말로 전 세계에 비할 데 없는 힘이 원천을 갖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전 세계의 진짜 선조 나라는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점입니다. 저는 이 점을 전조선 청년 제군이 발견해내어 서로 깨달아 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오쿠야마 김한경(金漢卿) 씨나 요시무라(芳村) 씨 등 상당히 조선 문학이나 사상 방면에 관계있는 분이 계십니다만, 조선 청년은 무척 문학이나 예술에 취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만, 그러한 방면에서 청년지도라고 하는 듯한 것을 할 필요가 많이 있고, 또한 그러한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뭔가 문학관계자로 청년 교양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쓴 작품이 있습니까?

95)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로 청일전쟁 때는 여단장으로 출전하였고, 이어 육군중장이 되어 대만총독을 역임, 러일전쟁 때 대장으로 승진.

96) 가마쿠라(鎌倉) 시대 말기부터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걸친 가와우치(河内)의 무장.

97) 문학과 학문의 신으로 불려지고 있음.

98) 에도시대의 국학자.

요시무라 특별히 청년을 지도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은 이렇다 할 정도의 것은 없습니까?

아마노(天野) 옛날의 최남선(崔南善) 씨는 소년문학과 같은 것을 냈습니다만, 그런 것도 역사적으로 보아 청년을 지도했다고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무라 그건 그러네요.

아마노 지금은 특별히 없는 것 같군요.

요시무라 옛날 소위 민족적 색채를 띤 것은 있습니다만.

오쿠야마 그리고 청년과 노인 사상의 충돌, 신구사상의 충돌이라고 하는 듯한 것을 취급한 것은 있지 않을까요?

요시무라 그런 것이라면 많이 있습니다. 조선 작품의 대부분이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겁니다. 이광수(李光洙) 씨 작품의 대부분이 그렇죠.

오쿠야마 현재 조선 청년이 가장 추구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아마노씨 뭔가 한 말씀……

아마노 그것은 입장에 따라서 청년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지 하는 것은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 우에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상을 추구할 수 없는 듯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쿠야마 이상을 갖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에다 씨의 말씀입니다만, 그렇다면 어떤 이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군요.

아마노 요전에 어떤 잡지에, 조선의 청년은 일본정신, 그러한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쓰여 있었지만, 저는 과연 모두 그와 같은 기분으로 있을까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15년 전이었다면,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민주주의적 혹은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을 버린 대신에, 그것을 대신할만한 것의 새로운 국민적 이상을 완수하며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까, 만일 무척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선의 사회 혹은 조선에서의 '내선'의 사회에 가장 활기가 왕성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국민적인 이상의 요구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원병 지망자가 10만 인이나 돌파했다고 하는 것으로 잡지 등에서 기념호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가리켜 즉시 새로운 국민운동이 열렬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김한경 씨, 요시무라 씨도 계셔서 좀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상보국운동이 발전하고 있어도 과거에 있어서의 사상운동의 그것과 같은 활기를 띠고 있지 않은, 옛날 청년과 같은 힘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사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순수하게 일본정신을 파악하고 있는 신인도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이 □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낡은 시대의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스무 살 전후의 진정한 청년이 더욱 더 힘세게 운동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라는 듯한 고민이 없는 만큼, 지금의 전체주의적인 흐름, 국민주의적인 흐름에 순수한 기분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전향한 청장년층에 있어서는, 옛날의 여러 가지 것을 완전히 청산했지만, 역시 급격하게 변화한 새로운 시대에 따라가기에는 마음의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

는 것과 그리고 순수한 새로운 시대의 청년, 중등학교의 3년, 4년 이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점에는 다소의 거리가 있습니다. 한편은 매우 급진적이고 다른 한편은 매우 점진적이란 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구시대의 청년이든, 신시대의 청년이든 목표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이라고 하면 한 민족이어도 완전한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완전한 일본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듯한 각오는 구시대의 청년이든 새로운 시대의 청년이든 완전히 일치해 있습니다. 단지 열의가 다소 달라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새로운 청년을 인정하고 그를 힘차게 응원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쿠야마 현재 청년들에게는 추구하는 바가 많고, 각각 이상도 가지고 있을 테지만, 이를 인도하여 만족을 부여해 줄, 또한 진정으로 청년에게 동정을 갖고 청년의 기분을 헤아려 지도해 갈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무척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군요. 이동치호(伊東致昊)<sup>99)</sup> 씨 등은 여러 청년 지도를 하셔서, 청년의 아버지라고까지 일컬어지고 경모(敬慕) 대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더욱 더 그와 같은 청년 지도의 지위에 설 사람이 많이 나와 주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독부에서는 여러 청년 교양을 위해 시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단이라든가 청년훈련소 내지는 지원병훈련소 등 넓은 의미에서 그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청 방면뿐만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소위 인간으로서 청년을 인도해 갈, 또는 인도할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갑자기 나오라고 해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기대하는 곳은 역시 총독부의 시설입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최근에 시작된 것이고, 이상에 달하기에는 먼 것입니다. '내지'에서는 청년지도에는 옛날부터 상당히 힘써오고 있고,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리(森)씨는 최근 문무성에서 오셔서 종래 사회 교육관으로서 크게 청년지도에 종사하신 것으로 삼가 듣고 있으므로, '내지'에서 바라본 이쪽의 청년 혹은 이쪽에 오셔서 느끼신 점, 또는 금후 어떤 식으로 조선 청년을 지도해 가려고 하고 계신가 하는 포부 한 말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반도청년에게 기대한다

모리 아무래도 그런 질문을 받지 않을까 하고 주춤하고 있었던 바이고, 어제 조신 신궁에 참배하고 남산 길을 산보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확실히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겨우 이쪽으로 와서 4개월이 막 지났고, 아직 직접 조선 청년에게 부딪쳐 얘기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조선 청년에 관해 얘기할 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다음달에는 수원에서 조선청년단 간부 제군과 만나서 강습회를 행하고, 5일간 저도 머무르면서 그 기회에 많이 얘기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접 청년과는 얘기하지 못하고, 단지 관청의 백악의 전당을 통해 바라보았을 뿐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단지 막연하게 감상과 같은 것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몹시 개인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중학이 오이타현(大分縣)의 시골중학이어서, 그 중학에 전라남도의 장성군(長城郡)의 남성인데, 목포의 소학교를 나와서 입학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어떠한 형편인지 이상하게 의기투합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친해져

99) 윤치호(尹致昊)의 창씨명.



서 하숙을 함께 하여 같이 생활하고, 친구 이상의 친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친교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의 자식이 중학에 가 있어서 부자 2대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통해 저는 반도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와서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조선인과 비교하며 그다지 실망하거나 기뻐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를 통해 조선 사람을 중학 1학년 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도 역시 같은 친숙을 느끼므로, 타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드러내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러 사람에게 관청의 젊은 사람을 향해서도 드러내고 말하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은가 하고 듣지만, 저로서는 그만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든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제 친구 및 자식을 보고 느끼는 것, 이쪽에 와서 동시에 느끼는 것 중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쪽 청년은 '내지' 청년과 비해 희망을 갖는 것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가는 것인가와 같은 점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것은 일부러 이조 500년의 치정(治政)을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 한일합방 후의 총독 치하의 조선 정치를 끄집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전의 삼국, 고려, 신라, 백제의 역사 등을 새삼스럽게 꺼내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토지에 생을 향수한 것에 대한 역사적 제약으로부터 오고 있는 민족성, 표현이 좀 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경우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확실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 또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회조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그 제약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 이러한 계획으로 가자고 하는 듯한 것이 좀 더 있어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력이 없습니다. 정치생활, 사회생활에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는 무엇인가 갖고 있다, 뭔가 확고한 하나의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청년이 적습니다. '내지'의 청년단에 다년 관계해 와서 청년단의 중견간부의 청년 등과 얘기하며 항상 이런 청년이 들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완전 농촌에 있어서 청년단을 위해 일하고, 더욱이 산업조합을 위해서도 일하고, 국민적으로도 또한 우리 집의 농업을 위해서도 농업의 개선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는 사람과 부딪칩니다. 이런 인물이 들판에 있다, 고등전문학교 학생, 혹은 대학 학생만을 사회인은 훌륭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은 청년단원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사회교육 분야 속의 청년단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청년을 꼭 잡아 두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에 와서 아직 그런 청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고등학교 혹은 대학 예과 학생 등이 아니라, 일반 실무청년 속의 그런 청년에 부딪치고 싶습니다. 저는 조선총독부에 직무를 맡들어 오쿠야마 씨의 뒤를 미력하나마 인수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내지'에서와 같이 학교교육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청년 중에 희망에 타올라 이상을 가지고 진정으로 힘이 넘쳐 있는 청년, 그런 생활태도를 취해 가는 청년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 총독부의 청년교육으로서도, 꼭 그런 방면으로 주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반도청년을 어떻게 지도해야할까

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청년제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잘못된 경

향의 청년운동을 이미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늘도 다소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청년문제는 동양에서도 매우 중요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의 한학의 지식 등에 나타나 있는 점을 찾아봐도, 8세부터 15세, 15세부터 20세라는 식으로 30살까지의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가르치는 문제는 결국은 진정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육경(六經)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인간이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신이 사람의 자식이라면 효(孝), 사람의 하인이 되었다면 충의(忠義)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육경은 그 사이의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점점 잘못되기 시작하여, 인지(人智)가 더욱 경박한 방향으로 흘러 옛날 교육의 본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아이는 노인에 대해서 공경해야 한다는 것에만 청년을 구속해 버렸습니다. 조선의 청년도 그런 식으로 지금으로부터 600년전 이래 하나의 형태 속에 끼워져 왔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백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00년 이전까지는 다소는 충군애국(忠君愛國) 기풍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옛 학문의 바람은 쇠퇴되고, 특히 청(淸)·명(明) 시대의 학풍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백과사전 식의 출소근거(出所根據)를 □ 것만 따라 버렸습니다. 진정한 국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인간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점에 대해서는 거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세가 되어 서양의 물질문명에 점점 질질 끌려가기 시작해서 조선도 그 영향을 받았습시다만 그 때가 되어 낡은 것은 버리고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옛 선조 전래의 옛 교육의 규범을 전부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써 파괴하였는가 하면 자유주의입니다. 그것으로써 모든 도덕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전선(全鮮)의 청년에게 자유주의 의식이 왕성하여, 그것이 조금 지나서 공산주의가 되고, 계급을 완전히 부정해버렸습니다.

올바른 사회적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그 후에 무엇을 건설했는가 하면, 건설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나쁜 티가 오늘날까지도 아직 청년층에는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지만, 그것에 따라 조선에서 시행되고 혹은 '내지'에서 오늘날까지 해온 교육을 보더라도, 이것 또한 그와 같은 폐해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아도 그렇고, 대학을 졸업해도 거의 인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듯한 것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약품에 어떤 약품을 화합시키면 무엇이 생기는지, 이러한 기계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 듯한 것만 가르치고, 일가일국(一家一國)을 어떻게 할지,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장래 청년에게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면, 우선 역사적으로 그러한 결함이 있으므로 그것을 보충하는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을 우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 어쨌든 동양정신을 중심으로서 환언하면, 일본정신을 중심으로서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방면, 기계적인 방면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를 움직이고 여러 가지 것을 발명한다고 하는 듯한 구체적 방면, 이것은 학교 교육이 그렇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해 가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메이지시대에 있어서 화혼양재(和魂洋才)<sup>100</sup>와 같은 말이 왕성하게 일컬어지고 있었습시다만, 그 당

시의 화혼양재는 야마토 혼에 서양의 물질문명을 단지 흡수하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해석됩니다만, 오늘날의 화혼양재는 그것과 달리 서양문명을 재차 편성합니다. 재조직합니다. 혹은 기계적인 그러한 지식을 점점 서양적인 것을 도입하여, 좀 더 다른 형태로서 독특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방면이 합치해 가면 청년으로서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은 이제 청년이 아니라 장년도 지나 실로 노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웃음소리) 지금 강하게 느끼는 것은, 자신의 일생애에서 가장 큰 것은 청년시절이었습니다. 그 청년시절에 커다란 잘못을 일으킨 그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결국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밝지 않으면 안 될 길을 따로 두고 헛되이 공상적인 이상을 그리거나 혹은 과학적인 것만 치중하게 된 결과, 그런 커다란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지는 바입니다. 순동양적인 견지에서 생각을 넓히고, 입장을 높이 하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문제로써 청년운동의 강습을 하는 듯한 경우에 기본적인 지도방침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 현재의 지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 한 개인의 경험으로써 이 정도의 것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년에게는 복종의 미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내지'의 청년과 조선의 청년을 비교해볼 때, 전체적인 국민적 조직 속으로 통제해 가는 경우에, '내지'의 청년은 다소 역사적으로 보아 40, 50년간 자유주의 교육을 받은 견지에서 다소 복종의 미덕이 희박해진 경향도 있지만, 조선 청년에게는 더 한층 복종의 미덕이 없습니다. 그러한 점이 꽤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좀 더 규율로써 훌륭한 사람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미덕이 있어도 좋다, 그것이 없으면 청년운동을 아무리 해도 심복(心腹)해서 하나가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옛날 것이라고 해서 전부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붕괴해 간 중에서도 우리들이 취해야 할 것이 있으면 이것을 거둬들여 거기에 새로운 힘을 부여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선의 장래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조선의 장래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내선일체라는 것을 항상 듣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장래와 청년의 장래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저는 반도청년은 자신이 현실적 입장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고, 자신의 역사를 알고, 자신의 입장을 알고 그와 같은 것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나서야말로 비로소 내선일체가 옳다, 이것이 진리다, 그것 이외에 절여가야 할 길이 없다고 하는 듯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되면 내선일체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선인 학생의 현상

오쿠야마 정인섭(鄭寅燮) 씨는 연희(延禧)전문학교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때때로 문제도 일으킨 학교입니다만, 최근에는 매우 경향이 바뀐 듯이 보여지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시국 이후 학생이든 선생님들의 사상 상이든 혹은 일본에 대한 견해라고 하는 듯한 것에 관해 어떠한 경

100) 일본인으로서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서양의 학문·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항에 있습니다만, 느끼신 점을 말씀해주십시오.

정 여기에 학교 선생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편의상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특별히 학교 내용이라는 조건 하에 말씀드리는 것은 괴롭습니다. (웃음소리)

학교 입장을 떠나서라면 얘기할 것은 있습니다만……

오쿠야마 그걸로 좋습니다.

정 지금 여기서 논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식은 부모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민은 국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일반의 인간적 문제보다도 시국적인 문제가 역시 중심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제로서 또 하나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는 것도 크게 필요할 테지만, 청년문제는 역사보다도 현실 문제가 보다 중심문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과거가 어땠으니까 지금도 어떡하다 라는 식은 참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청년 스스로에게로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세 전후의 사람에게는 역사적인 것은 제2, 제3의 문제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재의 문제, 시국적인 의미 그러한 것이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조선의 청년이 이상이 없다, 혹은 용기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이상을 추구하는 열성에는 놀랄만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 실현 수단의 문제에는 많이 결여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만, 올바른 방법을 생각해주면 결코 조선의 청년은 내버릴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현실사회의 방식과 자신과의 갭, 시대에 대한 고민,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조선 학생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시대를 뒤집는 듯한 열렬하고 혁혁한 희망은, 공통된 시대적인 사상, 그러한 것은 아직 확연하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희미하지만 동아, 아세아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소수의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만이라고 하는 청년단체와 함께 얘기하고 함께 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뭔가를 물어도 진정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어서 유명한 조선의 청년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누구누구라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이미 시대는 그러한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청년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론 방면에서도, 역지나 역설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청년은 영리하고, 그런 것에는 표면은 심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은 지방색에 매우 미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을 갑자기 그만 둔다고 하는 것이 되면 청년의 기분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내지'에 10년 이상 있었습디만, '내지'에는 얼마든지 그런 예는 있습니다. 다른 지방의 자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가고시마(鹿兒島) 사투리라든가 류큐(琉球)<sup>101)</sup> 풍속, 혹은 홋카이도(北海道)의 기질 등이 있어도 국가로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까지 지방색은 허용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갑자기 없앴에 따라 감정을 해치는 듯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방면을 후벼내는 것은 좋은 수단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에 해당하고 있는 자도 그렇게

---

101) 오키나와(沖繩)의 옛 이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청년에게는 좋은 사회적 지위를 줄줄이 부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각한 청년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학생은 설사 그것이 좋은 의미의 회합이라도 뭔가 원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지도에 대한 출판물입니다만, 당연한 이름의 것이 있거나 하면, 아 그건가 하는 식으로 읽지 않아도 결론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을 이론적으로 이끄는 데에는 더욱 전문적인 확실한 이론 체계를 가진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목도 「우리들의 청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것이라도 하면 청년은 읽습니다. 최초의 문구에서 진정으로 청년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듯한 말로써 쓰여진, 읽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듯한 양서(良書)를 출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방면에서 생각하여 진정으로 좋은 책만 있으면 학생은 빨라서, 읽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은 흥미가 있으면 읽는 것이어서, 그 점은 스토리 식이라도 좋습니다. 혹은 순전한 읽을거리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주 학생에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남과 교제할 경우에는 개성을 모르면 안 된다, 개성을 모르고 교제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사이가 좋았던 자가 절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시국의 성격을 이해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성격은 무리해서라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밤에도 안 자고 읽을만한 시국적인 양서, 세계적인 명저를 읽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 조선 청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망설이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훌륭한 책을 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쿠야마 대단히 참고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말씀의 위정자(爲政者)와 일반민중, 특히 청년층 등과의 조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점은 우리들도 동감이어서—이 점은 크게 당국의 반성을 구하고 싶은 점입니다만, 또한 지금 말씀 중에 내선일체의 문제에 관해서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듯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총독정치의 근본방침으로써, 내선일체, 차별철폐가 문제 삼아지고 있고, 이것은 지금의 미나미 총독뿐만 아니라 총독정치가 시작된 이래의 이상이자, 방침이고, 그것을 향해서 착실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 문제는 그렇게 급하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점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역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상, 방침이 거기에 있는 이상 머지않아 도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초조해하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그 점도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나아가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말씀으로 조선 청년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고, 말씀과 같이 현재의 청년은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를 갖고 있는, 소위 진통기에 있는 것이고, 이런 고민, 번민이 있어야 비로소 거기에 진보도 생기고, 길도 발견되고, 건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책무는 좋은 산파(産婆)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진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없애고 빨리 출산을 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여기에 드린 화제를 일괄하여 아무쪼록 어느 분이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싶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말씀 중에도 결론에 접한 얘기는 상당히 있었고, 일부러 결론을 짓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 화제의 범위에서의 결론적인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지식청년의 반성이라고 하는 듯한 것도 우리들은 오늘날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날의 청년은 쓸데없이 창백한 얼굴을 하고 비평비난에만 몰두하는, 혹은 쓸데없이 불평을 푸념하는 듯한 점이 상당히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분인가 여기에 설정된 화제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20분이나 30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임의 끝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노베하라(延原)씨 뭔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시오.

## 지식청년의 반성

노베하라 올해 학창(學窓)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디만, 학생시절부터 청년들에 관해, 자신이 그 와중에 있는 자이므로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도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 여러 병적 현상, 그 병리를 생리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여, 결국 조선의 인텔리계급의 병리에는 두 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일반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희미하지만 공통된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저는 일반적으로 비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물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른 것을 말해도 바른 이론을 가지고 가도 처음부터 거절하는 소화불량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학생은 두꺼운 책을 보지 않고 알팍한 책으로 참습니다. 옛날에는 마르크스주의 같은 것이 유행했을 때는 방대한 원서를 하나 하나 독일어나 러시아어를 사전을 뒤져가며 읽었던 것인데, 최근의 학생은 작은 팜플렛 정도로 만족합니다. 갑자기 그러한 경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물을 알기 위해 추궁하지 않고 표면만 씹고 참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단호한 처치가 필요하고, 이런 소화불량에 대해서는 그 찌꺼기를 정리하여 새로운 일본정신, 전체주의적인 것을 주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도청년의 고민이라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전 세계의 모든 청년의 고민으로서 향수에 걸려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공 위에 타는 듯한 불안, 무력이라든가 퇴영(退嬰)이라든가 소극적인 것은 모두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뭔가 찾고는 있지만 발견되지 않아서 최근의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문학의 제재로서도 로맨틱한 것이라든가, 막연한 인간생활, 사생활, 혹은 가끔은 지식계급의 창백한 얼굴을 하고 하루 종일 찾집을 방황하고 있는 듯한 소극적인 방면만 나타나고, 확고한 목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선의 청년에게 그러한 것이 심하다, 그런 방면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향수의 종류는 어떠한 종류인가 하면, 조선의 역사 그 밖의 것에서 조명해 보아 조선에는 확고한 권위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을 모두 팽배하게 신질서 건설을 지향하고 있을 때에 조선은 무엇을 마음의 중심으로 할까? 조선에는 뭔가 종교적으로 파고들어 가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샤머니즘이라는 형태의 미신 같은 것이 있을 뿐이고, 독특한 종교라고 하는 듯한 것은 없습니다. 혹은 주권자로 쳐도, 위만(衛滿), 신라(新羅), 고려(高麗) 등 주권자는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옛 대륙방면에서 온 자이고, 조선에서 나온 자가 아닙니다. 단군의 전설에는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箕子)<sup>102</sup>는 분명히 지나, 주권자를 이민족으로부터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권자는 바뀌어도 그것에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적다, 국가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늘 바뀌는 주권자에게 마음을 끌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마음을 끌어당기려 하

102) 중국 은(殷)의 주왕(紂王)의 숙부.

여 형식적인 가족생활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변전(變轉)무상한 사회 국가에 처해 가는 방편으로서 일종의 변함없는 가족적 형식적인 가문이라고 하는 듯한 것에 자신의 생활의 표준을 두려고 하는 제이 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가족제도 그 자체의 근거는 박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지식계급이란 자는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혹은 마르크스주의에 치우치거나 때로는 기독교에 치중하거나 해서 이상 추구적인 생활을 하는 듯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인텔리계급은 뭔가 주권자를 추종하려고 하지만, 추종할만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주권자를 새로운 신을 추종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확고한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까이 있습니다. 일본의 소위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쪽에서 자진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자를 추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에서부터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자로서 우리들에게는 일본 '천황'이 계시는 것입니다. 일본 '천황'은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나아가서 종교적인 기독교, 석가와 같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들은 향수병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주장입니다. '천황'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위자로 추종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여러 싸움이 일어나지만, 일본에서는 다카마노하라(高天原)는 아무리 몽상적으로 생각한 경우라도 정치적인 사회구성이 아닙니다. 명백히 종교적인 미래관념입니다. 거기서부터 일본국체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사회구성 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천황'은 종교적 권위자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들은 신민으로서 복종하고, '천황'을 신앙함에 따라 그대로 우주의 절대자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선의 지식계급에는 뭔가 모를 불안이 있다고 하는 점. 이것은 이론에 대한 요구입니다. 세상을 모두 '황도실천'이라고 하지만 어쩐지 감정적입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 젊은 사람은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확고부동, 세계를 향해서 결코 부추겨지는 경우가 없는 이론체계가 필요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작은 팜플렛으로 참چه 됩니다. 자주 '내선일체로 이론 없이' 라든가 '일본국체에 이론 없이' 라는 식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론이 없는 실천은 무력하고 영속(永續)하지 않습니다. 국가 백년의 장계(長計)가 안 됩니다. 실천 배경에는 이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론으로는 마르크스주의로 치중하는 듯한 폐해가 있습니다. 조선 청년을 향해 일본 '천황', 일본의 신을 신앙하고 앙모(仰慕)하라.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왜 국체를 존숭(尊崇)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일본이 신을 향해서 신앙을 받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론을 청년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 털어놓고 말해서 일본주의, 내선일체를 말하는 분들은 소위 정열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고, 저도 그 필요를 크게 느낍니다만, 단지 소극적으로 이거 안돼, 저거 안돼 라고 해도 도저히 얘기가 안 됩니다. 적극적인 면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확실한 이론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은 만일 소가 걷는 것 같이 걸어도 젊기 때문에 지식욕은 왕성합니다. 예의 히틀러의 20세기 신화가 문화실천을 위한 신화라고 하는 것도 됩니다만, 그 신화가 또한 독일 청년의 마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 척척 연구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선에서는 장유(長幼)의 구별이 준엄하고 청소년이 바보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40대, 50대의 사람을 향해서 그러한 이론을 건설하라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방면에서는 당장 오히려 청년 지도력의 충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제도도 필요합니다만, 형식적인 장유의 구별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년이 이론을 노인에게 강요해도 상관없습니다. 독일에서 교환학생이 왔습니다만, 한 명은 젊은 학생, 다른 두 명은 대학인가 어딘가의 강사였다고 합니다만, 지식의 점에서는 학생이 밑입니다만, 다른 점에서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젊은 사람은 오히려 건설적입니다. 젊은 사람을 한 명 활용하면 노인을 열 명 이용하는 것보다도 좋습니다. 노인의 불평은 뒤에서 소곤소곤 할뿐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됩니다. 젊은 사람의 힘은 때로는 사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의 힘을 잠재시키지 말고 젊은이를 머리에 세우고 노인이 밑에 있는 듯한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이번의 구주대전에서도 젊은이가 두세 명 참모 본부 들어가면 다음날 무엇이 일어난다고 하는 듯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옛 조선의 여러 가지 전통, 이는 물론 보존해야 할 것도 있을 테지만, 대담하게 버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선의 가정은 개인주의적이어서, 같은 집 안에 있어도 부부 부모와 자식은 따로, 정말로 형식적이고, 그 형식 속에 숨어서 진정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젊은이가 불평시하는 점입니다. 반도청년의 이상은 ‘내지인’의 신부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조선 사회는 안과 밖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여자는 따로 거실을 만들고 남자는 따로 생활합니다. 밖에서 손님이 와도 여자 쪽 손님은 여자, 남자 쪽에 오는 손님은 남자 쪽만의 손님으로서 취급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서도 서로 경어를 사용합니다. 남 앞에 나와서도 자신의 부모에게 경어를 사용합니다. 자주 ‘내지인’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가족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내지인’은 일체관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모, 처자는 일체(一體)이므로 같은 어조로 말합니다. 조선의 소위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내지인’은 어떤지 예의를 모르는, 팬티 한 장으로 집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같은 가정 내에서 일부러 울타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조선에서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조선인 지식계급의 결여로써, 명철보신(明哲保身)<sup>103)</sup>, 돌변입니다. 시대의 추세가 향하여 가는 대로 따라 갑니다. 대학 선생이라도 조선 사람에게는 어떤지 확고한 것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다, 어제는 저랬는데 오늘은 이렇하다 라고 하는 듯한 점이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사회에 일관된 주권자가 없었습니다. 반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로 삼한사온이라는 춥고 따뜻하다고 하는 변덕스런 기후가 조선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기후를 지장 받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선일체 등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도, 이 운동이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도의 지식계급은 많이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선일체를 확신으로써 행하는 것이 아니면 스스로 조만간에 변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피를 토하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죽음도 불사하는 정신으로 내선일체, 일본주의로 움직여 주었으면 합니다. 조선의 인텔리의 무의식 세계에 민족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학생으로 화제가 되어 있는 자는 역시 조선민족을 말합니다. 더구나 민족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없이 민족을 운운합니다. 그런 것도 추궁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103) 시류에 거역하지 않고 도리를 좇아 일을 처리하여 일신을 안전하게 보존한다는 의미.



자가 많습니다. 이런 불철저한 태도나 세계관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스스로 몸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진해 주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민족을 운운해도 아무런 확고한 신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를 민족적 의식으로 영합해서,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지도 모르고, 새로운 세대의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세대의식이 보이는 바에 따라 시대는 변합니다만, 좀 작은 세대론을 행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시대의 상이한 세대의식을 심어가려고 하는 것은 본말전도(本末顛倒)입니다.

옛날에는 단순한 정치적인 의미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경제전, 사상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나사변, 구주전쟁은 주의의 상이,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상이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근위성명(近衛聲明)에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영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동아의 이상으로 하는 점을 함께 해 가고 싶다고. 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조선의 인텔리계급을 향해서는 가치 없는 공부를 그만두게 하고, 도움이 되는 이론, 실천에 필요한 이론을 추구하게 하고 싶습니다. 인간이라든가 휴머니즘이라든가는 일종의 위장된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은 이미 문예부흥시대부터 발견되었고 이 이상 발견될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을 추구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시시한 인간적인 사소한 구실보다도, 조선 청년으로 귀일(歸一)하는 표준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이론이 진정한 이론이고 언제까지고 해결이 없는 듯한 이론은 진정한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인 청년의 재출발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는 점은 관념론 같고 너무 실천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인간생활은 뭔가를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인간생활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여 주저하고 뒤돌아보며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만사 제쳐 두고라도 신사참배, 신도 신앙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 반도청년의 진로

오쿠야마 상당히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마노(天野) 씨는 수년 전에 『조선인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셔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만, 오늘의 좌담회의 결론으로서 조선 청년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도 할만한 것을 극히 간단하게 말씀드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노 조금 전에 정씨, 노베하라 씨도 말씀하셨듯이 내선일체, 혹은 일본주의라고 하는 듯한 문제에 대해서 이론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어서, 저도 연구소 같은 것을 수백 만 엔의 기초를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청년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게다가 이론이 없지 않은가 따위의 말을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짚어질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 그 문제는 되는 대로 두고 다른 곳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식청년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쿠야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마노 왜 스스로 그것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내선일체라면 내선일체에 대해서, 옛 청년이 사회사상에 대해서 침식을 잊고 연구한 것처럼 왜 스스로 연구하지 않을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한경 씨가 말씀하셨듯이 자신에게도 좀 더 충실해 주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움직임이 싫다면 그 반대쪽으로 가보면 되지 않는가, 반대쪽에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주제에 자신들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의 내선일체나 국체론은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국체 속의 한 사람이고 내선일체 속의 한 사람이다, 그 공동책임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바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막연한 휴머니즘, 인간성을 아무리 추구한들, 국가적인 일본민족적인 강세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 아무것도 초래하지 못합니다. 프랑스의 인텔리가 범한 실패를 반복하는데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청년은 조선민족으로서가 아니라 확실히 일본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구체적으로 더욱 더 파악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신은 일본인이지만 지금의 내선일체론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 새로운 이론이나 행동을 만들어 가도록 자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조선인이 완전한 일본인이 되어 동아의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 일만지(日滿支) 속의 일본 단위에 조선이 포함되고, 조선이 훌륭해져 전 세계를 지도한다고 할 때에 비로소 조선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각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청년이 아니면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자각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사람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곤란합니다. 앞으로의 순수한 청년, 과거의 불건전한 전통에 빠져있지 않은 청년에게 기대할 뿐입니다. 이전에는 반도인이 계타(下駄)<sup>104</sup>를 신고 있다고 반도인에게 경멸당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없어졌습니다. 순수한 청년은 고민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청년은 미완성의 내선일체를 유럽에 가지고 가서 자랑할 수 있을만한 멋진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선 이론보다도 실천입니다. 옛 이론을 희롱하는 듯한 기분이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반적인 결론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오쿠야마 단지 헛되이 비평, 비난뿐만이 아닌 이론도 의론(議論)도 필요합니다만, 그렇다면 어떻게 할지, 단 한 편의 이론이나 의론보다도 좀 더 건설적인 언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정시간이 대체로 경과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폐회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유익한 말씀을 들어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출전 : 鄭寅燮(延禧專門學敎 敎授) 金漢卿(全鮮思想報國聯盟 幹事) 朴英熙(芳村香道, 囑託) 玄永燮(天野道夫, 主事), 「青年問題座談會」, 『總動員』 제2권 9호, 1940년, 61~75쪽〉

104) 왜나막신.

### 3) 총독부 고등관 제씨가 전시하 조선민중에게 전하는 글 (계광순 한동석 이창근 김병욱 조재호)

시국이 익익(益益)증차대하여 관민일체로 차시간(此時艱)을 돌파키 위해서 이에 하의상달 상의하달의 제1착으로 총독부 고등관을 위시하여 경기도 산업부장 증추원 서기관 등 제씨(諸氏)의 전서(傳書)를 집재(集載)하여 총후민중에게 보내노라.

## 대동아공영권 건설과 조선민중

조선총독부 사회교육과장 계광순

### 1. 전시하의 조선민중의 생활태도

기자 - 전시하의 조선민중이 취할 생활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桂) 사회교육과장 - 근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력과 무력과의 투쟁만이 아니고 사상, 경제, 산업 등 모든 부분의 유기적 종합에 의한 총력전인 만치 여기엔 견고한 단결력과, 거기에 반(伴)하여 발생하는 통제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거국일치의 단결력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개선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즉, 재래(在來) 취해 오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포기하고 국가제일주의, 국방제일주의, 갱언(更言)하면 전체주의의 사상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사상에 침윤되었던 일부의 국민은 구속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데 그것은 통합해 가는 국민의 정신동원을 위해서나 또는 고도국방국가 건설을 위해서 불가피의 사실이요, 따라서 응당 그렇게 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우리는 종래의 그릇된 습관과 전통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의 재편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언하면, 구질서적인 생활의 반항과 함께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활에 적합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 스스로의 연구와 편달과 주의가 있어야 하며, 멋모르고 새로운 정책과 대책에 대해서 회의적 태도나 혹은 불만, 불평등을 토로한다는 것은 매우 슬퍼할 일입니다. 고로 민중은 당국의 권위에 신뢰하고 순응하여 자기의 직역(職域)봉공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계급에 있는 우리 관공리, 기타 인사가 이러한 풍조를 기회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한다든가 혹은 관민이 일체가 되어 협력하여야 할 미풍을 무시하고 민중을 억압한다든가 멸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민중이 시국을 인식 못하는 이상의 최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민은 서로 신뢰하고 자성하여 시국타개에 노력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라 믿는 바이며, 이 시국하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을 명랑하게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 2. 향토예술진흥과 농촌오락장려문제

기자 - 장기전일수록 민중으로 하여금 명랑한 생활을 가지도록 건전한 오락을 보급 진흥시켜야 할 것

이라 보는데, 이에 대해서 영화, 연극, 농촌오락(씨름, 추천(鞦韆), 줄다리기, 삼복놀이 기타)과, 향토 예술(탈춤, 가면무, 기타) 등의 진흥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 사회교육과장 - 인력이라는 것은 원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어서 긴장과 노력을 생활의 제1의 로 하는 것이니만치 자연히 피로를 위유(慰癒)할 무엇을 요구케 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일이라 볼 것입니다.

지나사변이 발발된지 어언간(於焉間) 5년. 금후 이 사변을 완전히 처리하고, 따라서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완벽을 기하자면 10년이나, 20년 안에 완수될 것이라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로 장기전에 대처할 제반각오와 노력을 요구케 되는데, 즉 생산확충, 총후봉사 또는 자기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근로에 열중해야 할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지만, 이러한 근로 뒤에는 반드시 생리적으로 피로라는 것이 따라오고, 이 피로를 위유(慰癒)하여 다시 충실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락은 결코 사치가 아니고 근로에 필수한 소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하일수록, 장기전일수록 그 필요를 절실히 감(感)하는 바입니다. 전시하의 독일과 이태리에서는 이 운동이 놀라울 정도로 진전되어가며, 이태리에서 “또보라뽀-로”라는,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동의 뒤”라는 것이 여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국만을 모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노동의 뒤”의 위무를 위해서 음악, 영화, 연극, 무용 등 예술부문을 위시해서 스포츠, 등산,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농촌오락으로 씨름, 추천(鞦韆), 줄다리기, 단오놀이, 삼복놀이 등을 더욱 진흥시켜서 근로민중으로 하여금 명랑성을 가지게 하고 보건까지 꾀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 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반드시 서양춤과 서양노래만 장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조선의 고유한 탈춤, 가면무, 승무 등 향토예술까지도 위축하지 말고 더욱 조장, 동원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향토예술진흥과 농촌오락의 보급은 국민총력연맹 문화부장도 역설한 모양인데, 그러나 그 진흥책에 있어서 구체적인 활동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 3. 전시하의 조선청년문제

기자 - 현시국하의 조선청년문제에 관해서 몇 말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의 생활상태를 어떻게 보시며, 금후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지도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 사회교육과장 - 어떠한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든지 청소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회와 국가에는 생기가 있고 융성해지지만 청소년의 위기(偉氣)와 활동이 조상(阻傷)된 국가는 자멸해가는 것은 한 개의 철칙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청소년계급의 활동이 약간 미미하지 않은가 생각될 때 공포감을 갖게까지 됩니다. 모름지기 청년은 새로운 이상과 정의를 위해선 일신의 행복(幸樂)이나 일가의 복리를 돌보지 않고 오직 눈물과 땀, 즉 감격성과 실천력으로 매진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라 믿는 바이나, 그와 반대로 활기를 잃고 침울한 분위기 아래에서 혼미(混迷)하는 일부의 청소년층을 볼 때엔 실로 통탄을 불금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손실이라 통감합니다. 애기엔 청소년의 반성을 촉(促)하는 바이며, 따라서 선배와, 지도계급, 기타 모든 인사는 청소년에게 광명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모든 시설개혁과 새로운 건설이 급선무라 봅니다.

물론 청소년 자체로서도 대국(大局)을 투시하여 자신의 수양과 실력양성에 부단의 노력을 거듭하는 동시에 황국신민으로서의 충실하고도 명량한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선청년단은 지난 정월중순에 전조선을 통하여 5, 6백만 명의 단원을 포용한 바, 금후의 조직활동을 계획 중이며 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황국신민적 성격의 연성
2. 내선일체생활의 순치(馴致)
3. 국방국가체제즉응(卽應)의 심신단련
4. 단체적 규율훈련의 철저
5. 생산력확충의 실천

이 5대 목표하에 금년 4월부터 청소년단은 분발하여 활약코저 하지만 역시 경비가 문제입니다. 500만 명의 복장을 준비하는 데만도 일인당에 최소한도로 5원을 예산한다고 하면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요구되며, 복장은 별문제로 하고 기타 훈련비용은 실로 막대한 것이어서 경비가 없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독일 히틀러·유겐트에서는 함부르크 등지의 실업가로부터 거대한 자금을 기부받아 금일과 같은 훌륭한 청소년단을 양성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그 실업가는 영국재벌에서 돈을 빌려다 썼다하니 결국 독일의 청소년단은 영국의 돈으로 양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 여담에서 불과하지만, 조선의 실업가나 재계인이나, 기타 유지(有志)의 인사는 모름지기 이러한 유의의한 사업에 물심양방면의 성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 4. 시국하의 조선부인문제

기자 - 시국하의 조선부인문제는 여하히 생각하십니까.

계 사회교육과장 - 조선의 현재와 장래는 역시 전시하이니 만치 궁핍한 상태를 면할 수 없다고 보면, 따라서 조선의 생명은 장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인(吾人)은 이 난국을 극복하고 및 이 현상을 타파하여서 광명있는 생활을 가지려면, 조선의 청소년(靑少幼年)들이 1일이라도 속히 황국신민으로의 모든 성격과 모든 조건을 구비하여 내선일체의 기치하에 용해해서 동양의 맹주로서의 일본제국신민의 행복을 향수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선의 장래를 등에 질 유년, 소년의 양육과 교육은 전혀 조선부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 성부(成否)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즉 조선의 부인은 반도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부인의 교양은 여하한가. 약간의 지식과 교양을 가졌다는 일부의 부인들은 가정 내의 만사를 완전히 처리치 못하고, 아직까지 뜬 기분으로 소위 사교적 생활에 도취되는 경향에 있는 것은 여하히 보아야 할까가 우리에게 당면한 한 과제라고 볼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정 교육이 없이 갑자기 해방된 여성들이 멋없이 떠돌아다니는 풍조를 볼 때, 이러한 여성들이 과연 조선의 장래를 걸머지고 가정 안에서 묵묵히 자녀 교육을 능히 해낼까가 한 문제며, 도리어 자녀의 장

래를 탁마(濁魔)시키는 현상에 있지 않나 생각할 때 실로 한심한 감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또 일반 사회에 있어서도 부인문제를 너무나 등한시하는 것은 남성 자체로서도 반성이 있지 않아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 상공업자의 활로와 저물가정책

조선총독부 상공과 사무관 조천동석(朝川東錫, 구명 한동석)

### 1. 상공업자의 금후의 활로

기자 - 상공업자의 금후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韓) 상공과사무관(商工課事務官) - 산업배분상으로 보면 상업과 공업에 있어서 상업은 공업보다 그 수도 많고 세력도 많습니다. 그러나 금후의 정세로 보아서는 상업본위에서 생산본위로 그 체제를 새로이 함이 국책적 견지로서나 혹은 상공업자 자체의 활로를 위해서 가장 유의의한 일이라고 봅니다. 즉 종래 남이 제조한 상품을 매매하던 상업정신에서 일보 갱진(更進)하여 자신이 상품을 제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업본위에서 생산본위로 신 발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료가 뒤따르는 큰 문제인데, 생산중점주의에 의해서 재료가 감소된다고 해도, 그리고 일반업자들은 재료배급의 원활을 볼 수 없지 않을까 해도, 생산에 대한 희망을 버릴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조선의 상공계를 살펴보면 왕왕 재료문제로 낙심하고 심지어 폐업하게까지 되지 않을까 미리부터 공포를 품는 업자도 없지 않은 모양이나 정부는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산중점주의를 취하는 것이며, 중점주의이란 생활필수품 이외의 것은 제조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치품등속의 상품제조가 적은 조선에서는 그 타격이 적다고 봅니다. 물론 내지에는 여러 가지 공업이 많아서, 그에 따라 생활필수품 이외의 사치품등속(奢侈品等屬) 제조업자도 상당히 많은 관계로 생활중점주의 밑에서 재료배급을 받지 못하는 그들은 전업이나 폐업을 각오해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되나, 조선에는 내지에 비하여 비교적 공업이 적고, 또 있다 해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거개(擧筈)가 생활필수품 제조업자이어서, 극히 소수의 사치품 제조업자의 폐업을 보는 외엔 희생자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생활필수품제조에 유의하여 노력한다면 재료도 확보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금후로는 철도관계, 기타 제 조건으로 내지상품이 전과 같이 조선 내로 많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생산력확충운동은 더욱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조선 내의 상공업자의 재반성(再反省)을 촉하는 바입니다.

### 2. 재료배급에 관한 대책

기자 - 중소기업자들이 무엇보다 재료배급을 받기가 극히 곤란한 형편에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상공과사무관 - 현재의 제정세로 보아 약소생산업자는 각각 독립해서 나아가기는 매우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기업의 합동문제가 대두케 됩니다. 이 기업합동운동은 중소기업자들이 재료배합을 받는데 있어서 구제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생산업자 개인개인으로써는 재료의 배급을 받기가 매우 곤란하지만, 5인이면 5인이, 10인이면 10인이 각각 합동해서 유한회사를 조직한다든가, 혹은 공업소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에 단체적 가입을 한다면 재료배급을 받기에 도무지 곤란이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재봉기계, 양말기계 같은 것도 1, 2대의 배급은 어려우나 조합이나 회사일 때는 배급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합동화가 무엇보다 약소생산업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의 하나일 것입니다.

### 3. 중소기업자의 구제책에 대하여

기자 - 중소기업자의 구제책에 대해서 선생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던 바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상공과사무관 - 시국하의 중소기업자의 곤란이란 매우 큰 문제의 하나로, 당국도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역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선 안에서는 법적 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상업조합, 공업조합, 혹은 상업소조합, 공업소조합을 조직하여서 그 조합에 중소기업자를 포용하는 외에는 별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업자 자신도 이윤추구만을 목적하지 말고 공익우선이라는 것을 상업의 슬로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4. 저물가정책에 대하여

기자 - 다음으로 저물가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상공과사무관 - 저물가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이 다 아는 일이니 긴 말을 피합니다마는, 저물가정책으로 인하여 생산력이 감소되지 않을까하고 일부의 염려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의 방침인 이 저물가정책은 견지될 것이며, 제 생각 같아서는 저물가정책으로 인해서 생산부진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째, 생산비의 감하(減下)와, 둘째로 경영방법의 합리화와, 셋째로 기술의 향상을 꾀하는데서, 저물가정책은 관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5. 전업문제에 대하여

기자 - 근자에 전업문제가 상공계에 매우 큰 파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상공과사무관 - 한 영업을 경영하다가, 더욱이 2대 3대째 계승되던 업을 폐지한다는 것은 업자 자신에게 있어서도 매우 안된 일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도 동정을 불금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지에 비하면 조선에는 전업하지 않아서는 안될 그러한 업을 가진 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전업문제는 조선안에서는 크게 문제시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이 내지에 비하여 생활필수품 이외의 사치품제조업자가 적은 관계로 그에 따라 전업자도 자연 적을 것이며, 현재

자기가 경영하는 업에 더욱 연구를 가하고, 개량할 점은 더욱 개량하여서 이미 가졌던 자기의 업을 그대로 지속하도록 노력함이 가장 타당한 일일 것이라 믿습니다.

## 생산확충운동과 조선의 지위

경기도 산업부장 평송창근(平松昌根, 구명 이창근)

### 1. 생산확충책에 대하여

기자 - 생산력확충, 특히 식량증산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李) 산업부장 - 시국이 더욱 긴박해 감에 따라 고도국방국가 건설에 반(伴)한 생산력확충운동이 무엇보다 긴급사(緊急事)의 하나로 고조되고 있는데, 이 생산력확충운동은 총력운동의 일익인 동시에 신도(臣道)실천의 일익(一翼)이라고도 볼 것입니다. 금번 중의원구락부(衆議院俱樂部)에서의 식량증산에 관한 예산요구에 의해서 '내지'는 부락단체 독농가(篤農家)와 농업기술원에 대한 보조금 등 3,000만 원을 새로이 예비금으로부터 지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 외지에는 어떻게 될는지 주목 되고 있던 바 지난 19일, 중의원 예산총회에서 추전척상(秋田拓相)은 외지도 내지와 같이 증산목적 달성에 매진할 작정이라 답변하였고, 따라서 그 예산도 대장성 당국의 양해를 얻었다는 답변이 있어서, 이에 조선의 16년도 예산에 포함될 미곡 680만 석의 증산계획에 가하여 다시금 새로운 증산계획이 수립될 것은 명백한 사실로, 목하(目下) 농림국에서도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입안을 연마하고 있으며, 내지와 같이 부락단체에 보조금을 교부치 않고 주로 토지개량 등 중점주의에 의해서 조선독자의 증산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증산에 있어서, 내지농촌에 비하면 조선은 같은 면적의 농토에서 절반 밖에 산출 못하는데, 이것은 기후와 농토가 나빠서 그러냐하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노력과 영농방법이 불량한 관계로 5할이라는 엄청난 결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농산물증산은 그 장래성이 많다고 보며, 그 구체적인 증산책의 몇 가지를 이야기하렵니다.

첫째, 심경문제(深耕問題)인데, 즉 땅을 깊이 밭 갈고 적당한 비료를 주어서 흙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토(耕土)에 있어서 내지와 비교해 보면 내지에서는 18센치나 깊이 파는데, 조선서는 10센치 내지 12센치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토가 깊지 못하고 열으면 양분을 잘 흡수치 못하며 양분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이 건실치 못하고 따라서 유실되는 것이 많으나 경토가 깊으면 온도를 높여서 잘 녹지 않는 양분까지를 흡수케 됩니다. 고로 경토의 심천(深淺) 여하에 의해서 수확의 대소가 좌우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적기문제인데, 즉 비료를 주는 시기와 이영(移映)하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를 각각 그 적당한 시기에 하지 않고, 늘 적기를 놓치기 때문에 감소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벼의 이영에 있어서도 6월 10일이 적기라고 하면 그 적기에서 10일간 늦어서 이영케 되면 수확에서 1할의 손실을 보게 되며, 20일이 지연되면 15할의 손실을 보고, 30일이 지연되면 3할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적기에 이영



못하게 되고 따라서 추수 못하게 되는 데는 손이 부족하다든가, 혹은 우마(牛馬)가 부족하다든가, 등등의 불가항력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의 예에 불과하고 대체에 있어서는, 지나치는 말 일지는 모르나 근로정신의 불비, 즉 농민의 태만에 있다고 봅니다. 일의 순서와 준비가 있으므로 그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은 불변의 원칙으로, 특히 개별적인 근로작업보다 공동작업이라는 것이 대단한 능률을 올린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지에서 현재 이동작업반, 즉 이 동리에서 저 동리에 가서 도와주고, 저 동리에서 이 동리에 와서 도와주는 이동작업과, 공동작업반, 즉 한 동리 안에서 내 것을 나만 하지 않고 동민이 모여서 공동으로 하는 공동작업반이 성행 하여 매우 좋은 성적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일의 능률도 배가되다시피 되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조선농촌에서도 근로정신을 가일층 진작시키는 반면에 유지하고 불충분한 시설 등에 연구와 노력을 가하여 능률발휘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농사개량문제인데, 이 농사개량에 있어서는 당국의 지도하에서 농사시험장의 적 극적연구를 신뢰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당국의 연구만을 바랄 것은 아니요 농민 자신도 협력연구하고 개량하여 농업진흥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품종을 개량하여 좋은 씨앗을 심을 일과, 우수한 종자를 선전적으로 분배할 일과, 파종과 이영할 때 균, 면, 읍 지도원의 지도를 받을 일과, 또한 좋은 방법에 의한 건조를 할 것과, 토지개량, 시비, 제초, 구제충, 호루마링소독 등, 모든 것에 과학적인 방법을 취함이 가장 산미증식에 있어서 불가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농구(農具)등에 대해서도 너무 보수적인 것만을 취하지 말고 효과적인 것을 연구하도록 힘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2. 지주 대 소작인 문제

기자 - 지주 대 소작인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발족이 있어야겠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산업부장 - 물론 산미증식에 있어서도 지주는 소작인보다 그 수입이 많으나,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말고 소작인을 권고(眷顧)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주와 소작인은 일체가 되어서, 지주는 소작인을 남으로만 생각하고 부러먹으려고 들던 그릇된 관념을 버리고, 소작인 역시 남의 일을 한다는 그러한 그릇된 관념을 피차 청산함으로써 일체가 되는 일은 농업계의 가장 빛나는 이상이고 따라서 미풍으로, 이 현상은 언제나 실현되어야 할 일이겠으나 오늘날과 같이 최고도의 비상난국에 처한 이때 지주와 소작인의 일체는 총력운동의 중요한 능력의 하나라고 봅니다.

## 3. 도시소비자층에 대하여

기자 - 일반상품과 물자에 있어서 도시의 소비자층에 권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습니까.

이 산업부장 - 전시화가 아니라 해도 물자를 아끼는 마음이 커야 할 텐데, 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시 전보다 더욱 낭비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실로 슬픈 일이라 않을 수 없습니다. 사치품도 전시 전보다 더 잘 팔리고, 다른 고급상품도 전시 전보다 더 잘 팔린다는 것은 민중이 아직 시국을 인식 못한 연고(緣故)라 봅니다. 이러한 그릇된 정신으로서는 국민총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업을 완

수하기가 난(難)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모름지기 시국을 철저히 인식하고 한 알의 쌀이라도 아끼는 정신과 함께 물자절약에 노력함이 있어야 할 것이외다. 신탄(薪炭)도 경성시내에서만 1년 간에 9,200만 관이 소모되는데 경기도내에서 산출되는 신탄은 5,300만 관에서 불과하여 타도에서 4,000만 관을 수입해야 하며, 목탄도 경성시내에서 1년간 100만 표를 사용하나 도내의 산출은 50만표에서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곡 역시 경성시내에서 1일간에 3,000석, 1개월간에 9만석, 1년간에는 100만 석이라는 거대한 소비를 보는데도 절약이나 혼식이 철저히 실행되지 못하는 것은 국민된 자격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더욱이 미곡에 있어서 왜 10일분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일매일 사가도록 불편하게 하느냐고 불평을 토로하는 분자도 있으나 경성시내의 1일간 소비가 3,000석인데 10일분을 타도에서 수입하자면 운반할 화차가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도시의 소비자층의 재반성(再反省)을 촉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영리주의에만 흐르지 말고 공익우선이라는 신경제윤리를 파악해 주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 고도국방국가 건설과 지원병

중추원 서기관 영전종수(永田種秀, 구명 김병욱)

### 1. 신도(臣道)실천과 조선민중

기자 - 일반민심에 대해서 그 취할 태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金) 서기관 - 고도국방국가의 완성을 목표로하고, 반도민중은 모름지기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도실천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현하 제정세가 더욱 긴박해 감에 따라 국민된 아등은 공고한 만민익찬체제 하에서 종래의 자유주의적이나 개인주의적이던 그릇된 이념을 포기하고, 전체주의 밑에서 공익우선, 감사봉공의 실로 거두는 동시에 국가를 위해 일역일 심 총력을 발휘함으로써 동양인의 동양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국을 철저히 인식치 못한 일부의 민중이 아직도 외국 의존사상을 버리지 못한다든가, 혹은 유언비어 등 어리석은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국민의 수치임에 오직 직역(職域)봉공에 충성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 2. 상무정신의 고취와 중류상류계급의 반성

기자 - 지원병제도는 금년도에 이르러 더욱 좋은 실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서기관 - 조선에 지원병제도가 실시케 된 것은 내선일체정신의 표현으로, 조선청년이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동시에 책무를 다하는 준귀한 명예라 할 것입니다. 즉 병역의 의무를 가지지 못하는 국민은 국민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찍이 병역의 의무를 가지지 못했던 반도청년에게 이 제도가 실시되어 금년도에 이르러서는 지원병지망자가 13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실로 경하를 불금하는 바이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 주는 것은 결국 조선민중이 이를 환영하는 바 시국인식의 반영이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자만자족하지만 말고, 이 제도의 확대강화에 가일층 노력하여 국 가다사(國家多事)의 추(秋)에 국가에 봉공함이 더욱 크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의 응모자를 보면 대개가 농촌청년에서 불과하고 도시청년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재산가의 자제와 관공리의 자제와 귀족층의 자제 속에서 지원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 원인을 추구해 보면 도시청년은 농촌청년보다 체질에 있어서 허약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내지의 증병조사의 실적과 동양(同樣)이어서 무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내일에는 조선민중이 황국신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최대 최고의 책무를 이행하려 할진대 그 수요가 단지 13만에 그칠 것도 아니요, 따라서 농촌청년에 한할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도시의 지식층, 특히 전문, 대학생 중에서 많이 나와야 할 것은 물론, 재산가의 자제와 관공리의 자제 및 귀족층의 자제 속에서도 심신이 다 건전한 지망자가 속출하여 국가한성(國家汗城)이 됨으로써 국민된 책무를 다하고 따라서 농촌 대 도시에 간격이 없이 농민계급이나 지식계급이나 귀족계급이나 모든 계급이 일일일심, 한탕어리가 되어서 고도국방국가 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에도 기왕부터 상무정신이 발달되어서 심지어 불가에서까지 임염무퇴(荏苒無退)라는 말과 같이 고대문명을 건설하였으나 세속이 나약해지고 문약에만 흘러 근세에 이르러선 상무정신이 퇴폐해지고, 군사사상이 박약해졌습니다마는, 지원병제도로 인하여 재연된 이 상무열로 인하여 국가에 대한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동시에, 이로써 현하 시국의 난관을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제일선의 장병과 충후국민은 함께 상무정신으로 연마하여서 군사사상을 보급하는 동시에 최고도의 국방국가 체제의 확립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 3. 시국하의 종교문제

기자 - 현시국하에 있어서 국가적 견지에서 본 종교의 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서기관 - 신도, 불교, 기독교 등 각 종파가 종래는 각각 자기 교리에 압축되어서 국가정신을 상실했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 시국 하의 대동단결을 보는 동시에 종교보국을 절규하며, 전시 하의 적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경하할 일로 앞으로 더욱 종교보국의 실을 거두기를 절망(切望)하는 바입니다. 특히 조선의 불교는 한 종지로써 운동을 착착 진행 중이요, 따라서 내선불교의 접근을 보게 되며, 기독교에 이르러서는 10여 년 전부터 자립재정은 부르짖었으나 교권을 자립시키지 못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웠던 일이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외국의존을 청산하고, 교권을 자립시키고 재정까지도 자담(自擔)하게 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진경(進境)이라 하겠으나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황도정신에 입각하여 구미적인 형식을 버리고 일본적인 기독교를 건설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학교제도와 학생문제

조선총독부 학무국 시학관 하산재호(夏山在浩, 구명 조재호)

### 1. 국민학교개설과 그 내용

기자 - 금춘 4월부터 전국의 관립, 공립의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편함에 있어서 그 개편하는 의의와 사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曹) 시학관 - 현재의 소학교를, 특히 관공립 소학교를 먼저 국민학교로 개편하게 되었는데, 그 목적은 현재 조선소학교의 교육과 같이 교육 전반에 공(巨)하여 황국의 도에 귀일시켜서 충량한 황국신민을 연성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교육의 전반에 걸쳐 황국의 도를 수련시키고, 특히 국체에 대한 신념을 견고히 하여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철저케 하며, 둘째로, 동아 및 세계대세를 밝혀 황국의 지위와 사명을 자각케 하여 완전한 국민을 연성하고 이로 인하여 국운의 융창을 위하는데 있습니다. 이 점에서 조선의 국민 학교는 1938년 4월부터 실시되어 그 실적을 드러내고 있는 교학쇄신(敎學刷新)의 연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금후의 일본제국의 사명은 “황국의 도”를 중외에 천명하고 실현함에 있는데 이 황국의 역사적 사명은 일관부동한 것으로서 소국민으로 하여금 그 사명과 책무를 파악케 하여 장래 대아세아의 지도국민으로서의 자질 양성에 노력함이 즉, 국민학교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상술한 사명을 달성기 위해서 국민으로서의 생활에 아무 관계도 없고, 인격의 힘이 되지 못하는 추상적 지식을 무리하게 집어 넣는 교육을 배제하고, 교육으로 하여금 국민생활을 기초로 한 구체적이며, 창조적이며, 실천적인 국민성의 양성에 노력할 것이며, 지식과 실행과의 합치를 도모하는 동시에 심신일체의 교육을 중시하고 이로 인하여 강건한 정신과 강장한 체력을 양성하는 것이 국민학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과에 관하여서 종래는 전체적 통일을 생각치 않고 분과적고 고립적으로 취급하던 폐가 있었으나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폐해를 근본적으로 고치며, 종래 10수종의 학과가 병렬하였던 것을 고쳐서 국민과, 이수과(理數科), 체련과(體鍊科), 예술과, 직업과의 5교과로 하여 국민정신의 철저, 과학적 정신의 함양, 심신의 단련, 정서의 순화, 직업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하여 모든 교과로 하여금 그 특색을 발휘시키는 동시에 황국신민연성의 일도(一途)에 귀일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과 관련하여 가지고 전 교수(敎授)를 통하여 교과를 정선하여 교수의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반복연습하고 응용 자재(自在)하도록 노력하여 교육에 있어서 중점주의에 따라 아동부담의 과중을 피하기 위하여 교수시간수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한에서는 경감시키기에 노력합니다. 다음, 국민학교는 내지와 같이 8년을 통하여 일관한 교육을 실시함을 주안으로 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획일되는 폐단이 없이 조선민도와 실정에 적절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감원(監原) 학무국장께서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있어서는 합병 이래 극히 견실한 교육방침을 취하여 전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고 유용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주지로 하여 노력하고 형식적 획일의 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국민학교의 제도에 있어서는 획일에 그치지 않고 각 지방의 실제생활에 적절하게 하는 취지로서 수업년한이라든지 교육과정 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융통성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

보전진하여 내지의 국민학교에 준하여서 속히 의무제를 시행하여 내지 아동과 같이 의무교육의 혜택을 입어 불학의 집이 없고, 불학의 인이 없게 하여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기에 유감없도록 기하는 바이니, 이에 있어서 학부형 제씨(諸氏)의 협력과 성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의무교육의 실시는 국가재정의 현상에 비취 물론 그 실현에 용역치 못한 기다(幾多)의 곤란이 있지만 국민교육의 중요성에 감(鑑)하여 명년도부터 그 준비에 착수하여 시세의 진운에 비치여 재정완급에 응하여 가급적 속히 실현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 2. 학계의 신체제

기자 - 현 시국 하에 특히 조선인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조 시학관 - 국사다단(國事多端)한 추(秋)에 일억일심, 국민의 총력을 발휘하여 고도국방국가를 건설하려 함에 있어, 학계에도 쇄신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특히 내선일체의 기치 하에서 조선인 학생들이 황도정신을 확호히 파악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래 구미로부터 수입한 유물문화에 침윤되어서 심지어 학생들까지 개인주의사상과 자유주의적인 경향에 흐르던 폐풍을 일소하고, 팔굉일우의 대이상과 일본정신을 사상의 핵심으로 하여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수양에 노력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너무 보수적인 말이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학생시대엔 세사에 상관하지 말고, 무슨 사회 운동에 참여하려는 주제넘은 생각도 가지지 말고, 오직 자기는 학생이란 것을 잊지 않는 동등에 학업에 힘쓰고, 심신의 단련과 인격도야 등 자신의 수양에 노력하는 것만이 학생이 취할 정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명일의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국민이 되어서 좋은 일을 남기는 국가유용의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언하면 학생은 국가의 장래를 걸머진 제2의 전사이기 때문에, 빛나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도장에서 부단의 노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학생의 본분이요, 따라서 모범적인 태도라 할 것입니다.

## 3. 학생의 오락문제

기자 - 학생의 오락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학생이나 중학생은 별문제이겠지만 전문학교생이나 대학생에게 있어서는 좀더 제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 시학관 - 미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명량한 기분을 갖게 해야 할 것은 재언(再言)을 요하지 않지만, 명량한 생활을 위해서라는 이름 밑에서 그릇된 오락에 함(陷)하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로, 종래에는 전문, 대학생들이 카페에나 빠-에 출입하던 것을 별로 단속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단속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철저히 취체하도록 하여 이러한 악폐를 근절시킬 작정입니다. 그리고 당구장 출입이나 영화관 출입이나 다방 출입도, 비상시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들뜬 유흥기분에 유도하기 쉬운 일체의 오락을 금하게 하는 것은 수련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고 불평을 토로할 분자가 있을 지 알 수 없으나 학생의 오락문제에 있어서는 학생에게 스-포츠라는 가장 건전한

오락이 있기 때문에 유흥기분에 속하는 오락을 절대로 금해도 좋다고 봅니다. 스-포츠는 정신상으로나 육체상으로나 실로 건전한 실질적인 오락인 관계로 이 외의 것은 금해도 심할 것은 도모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있어서도 근자엔 전에 별로 없었던, 학생을 중심한 문화영화관 설치도 있고, 문부성, 혹은 후생성의 추천영화도 있으니 연애를 테마한 영화등에 학생들이 도취한다든 것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점(諸點)을 학생제군은 특히 명심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며, 또한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학생제군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말보다 실행하는 사람』, 『공리주의적인 소아(小我)를 버리고 인류전체의 복지를 위하는 대아(大我)에 생활할 일』을 행동의 표언으로 삼아야 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서』라는 격언과 같이 『건전한 육체는 건전한 정신에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출전 : 「總督府高等官 諸氏が 戰時下朝鮮民衆에 傳하는 書」, 『三千里』 제13권 4호, 1941년 4월, 30~46쪽〉

#### 4) 윤치호, 한상룡의 총독회견

미나미(南) 총독에게 듣는다

전시 하 반도 민중의 마음가짐

일시 : 1941년 12월 29일 오전 9시

장소 : 총독부 총독실

참가인 : 질문자 이토(伊東致昊)

동 한상룡

답변자 미나미 총독

바쁘고 어수선한 연말인 29일의 일이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연말인 29일이라고 하면 벌써 종무식이 거행되어 총독부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후방인 ‘반도’에는 군국의 기분이 넘쳐나 연말도 연시도 없다. 미나미 총독은 이 날도 일찍 출근하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비서관을 통해서 손님이 왔다는 전갈이 있었다. 내객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토, 한상룡 두 사람이었다.

총독은 두 사람을 흔쾌히 맞이하여 반갑게 상대했다. 이것은 그때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이다.

## 고금의 철칙

### 정의의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문) 연말 바쁘신데 특별히 찾아 뵈는 것은, 반도 2천 4백만 민중이 총량한 '황국신민'으로서 최근의 중대 시국에 대처하는 최후의 일인까지 □□□□□□□□□□하고 있는 이때, 각하로부터 교시를 받아 이를 일반에 전하고 그림으로써 반도 민중의 황국신민으로서의 각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염원에 의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여기에 온 미충(微衷)을 헤아려 반도 민중에 대한 교시를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참으로 열성이 지극하십니다. 알고 계신대로 일본은 바야흐로 다년에 걸쳐 영미의 질리지 않는 탐욕의 화심(禍心)에 단호한 철추를 내리고 그 세력을 뿌리까지 소탕하여 동양인의 동양다운 명량한 대동아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가 시작된 이래의 대 성업이며 각국 모두가 그 울타리에 안주하고 만민이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소위 세계 신질서 건설을 위한 정의의 싸움입니다.

정의의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며 개전한지 불과 20여 일만에 이미 미영 태평양 함대의 주력을 섬멸하고 그 주요 거점을 모조리 석권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대로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8일 환발하신 선전의 조칙을 받들어 황국에서 생을 누려 이 대업을 익찬하는 황국신민이라는 광영에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 2천 4백만 민중은 모두 폐하의 자손으로서 이 광영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각오에 추호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 (1) 대동아전쟁의 의의를 잘 이해하고
- (2) 그 목적은 숭고한 정의의 싸움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 (3) 이 성업을 봉행하는 광영을 짊어지는 한편 각각 자기 몫에 따라 철저한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넘쳐나는 애국열

### 어떻게 한데 모으면 좋은가

(문) 이 성대(聖代)에 생을 누려 우리 반도 민중이 성전을 익찬할 광영을 얻게 된 것은 누구나 깊이 감격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몫에 대해 충성을 다 하는 발로로서 혹은 국방 헌금에서, 혹은 비행기에서, 혹은 각종 병기 헌납에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애국의 지정(至情)이 반도 방방곡곡에까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최고조에 달한 애국의 지정을 어떤 형태로든 통제 강화하여 황국신민으로서 몸을 바쳐 봉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

기 바랍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반도 동포가 잘 이해하여 발분정려해 주기 바랍니다.

대동아 건설의 지도자가 될 일본인은 그 사상에서도 그 행위에서도 그에 상응한 수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미 사람들이 입으로는 인도를 부르짖으면서도 착취와 압박으로 시종한 결과는 오늘날 그 말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3천년 동안 배양된 팔굉일우의 건국의 정신에 근거하여 오늘날 그 이상의 현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반도 동포는 일시동인의 성지에 기초한 폐하의 자손으로서 이 성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애국의 지정이 병기 헌납, 국방헌금 등으로 속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2천 4백만 모두가 총량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철저한 수련을 통하여 조국의 정신을 봉행하는데 충분한 □□□□□입니다. 이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것을 폐하에게 바치고 미련을 남기지 않는 우리 국체의 본의에 일관하자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황군 용사가 최후의 숨을 거둘 때 오로지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미소지으며 죽는 바로 그 심경입니다. 이것이 실로 진정한 황국신민의 모습입니다. 이 심경에만 도달한다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특별지원병에 대한 유식 유산계급 자제의 솔선 참가라든가, 시국 하에서의 인플레 방지를 위한 국책인 저금의 장려, 국채 구입 등은 솔선해서 실행될 것이며 아무런 곤란한 문제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 항상 부르고 있는 '바다에 가면 물에 잠기고 시산(屍山)에 가면 잡초 무성한 시체, 대군 옆에서 죽고 싶구나, 절대로 돌아보지는 않으리' □□□□□□□□□□ 그 심경으로 시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국의 지정을 어떤 형태로든 통합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좋은 일이지만 모든 것은 이상 말씀드린 견고한 근거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후로도 이러한 심경을 철저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체의 정화

#### 황군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이유

(문) 개전한지 겨우 열흘 정도 지나서 세계의 대국인 미영의 주력을 분쇄한 황군의 혁혁한 무훈은 바야흐로 세계의 경이가 되었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탐구해 마지않는 바인데, 이 점에 대한 소견은 어떠십니까?

(답)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군만민의 국체의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부득이한 정의의 싸움 외에는 한 번도 창을 잡은 예가 없으며, 이번 선전의 조칙에서도 “진정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찌 짐의 뜻이겠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명일하(大命一下)에 진충의 염에 불타는 정에 황군의 앞길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특히 미·영은 그 물자에 의지하며 입으로는 정의 인도를 부르짖으면서도, 그 전통 정책은 음으로 양으로 동양 인종의 상극과 노예화를 기도하고, 이에 따라 지칠 줄 모르는 □□□□□□ 것으로서 현재 동양만을 보아도 인도,



필리핀, 하와이, 버마, 지나, 자바 호주 등 모두 그 희생물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악은 영구히 존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의 성전이 하늘의 재단에 의한 응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자칫 종래 미·영의 국력을 과대시하여 세계의 왕자처럼 경도해 왔지만, 의롭지 못하면서 부하고 귀한 것은 뜬 구름과 같다는 현명한 말과 같이 그 국내 사정은 다분히 취약성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예를 보면 인종 구성의 복잡성, 실업자의 범람, 치열한 계급투쟁, 빈곤한 정신문화, 애국심 결여, 풍기 퇴폐, 물질만능의 국시, 대동아 전쟁에 의한 자원 보급의 차단 등, 그 진상을 보면 정의로운 일본 앞에 당연히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반도 민중은 50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미영 양 국민과 접촉해 오면서 지금까지 그 사상 국력 등에 환상을 품고 있는 자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 기회에 철저하게 활안(活眼)<sup>105)</sup>을 열어 이를 불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장기전에 대처 후방은 어떻게 굳게 지킬 것인가

(문) 미영 양국은 바야흐로 고성낙일(孤城落日)의 느낌이 □□□□□□□□를 해 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굴복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전의 압도적 전과를 기뻐하는 동시에 더욱 이겨서 투구 끈을 졸라맬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도 민중의 투구 끈을 졸라맬 구체적인 준칙이라고나 할까 지침이 되는 것을 교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 장기전에 대응하는 철석의 결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후방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간결하게 항목을 들어 보면,

(1) 정의 필승의 신념을 견지할 것

이번 전쟁은 대동아 10억 민중을 미영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적 성업이며 우리의 전도에는 광명과 희망이 빛나고 있다. 미·영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이상 사악한 착취는 결코 계속될 수 없다. 정의 필승의 신념에 □□□□□□□□

(2) 곤고 결핍을 괴로워하지 말 것

역사적 대업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지 동포는 자식과 형제를 모두 전장에 보내고 그러면서도 후방의 경비에 정진하고 있다. 반도는 두터운 황은을 입어 아무런 불안도 없이 그저 후방 경비에만 정진하면 되기 때문에 곤고 결핍에 견디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은 제일선 황군 장병의 노고를 생각하여 반도 동포가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 것

악랄한 모략으로 세계에서 착취를 일삼아 온 미·영은 정정당당한 싸움에는 약하지만 후방 요란의 유언비어에 극히 뛰어나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내심은 악마 같

---

105) 사리를 밝게 보는 눈.

은 스파이의 이빨을 갈고 있다. 반도 민중은 이 점을 정시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신뢰하여 결코 유언비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4) 이치보다도 실행

지금은 이치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각각 그 담당 구역에서 솔선 공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직역에 정려하여 생산을 확충할 것

각자가 직역에 정려하여 생산을 확충하면 물자 결핍은 극복된다. 하물며 황군이 남진함에 따라 풍부한 자원 개발로 인해 금후 더욱 더 동아공영권의 확립이 기대되는 이 때 산업전사로서의 임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낭비를 줄이고 저금의 여행(勵行), 국채 소화에 노력할 것

전시 하의 통화 팽창 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없다. 제1차 대전에서 독일이 전투에 승리했으면서도 굴욕의 결과를 맞이한 것은 통화 팽창에 의한 국민생활의 파괴가 큰 원인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은 일가의 장래를 준비함과 동시에 전시 국민생활의 건전을 꾀하기 위해 협력 절약하고 저축의 여행, 국채 소화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국어 사용의 여행

이번 전쟁의 목표가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있고 또 그 지도자가 일본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일본의 정신문화 등을 받아들여 이 성업의 일익을 분담하려는 팽배한 열의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일본어를 습득하려는 자는 이미 지나, 프랑스령 인도지나, 태국, 말레이 등

〈출전 : 伊東致昊 韓相龍 「南總督に聽く戰時下半島民衆の心構へ」,  
『國民總力』 제4권 2호, 1941년 12월 29일, 26~31쪽〉

## Ⅱ. 주요 경제통제 기구



## 1.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 1) 시국대책조사회 설립준비 관계 기사

#### [1-1]

#### 시국대책위원회 관계관제를 심의

사변에 의한 신 사태에 대처할 조선 최고 방침의 총독부 시국대책은 이미 관계 각국과에서 각각 주사(主査)를 중심으로 원안 작성을 시작하여 수차에 걸쳐 연락준비위원회를 개최 대강(大綱)의 성과를 거둔 모양인데 이와 함께 법제국(法制局)에서의 시국대책에 관한 관제안(官制案)은 3일 법제국 심의를 통과하였으므로 근근(近近) 각의(閣議) 외 정식 결정을 기다려 공포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 국과(局課) 작성원안은 시국대책위원회(時局對策委員會 : 명칭은 조사회) 제출 위원회에서 종합적 토의를 하여 결정 실행하게 되었으며 총독부에서는 내외지(內外地)를 통한 각 방면의 일류 □□자를 위원에 축탁, 강력한 위원회 내지 조사회를 조직하려고 이미 각각 인선 교섭을 행하고 있는 바 관계 공포가 되면 근근(近近) 제1회 위원회 개최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전 : 「時局對策委員會 關係官制를 審議」, 『朝鮮日報』, 1938년 8월 5일〉

#### [1-2]

#### 시국대책조사회 9월 상순에 초(初) 위원회

시국대책조사회에 관하여는 모든 준비가 진척되고 관제안은 기보(既報)와 같이 법제국의 심의를 마쳤으므로 근근(近近) 칙령으로써 관제를 공포하여 9월 상순 중에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명칭은 ‘조선시국대책조사회’라고 하고 위원은 조선총독의 주청에 의하여 직접 내각에서 임명하기로 되었다. 오노(大野)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수는 조선 내외를 통하여 80명 가량 될 모양으로 위원수 위원임명형식으로 보아 미증유의 대위원회이다. 이미 일본 측 위원 인선에 관하여는 정판(井坂) 문서과장이 도동(渡東)<sup>1)</sup> 예비교섭을 마쳐 민간 측 위원 후보자는 전부 위원회 출석을 쾌락, 열의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제1회 위원회 개최 결과는 방금 각 국과장(局課長)이 하는 준비위원회에서 작성 중인 의안을 중심으로 시국 하 조선의 제(濟) 정책에 장차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동(同) 조사회를 반항구적(半恒久的) 기관으로 할 것인가 임시적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제1회 위원회의 의 □세(□勢)에 따라 결정할 모양이다.

〈출전 : 「時局對策調査會 九月 上旬에 初 委員會」, 『朝鮮日報』, 1938년 8월 9일〉

1) 도쿄(東京)에 건너가.

### [1-3]

#### 시국대책조사회 위원 인선 완료

시국대책조사회 위원의 인선에 대하여는 일본 측 위원도 전번 정판(井坂) 문서과장의 도동(渡東) 시에 전부 내락(內諾)되었으며 조선 측 위원도 이번에 그 인선을 마치어 내각에 송부(送附)하였는데 총독부에서 어제 19일 준비위원회, 간사회에 계속하여 조선군 암기(岩崎) 고급참모도 열석(列席), 임시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동(同) 조사회에 관한 협의를 행하였는데 미나미(南) 총독은 시국 하의 본 조사회 임무의 중대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조사회는 이미 내각의 임명을 기다리게 되어 24, 5일 중에는 정식 발령을 올 모양으로 제1회 위원회는 9월 10일 전후 총독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출전 : 「時局對策調査會 委員 人選 完了」, 『朝鮮日報』, 1938년 8월 21일〉

### [1-4]

#### 시국대책조사회 탄생, 위원에 권위를 망라 조사회관제 어제 공포, 다음 달 6일 제1회 총회

누보(累報)한 바와 같이 총독부에서는 장기 전시체제 하에 있어 현 시국에 대응할 대내대의 중요 정책을 입안 논의하여 곧 시정상에 획기적 시정을 기도하고자 시국대책조사회를 설치하고서 금년 1월 이래 설치, 이에 관한 준비를 거듭하고 있던 바 최근 그 구체적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27일에 별항과 같이 본부 시국대책조사회의 관제(칙령)와 위원(회장 1명, 위원 97명, 사무총탁 5명, 간사 12명)을 발표하였다. 특히 조사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칙령으로 관제를 제정하는 동시에 위원도 일본, 조선, 만주 등지에서 각 방면 권위자를 망라하여 더욱 이 조사회를 권위있는 기관으로 하였다. 동회에서 심의 결정할 정책은 이미 시국대책준비위원회에서 그 의안 36건이 결정되었으므로 다음 달 9월 6일부터 동회의 제1회 총회를 열고 시국에 대응할 획기적 제 중요정책을 심의 결정하게 되었다.

#### 조사관제(칙령) 전문

제1조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는 조선총독의 감독(監督)에 속하고 그 자문에 관하여 조선에 있어서의 시국대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함. 시국대책조사회는 별항 사항에 대하여 조선총독에 건의할 수 있음.

제2조 시국대책조사회는 회장 1인 및 위원으로써 이를 조직함.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임시위원을 촉탁할 수 있음.

제3조 회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써 이에 총당함. 위원 및 임시위원은 조선총독의 주청에 의하여 관계 각 제 고등관 및 학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내각에서 이를 명함.

제4조 회장은 회무를 총리함. 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조선총독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를 대리함.

제5조 시국대책조사회에 간사를 두고 조선총독부 부내 고등관 중에서 조선총독이 이를 명함.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정리함.

제6조 시국대책조사회에 서기를 두고 조선총독부 부내 관임관 중에서 조선총독이 이를 명함. 서기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함.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회장 및 위원, 간사

- ◇ 회장 총독부 정무총감 대야녹일랑(大野綠一郎)
- ◇ 위원 송판옥(松判屋) 사장 이등송지조(伊藤松之助), 귀족원의원 일본광업 사장 남작 이등문길(伊藤文吉), 대일본□엽(大日本□葉) 사장 일궁은생(一宮銀生), 동경제국대학 명예교수 농학박사 암주양치(岩住良治), 귀족원의원 도전승태랑(稻畑勝太郎), 농림차관 정야석재(井野碩哉), 서선합전(西鮮合電) 사장 금정뢰차랑(今井賴次郎), 귀족원의원 정창제사방직(井倉製絲紡織) 사장 금정오개(今井五介), 대장차관(大藏次官) 석도장태랑(石渡莊太郎), 삼정물산(三井物産) 전무 석전례조(石田禮助), 일호협회(日濠協會) 이사 정도중보(井島重保), 중추원고문 자작 윤덕영(尹德榮), 귀족원의원 동북흥업(東北興業) 총재 팔전가명(八田嘉明), 대만사무국(對滿事務局) 차장 원방도(原邦道), 경성제국대학 총장 문학박사 속수황(速水滉)  
……(이하 관독불가)……

〈출전 : 「時局對策調査會 誕生, 委員에 權威를 網羅 調査會 官制 昨日 公布, 來월 六日 第一回 總會」, 『매일신보』, 1938년 8월 28일〉

## 2) 시국대책조사회의 개최 관계 기사

### [2-1]

#### 시국대책조사회의 개최

1. 금일의 당면하고 있는 비상시국을 타개하기에 적절한 즉 현 단계의 조선을 통치하는데 □□인 대내대외의 신정책과 신□□을 강구확립하기 위하여 총독부에서는 이미 오랜 시일을 비송(費送)하여 가면서 시국대책조사회를 설치하기로 그 준비를 진행하여 오던 중 □□ 그 조직과 임원 등 일체의 결정을 마치고 관군민의 내외각방면 관계자 근 백 명의 내참을 얻어서 어제 6일부터 4일간에 걸쳐 동 회의

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 규모(規模)와 내용 어느 각도로 보든지 한 가지 획시기적(劃時期的) 회합인 동시에 이 회의에서 곧 조선에 대한 재인식 재검토를 하게 되고 앞으로 신설할 제정책의 신방향을 토구(討究)하는 의미에서 또는 여기에서 다루는 안건이 전부 그것 그대로는 실현되지 못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회의의 중대성은 더욱 큰 바 있는 것이다.

2. 이제 동회의의 내용을 듣건대 제1일은 총회로써 미나미(南) 총독의 고사(告辭)와 회장으로서는 오노(大野) 정무총감의 인사(人事)가 있었고 회의에 들어가서 각 위원으로부터 종합적 의견진술과 질문이 있었으며, 제2일인 금일부터는 문화, 사회관계, 산업 경제관계, 교통통신관계 등 3분과회가 개최되어 세 목적 토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미나미(南) 총독의 자문사항만이 18항목에 달하고, 동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질의사항으로 예고된 것이 대항목으로써 총합 24개의 의안은 어느 것 하나이고 시국관계 아님이 없고 중대한 문제 아닌 것이 없어서 회의 자체가 비상한 긴장중에 진척(進陟)되거나와 일반의 관심이 이에 집중됨이 또한 대대(多大)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회의가 헛되이 내외에 소리만을 높이는 형식적 회합에 그치지 않을 것을 믿는 반면에 모름지기 각 위원은 적나라한 조선을 다시 한 번 성찰하여서 그 토의(討議)와 답신(答申)에는 자못 진정(眞情)성이 있게 하여 인적(人的), 물적(物的) 양 요소에 걸친 중대한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고 나아가서는 이 땅의 대다수 인민 생활에도 안정이 올 수 있을 것을 약속하는 성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3. 이번 회의는 공개되지 않고 따라서 협의 내용이 일체 비밀에 부치어 있으므로 여기에 우로서의 찬부(贊否)의 여유를 가질 수 없으나 발표된 자문사항만을 보아도 산업경제관계의 것으로 북지(北支)·중지(中支)의 경제개발, 해외무역의 진흥, 군수공업의 확충, 지하자원의 개발, 쌀의 증산, 축산의 장려와 교통·통신관계사항으로 북조선의 특수성에 대응할 방침, 해운, 통신기관, 항공시설, 육상교통기관의 예산 등 어느 것이고 현하 조선으로서 요구되는 것 아님이 없고 또 그 모든 만반(萬般)의 정비(整備)가 긴급한 터이다. 그리고 문화, 사회관계사항으로 내선일체의 강화 시책, 조선, 만주 북지(北支)간의 사회적 연계(連繫), 재지(在支) 조선인의 보호(保護), 민중의 체위(體位)향상과 생활 쇄신(刷新), 농산어촌(農山漁村) 진흥운동의 확충 등과 준비위원회안인 군사 후원의 강화, 물자의 수급과 가격의 조정 등 기타는 모두 내외(內外) 다난(多難)한 이때에 물심양전(物心兩全)을 위한 것이나 특히 오늘 조선의 실정을 천착(穿鑿)하여 볼 때에 사회시설과 그 정책의 빈곤(貧困)함을 들지 않을 수 없으니 전기한 민중의 체위향상과 주거쇄신, 농산어촌진흥운동의 확충 강화, 하나 만으로서도 거기에 완벽(完璧)을 기한다면 인적 물적 양 자원의 확보에 서기(庶幾)<sup>2)</sup>함이 크지 않을까 한다.

〈출전 : 「對策調査會의 開催(社說)」, 『東亞日報』, 1938년 9월 7일〉

2) 바람, 바라건대.



## [2-2]

### 일만지(日滿支) 권위 망라한 시국대책조사회 개막

#### 미나미(南) 총독 반도사명을 강조

국가총력전의 최첨단에서 제국대륙정책의 전진(前進)병참기지인 특수 사명을 진 조선 반도가 정신동원에 물자동원에 긴급국책의 절실한 대응책을 확립하려고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위원회는 내선(內鮮)<sup>3)</sup> 각 부문의 권위를 총 망라하여 각 지 조야(朝野)의 주시를 받으면서 금 6월 오전 9시부터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미나미(南) 총독 참석 하에 회장 오노(大野) 정무총감 이하 일본 41명, 조선 48명, 만주 5명, 북지(北支) 3명, 합계 97명의 위원(그중 7명 결석), 촉탁, 간사 등 출석, 다시 총독부 관계관을 더하여 총원이 백 수십 명이 일당(一堂)에 모여 만주, 지나 양 사변을 계기(契機)로 하는 동양의 신정치단계에 처하여 가까이는 장고봉사건의 긴요절실한 사태에도 비추어 반도 금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신침로(新針路)를 결정할 역사적 중요사명을 만당(滿堂)에 창일(漲溢)하게 하여 긴장리에 오노(大野) 회장이 개회를 선포하자, 총독부 제정의 국민복으로 몸을 싣은 미나미 총독은 서서히 단상에 이르러서 별항(別項)과 같은 고변을 술하고 단상을 내려간 다음, 오노(大野)회장이 등단(登壇)하여 총독의 고변을 다시 부연(敷衍)하고 의장으로서의 입장에서 의사(議事) 기타에 대하여 1시간여에 걸쳐 인사(人事)를 말하였다. 그리고 즉시 총회의사에 들어가 출석 각 위원으로부터 총괄적 의견이 열심히 토로(吐露)되고 시국 하에 적응한 긴장으로써 반도 각 부문에 걸친 시책에 대하여 진지한 재검토가 전개되었다. 제1일(6)의 총회는 각 위원의 종합적 의견 개진 후 분과회 및 소속위원을 결정하여 산회(散會)하고 제2일(7)은 오전 9시부터 3분과회에 나누어 총독자문사항 18항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응책(應策)의 구체적 검토를 행하고 분과회는 8일 속행(續行) 최종일(9일)은 재차 총회(總會)에 옮기어 각 분과회 보고서 및 답신안을 의결하여 4일간에 걸친 성과를 결정할 터인데 그 성과는 반도통치의 완벽을 형성하는 것이라 하여 매우 기대되었다.

#### 준비위원회 성안(成案) - 긴급사항보고

총독부는 시국대책조사회에 대하여 총독자문사항으로서 18항목을 부의(附議)하였는데 우외(右外)시국대책으로서 특히 긴급사항이라 하여 준비위원회에서 성안을 얻고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는 좌(左)의 6건을 참고사항으로 하여 보고하였다.

1. 군사 원호(援護)의 강화철저
2. 물자의 수급과 가격의 조정
3. 각종 시험기관의 총합과 화학의 이용촉진(발명, 발견의 장려)
4. 선만일여(鮮滿一如) 기타 종래의 제시책의 강화
5. 선농(鮮農)의 만주이주 대책
6. 대□□세(對□□稅) 제도의 근본적 개혁

3) 일본과 조선을 함께 아울러 이르는 말. 식민지 본국 일본을 내지(內地)라고 함.

## 기대되는 시국조사회

시국대책조회는 내일 6일부터 4일간에 걸쳐 개최하고 총독의 자문사항 18항목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 각반에 걸쳐 신중심의를 행하리라고 되었는데, 위원회의 기구로 보아 동 조사회 심의결과는 미증유의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한다. 즉 회의는 두 번째 날 이래 제1, 제2, 제3의 3분과회의에 나누어 심의하는데 선반래 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문사항별의 구체안은 이를 답신안으로 하여 제출하지 않고 참고자료의 정도에 그치고 각 분과회에서 상세 검토를 더하여 답신안을 작성하기로 되어있으므로 답신에는 총독부 준비위원회의 안과는 상당히 다른 바가 나타나리라 보인다. 특히 공소(空疎)<sup>4)</sup>한 표현으로써 조선이 가진 실력과 임무를 과대 내지 과소평가하여 미나미 총독이 누차에 걸쳐 제시한 시정방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한갓 형식적 병참기지론으로써 만사 종료라고 하여 구체적 정책에 있어서 확고한 바를 결한 감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금회 회의는 근본적 비판과 대책을 재래(齎來)<sup>5)</sup>하라 예상된다.

## 각분과회서 심의될 물심양전(物心兩全)의 제정책

반도에서의 물심양전의 대응책을 확립할 시국대책조사회는 금 6일 총회를 벽두(劈頭)로 하여 개최되었는데 항상 각 위원은 미나미 총독의 자문사항 18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중심의회하기 위하여

1. 문화, 사회관계 및 일반사항
2. 산업경제 관계사항
3. 교통, 통신 관계사항

을 표준으로 하여 3분과회에 나누어 토의하기로 되어 그 위원회 사항 및 소속 위원을 여좌(如左)히 결정하였다. 그리고 분과회는 주사(主査)를 호선한 후 7, 8 양일에 걸쳐 심의 보고서를 가결하여 9일의 총회에 부의(附議)할 터이다.

### - 제1분과회

임시회의실(제1식당)

전문위원 윤□영자(尹□英子)이하 27명, 겸임위원 13명

1. 내선일체의 강화철저
2. 조선 □□, 북지(北支)간의 사회적 연계(連繫)
3. 재지(在支)조선인의 보호 지도
4. 반도민중의 체위향상과 주거의 쇄신
5. 농산어촌(農山漁村) 진흥운동의 확충강화
6. 사회시설의 확충
7. 노무(勞務)의 조사와 공업(共業)의 방지(防止)□□

4) (글이나 말)내용(內容)이 없고 짜이지 아니하여 허술함.

5)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옴.

- 제2분과실

제1회의실

전문위원

이등송지조(伊藤松之助) 이하 17명 겸임위원 7명

1. 북지(北支), 중지(中支)의 경제개발과 조선의 경제개발의 연계
2. 해외개발의 연계
3. 군수공업의 확충
4. 지하자원의 적극적 개발
5. 쌀의 증산
6. 축산의 적극적 장려

- 제3분과회

제2회의실

전문위원 팔전가명(八田嘉明)씨 이하 15명 겸임위원 14명

1. 북선(北鮮)의 특수성에 대응하는 방침
2. 해군의 정비(整備)
3. 통신기관(라디오를 포함)의 정비
4. 항공시설의 정비
5. 육상교통기관의 정비

<출전 : 「日滿支權威 網羅한 時局對策調査會開幕 南總督半島使命을 強調 各分科會서 審議될 物心兩全의 諸政策 第二日부터 正式討議開始 準備委員會成案 緊急事項報告」, 『東亞日報』, 1938년 9월 7일 석간>

## [2-3]

### 국방산업의 북조선(北朝鮮) '토치카'화를 계획

#### - 시국대책조사회에서 미나미(南) 총독이 언명

6일의 시국대책조사회(時局對策調査會) 벽두의 고사(告辭)에서 미나미(南) 총독은 장고봉(張鼓峯)사건을 언급하는 동시에 특히 북조선 지방의 특수성을 강조 등 지방의 도로항만, 방공, 통신, 철도 등 제반의 시설은 전부 국방의 안전 강화를 안목(眼目)으로 하여 유사의 날에 대응을 준비를 필요로 하여 북조선 지방의 중요성을 재검토 할 것이라는 요망이 있었는데 장고봉사건을 계기로 하여 금후 북조선 지방의 제시설은 국방적으로 산업적으로 획기적 비약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출전 : 「國防産業의 北朝鮮 '토치카'화를 計劃 時局對策調査會서 南總督이 言明」, 『東亞日報』, 1938년 9월 7일>

## [2-4]

### 시국대책 각 분과회 구체적 토의를 개시, 위원간 백열적(白熱的) 논의 전개

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제2일은 7일 오전 9시부터 각 분과회가 일제히 개시된 바 먼저 각 분과회는 모두 민간 측 위원에서 주사(主査)를 호선(互選)한 후 총독 자문사항 18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심히 검토하였다. 즉

- ▲ 제1분과회는 제1식당을 임시회의실로 윤덕영(尹德榮) 위원 이하 전문위원 27명이 출석, 문화사회 및 일반관계를 중심으로 한 「내선일체의 강화 철저에 관한 건」 이하 7항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다.
- ▲ 제2분과회는 제1회의실에서 이등송지조(伊藤松之助) 위원 이하 전문위원 57명이 출석하여 「북지(北支), 중지(中支)의 경제개발과 조선의 경제개발 연계에 관한 건」 이하 산업경제 6항목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개시한 바 이 분과회는 시국대책조사회의 중추가 되는 만큼 각 위원으로부터 백열적(白熱的) 논의가 토로되었다.
- ▲ 제3분과회는 제2회의실에서 하즈다(八田嘉明) 위원 이하 전문위원 15명 출석 교통, 통신, 시설을 중심으로 토의를 속행하였다.

그 사이에 있어 미나미(南) 총독, 오노(大野) 정무총감은 수시로 각 분과회에 임석(臨席)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며 또 각 분과 겸임 위원도 관계문제마다 수시로 타 분과회에 참석 의견을 말하고 각 분과회가 모두 오전 오후에 걸쳐 비상한 긴장을 보였다.

#### 소위원회 간담, 제1분과회 경과

시국대책조사회 제2분과회는 7일 오전 9시부터 미나미(南) 총독 임석 하에 개회 제1자문안인

1. 내선일체 강화 철저에 관한 건을 상정, 총독부 당국자로부터 취지 설명을 하여 시국에 즉응할 물심양방면의 시조방책(施措方策)은 모두 내선일체로써 본지로 하고 거국일치의 정신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통하여 우 정신을 뿌리 깊게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본 건은 조선 내에 있어서 실현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만주, 지나 기타 조선인이 재주(在住)하는 지방은 외국이라도 다 본 취지에 기하여 시책을 고구(考究)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 시책으로서

- 1) 조선통치의 정신을 내외에 천명할 것
- 2) 국체관념의 명징을 도(圖)할 것
- 3) 교육의 보급 쇄신을 도(圖)할 것
- 4) 청소년의 훈육 및 지도의 통제
- 5) 기타

에 관하여 각반의 문제를 토의하여 달라고 희망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편창□□(관동군참모)는 재만조선인 520만 인의 취급에 있어서 근본취지는 전혀 내선일체와 합치하는 방식을 만주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다음 전기(田綺) 위원(후생성 사회국장)은 일본 내지에 있어서의 조선인의 실정, 특히 시국 하에 호전된 원인 등에 언급하여 “일본에서도 조선과 동일 방침으로 나아가는데 총독부로서는 일본 방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선일체의 시정을 절찬(絶讚)하고 최린(崔麟), 한규복(韓圭復), 이승우(李升雨), 이기찬(李基燦), 박중양(朴重陽) 각 위원으로부터 내선일체에 관한 조선인 측의 실정 및 희망의견 등을 발표하였다. 이때 하촌(下村) 위원(귀족원의원)은 이 문제는 극히 중요한 사항인 고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간담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소위원회의 구성을 희망하고 만장이의 없이 소위원회로 들어가서 격의 없는 간담을 하기로 하고 정오 휴게(休憩).

조사회 제2분과회는 오전 중 북지(北支), 중지(中支)의 경제개발과 조선의 경제개발 연계에 대하여 각 방면으로부터 의견이 개진된 바 취중(就中) 조선에 있어서의 자동차공업 기타 중공업문제가 활발히 논의된 바 특히 대□내정민(大□內正敏) 박사는 지리적, 자원적으로 보아 조선이 중공업 최적지로서 중요시할 것을 강조한 바 회의의 공기도 대체이에 찬의를 표한 것은 자못 주목된다.

### 각 분과회 주사(主査) 호선(互選)으로 결정

시국대책조사회 제2일은 7일 오전 9시부터 제1분과회는 제1식당, 제2분고(奔告)회는 제1회의실, 제3분과회는 제2회의실에서 각기 개회, 각 분과회 주사를 호선한 결과

제2분과회 세키야(關屋貞三郎)

제2분과회 이마이(今井五介)

제3분과회 네즈(根津嘉一郎)

등 3씨로 결정하였다.

〈출전 : 「時局對策 各 分科會 具體的 討議를 開始, 委員間 白熱的 論議 展開」, 『朝鮮日報』, 1938년 9월 8일〉

## [2-5]

### 시국대책위원회 종료

#### 답신안은 제1기 계획으로서 내년도부터 3개년 계속 실시

#### - 미나미(南) 총독 폐회 석상 선명(宣明) 요지(要旨)

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는 수많은 성과를 거두고 9일 종료를 고한바 폐회에 당하여 미나미(南) 총독은 출석 각 위원의 노고에 감사하는 동시에 조사회의 사명을 재강조, 특히 자문답신에 대한 실행의 점을 대하여 우선 제1기 계획으로서 금년 11월 말까지 구체안을 작성한 후 내년도부터 3개년 계속하여 1941년 말까지 완성할 방침을 명시 대요(大要) 여좌한 인사(人事)를 서술하였다.

자문(諮問)한 각안에 대하여는 모두 우리 나라에 대한 권위자인 각위(各位)로부터 극히 유의의(有意義)한 의견(意見)을 승문(承聞)할 기회를 얻어 반도 실정상 다대(多大)한 참고가 될 뿐 아니라 내선(內鮮)간을 통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그 실정에 기하여 어의견 등도 배청(拜聽)할 기회를 얻어 금후 실정상 상

호의 연계(連繫) 소통에 보익(補益)<sup>6)</sup> 되는바 또한 극히 크다고 신빙(信憑)하여 흔희(欣喜)<sup>7)</sup>를 감출 수 없는 바이다. 어답신(御答申)의 내용에 대하여는 심분 이를 존중 완급(緩急)의 도를 도모하여 실제에 즉응하도록 채택(採擇)실행에 옮길 생각이다. 나는 반도실정상에 인적 물적 각 방면에 걸쳐 어답신의 내용을 근간으로서 나의 바라고 기약하고 있는 안(案)을 부가하여 차등 정비 달성을 기하기를 위하여 중점(重點)주의에 따라 일정의 목표를 정하여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 우선 제1기 계획으로서는 소화 1944년 말 즉 3년 계획의 완성을 수행하도록 이의 성안(成案)을 금년 11월말까지에는 마무리할 생각이다.

이에 폐회에 즈음하여 각위는 모두 시국 하 극히 다단(多端)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정을 위하여 왕(王)의 어광래(御光來)를 사(賜)한 어후덕(御厚德)과 연일 어열심(御熱心)으로 어심(御審議)을 진력한 노고(勞苦)에 대하여 충심으로 어(御)신(申)상의 어인사(御人事)를 하는 바이다.

### 제1선 황군에 감사전문 결의

시국대책조사회는 폐회에 함에 있어 제1선 황군장병에 대한 감사결의를 만장일치가결 및 오노(大野) 회장의 명의로서 좌와 같이 타전(打電)하였다.

#### 테라우치(寺內) 북지(北支), 하타게(畑) 중지(中支), 오이카와(及川)함대 각 사령관 전(殿)

성전의 전과(戰果) 날로 날로 승대(勝大)하여 한구(漢口)의 함락도 목척(目睫)<sup>8)</sup>간에 절박함을 감격(感激)에 마지 않는다. 이에 본 조사회 총원의 결의로써 귀관과 예하(隸下) 장병 각위의 신고 분투에 감사를 더불어 하여 수만은 순국의 영령(英靈)에 대하여 경도(敬悼)의 뜻을 표한다.

#### 오다카(尾高) 부대장 전

금차 장고봉(張鼓峯)사건 발발에 제(際)하여 귀관 예하 장병의 분투, 잘 적(敵)의 기도(企圖)를 좌절시켜 국위(國威)를 중외(中外)에 발현한 것이 혁혁하다. 이에 본조사회총회의 결의로써 어공로에 대하여 감사와 영령에 대한 경도의 뜻을 포함.

#### 시국조사회 성과

시국대책조사회는 총독부 자문의 18항목에 대하여 대체로 총독부 준비위원회 작성의 시안(試案)대로 답신안을 가결한 바 제1일의 총회와 제2, 제3의 각 분과회에서 각 위원회의 질의응답 의견의 전개(陣開)의 경과로 보면 4일간의 회의는 대륙정책에 대하여 조선의 지위 실력에 대한 일본 측 위원의 인식을 깊이 한 점에 대하여 답신안 작성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 즉 총회와 제1분과회에서 내선일체의 강화, 제2분과회에서 중북지(中北支)의 경제개발과 조선의 연계 기타, 제3분과회에서 북선(北鮮) 문제는 특히

6) 보태고 늘어 도움이 되게 함. 비익(裨益).

7) 환희. 매우 기뻐함.

8) 눈과 속눈썹을 아울러 이르는 말. 아주 가까운 때나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각 위원간의 활발한 심의의 대상으로 되어 이들을 통하여 현하 조선의 시책의 상황과 병참기지로서의 만도의 임무의 중요성 여하가 구체적 숫자와 시설에 의하여 설명된 것은 인접 만주국과 함께 조선이 대륙의 일부분으로서 물심양방에 걸쳐 일본의 전시동원에 기여하는 능력과 필요를 인식시킴으로써 각 방면의 금후의 대일본 절충에는 상당한 효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기대된다.

## 총회의사 경과

시국대책조사회 최종일인 9일 총회는 오전 9시 15분부터 개회, 오노(大野) 회장의 개회의 인사(人事)가 있는 후 각 분과회의 주사로부터 제1, 제2, 제3분과회의 심의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제1항에서 순차 채택에 들어 전(全) 자문사항을 주사 보고대로 만장일치 가결하고 그 다음 일반적 의견과 희망 진개에 들어 소속위원으로부터 “답신안의 구체적 실현에 있어서는 일본, 기타 각 방면과 연계를 보지(保持)하고 □□금(□□金), 물자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 과적인 것부터 실행하기 바란다.”라는 희망의견이 있는 후,

가타쿠라(片倉) 참모는 “선만(鮮滿)의 특수지위 특히 대륙에 있어서 국방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정경제와 물자동원과 계획에 있어서는 일본중심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하고 선만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각 위원의 철저적 인식을 요망”,

□천(□川) 위원은 “가령 자금(資金), 물자의 부족은 극복된다 하여도 현연으로서는 기술자, 노동자등의 인적 방면에 있어서 비상한 결핍을 느낀다. 그런데 일면 현재에 있어서는 너무 인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합리화한다면 반분(半分) 내지 3분의 1의 인원으로서 동(同)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시국 및 장래의 중대 시국에 대응하여 이를 돌파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만지(日滿支)를 통하는 통제 있는 적재적소주의(適材適所主義)를 강화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시에 있어서도 각 방면의 상극(相剋)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40분 간에 걸쳐 열렬한 의견을 진술한 다음,

다케우치(竹內) 위원은 “물질 기타로 보아 답신안이 내용을 일시에 착수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완급에 따라 내선간에 무의의한 □□상극을 피하고 최긴요한 것부터 착수하기 바란다.”라고 희망하고, 향웅(香雄) 위원으로부터 “내선일체가 아국판상(我國版上) 내(內)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 방침의 철저를 기하여 현지 각□□도 이해를 가질 통일 있는 지도를 하기 바란다.”라고 술하고 하전(賀田) 팔전(八田) 양위원으로부터도 총괄적의 의견희망이 있는 후 황실에 대한 감사문을 가결하고 미나미 총독의 인사(人事), 오노(大野) 회장의 폐회사가 있는 후 정오 폐회하였다.

<출전 : 「時局對策調査會終了 答申案은 第一期計劃으로서 明年度부터 三箇年 繼續實施, 南總督 閉會席上宣明要旨, 第一線皇軍에 感謝電文決議, 時局調査會成果, 總會議事經過」, 『東亞日報』, 1938년 9월 10일>

## [2-6]

### 시국대책 답신안, 적극적으로 실시

시국대책조사회의 답신은 사항의 경중완급(輕重緩急)을 고려하여 급속히 실현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먼저 제1기 계획으로 11월까지의 구체책을 수립하여 14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서 실행에 착수하게 되고 일부는 14년도 예산안에 계상(計上)하리라 하며 자금 및 물자의 통제 내지 제한의 현상으로 본다면 과연 어떤 정도로 실현될지 상당한 문제인데 제1기 계획으로 수립된 사항은 모두 직접 시국에 관계된 것이며 미나미(南) 총독도 예산 작성에 당하여 가급적 우선적 취급을 명한 모양이고 관계 사무당국에서는 급히 구체안의 작성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우(右)에 관하여 수적(穗積) 식산국장은 좌(左)와 같이 말하였다.

“일본과 만주에 조선을 인식시킨 것은 회의의 일대 성과이다. 답신의 구체화에 대하여는 자금, 물자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물자와 자금이 뜻대로 안된다고 소극적 태도만 취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긴급을 요하는 것은 적극주의로 기어어 실현시킬 방침이다.”

〈출전 : 「時局對策 答申案 積極的으로 實施」, 『朝鮮日報』, 1938년 9월 11일〉

### 3) 시국대책조사회에 대한 총독 고사(告辭) 요지

금번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를 설치하는데 즈음하여 여러분께서는 시국상 다망하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만사를 제치고 이 위원의 직분을 수락해주신 것은 본직(本職)의 행운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특히 먼 지역에서 와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나사변’은 이미 일년 여를 경과하고 그간 장(蔣) 정권에 대하여 제삼국의 광범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황군’의 무위 당당함은 항일 정권 및 공산당군을 제압하여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위대한 전과를 거두었으며, 또 근래는 우리 국경 지방에 있어서의 소련군의 부당한 침범을 단호하게 일축해서 국위를 중외에 발양(發揚)한 것은 천자의 위광 아래, 황군 전 장병의 지성진충(至誠盡忠)의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개회벽두에 여러분과 함께 황군의 노고에 감사하고, 아울러 순국의 영령에 깊이 추모의 염을 표하는 바입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만주사변 이후에는 조선 경제의 신 동향에 대해서 장래를 판단할 방침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작년인 1936년 가을, 각 방면의 권위자를 모시고 조선산업경제조사회를 개최하여, 금번 참가하신 여러분 중에서도 다수가 위원으로서 참가하여 열심히 토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신 사항은 시정상의 참고 자료로서 유용한 공헌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 ‘지나사변’이 발발하기에 이르러 ‘동야’의 정치 및 경제 사정은 돌연 급변하기에 이르러 제국의 대륙 정책상 전진 병참기지인 조선의 사명도 역시 따라서 광범한 부문에 걸쳐 심대해진바, 더욱더 검토를 요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이래 미증유의 규모로 발전한 현 사변은 작년 여름 노구교(盧溝橋)사건<sup>9)</sup> 돌발 직후 우리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매사에 비상시국의 항구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항일 정권 절멸을 위한 지구전과 신 '지나' 용립의 장기 건설에 직면한 것은 물론, 적화의 공동방위 그밖에 제삼국의 교란책을 배제하고 우리 '동야'정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곤란 역시 중대한 사태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국의 대륙 전진기지로서의 조선이 금후 취해야만 할 시책의 대강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한 준비를 더해 나가기를 요한다고 판단하여, 본 조사회를 설치해서 조야 다수 구성자의 소견을 들어 최적의 답신을 얻음으로써 국책 담당의 임무에 유감이 없도록 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외하는 '천황' 폐하께옵서는 지난 7월 7일 사변 1주년에 즈음하여 우약(優渥)한 칙어를 내리셔서, 이번 사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더욱더 국가의 총력을 다해야만할 까닭을 명시하여 주신 것은 성은이 망극하고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세계대전을 계기로 한 근대전의 본질은 국력 종합전인데, 국가의 모든 힘을 종합하여 이를 국방의 목적에 집중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방력의 근저를 이루는 것은 국민의 정신력과 경제력의 합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힘은 필경 인적, 물적 양 요소로 귀결될 수 있는데, 이 양 요소에 대해서 초지일관 거침없는 정치력을 삼투시킴으로써 총동원의 효율을 올리고 그로 인하여 전시체제의 완벽을 염원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사변 이래 '반도'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 및 물자 총동원 양자 공히 그 시기, 그 방법에서 대체로 중앙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여 전시체제의 강화를 지향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같은 제목 하에 행해지는 시설 혹은 운동이라 할지라도 그 효과를 적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도' 특유의 실정에 입각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며, 금후 '반도'로 하여금 지닌 바의 모든 가능한 힘을 이끌어내어 국가 총력의 구성에 공헌을 기하는 데에는 특히 이 준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의 입장에서 시국 하의 '반도'의 제 동향과 그에 대한 소견의 일단을 개언(概言)해서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인적, 정신적 방면에 대해서 보면 과거 1년간의 인심의 동향은 '황국신민'으로서의 진심의 충만함에 있어서 대단히 현저한 것을 보였습니다. 본직은 취임 이래 역대 당국의 고심을 계승하고 정치적 업적의 계승 발전에 힘써, 특히 '국체관념'의 명징을 시정의 제일 요목으로 걸고 '반도 동포'로 하여금 명실공히 충실한 '황국신민'이 되게 하는 점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오는 바입니다만, 이번 사변이 현실적으로 초래한 자극과 교훈은 만주사변을 기하여 호전되어 온 '반도' 인심 사이에 이상한 감명을 환기시켜, 이미 식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내선일체'의 관념에 의거한 애국의 진심으로 되어 널리 발로한 것입니다. 조선 시정의 한 획을 긋는 의미를 지닌 조선인 지원병 및 보통교육에서의 '내선인' 구별 철폐의 두 제도는 이와 같이 시운의 배경 하에서 실현된 것입니다만, 그러나 '내선일체'를 심화시키고 '반도 동포'가 명실공히 '황국신민'으로서의 실질을 구비하기에는 도저히 오늘날의 이런 정도로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9) 1937년 7월 7일 중국 북경 교외 노구교(盧溝橋) 부근에서 중국군과 일본군이 충돌한 사건으로 중일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성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아(東亞)' 민족의 대단결에 의해서 '동양인의 동양'을 건설하고, '동문동종(同文同種)'의 수억 민생의 복지 증진과 문화 흥륭을 꾀함으로써 우리 개국 정신인 '팔굉일우'의 구현에 매진하는 바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달성의 길목 혹은 '일만(日滿)' 관계의 경우, 혹은 '일지(日支)' 관계의 경우 등 각각 역사와 환경 등에 따라서 그 양식을 달리한다고는 해도, '내선일체'의 현현이 야말로 우리 숭고함이 비할 바 없는 '황도' 원리의 구체화로서 그밖에 민족에 대한 도의적 수범인 것을 실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써, 조선 통치의 목표와 실적 등은 우리 '동아' 경륜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지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 통치의 근본인 이에 진력하면 이는 즉 조국(肇國)의 대 이상인 '팔굉일우'의 황실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안으로는 '일시동인'의 성지를 철저히 하여 '내선일체'를 구현하고, 밖으로 즉 만주사변은 물론 나아가 세계에 우리 '도의 입국'의 대 정신을 떨치는 바가 됩니다.

그런데 세간에서 왕왕 일본 특유의 근본이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국 식민정책의 개념적 척도로써 조선 통치를 재량하려는 자가 없는 바가 아닌데, 이와 같은 것은 생각이 한참 못 미치는 것입니다. 원래 조선 통치의 근본 의(義)는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도의정치로서, 나라가 그 본국의 이익을 주체로 하는 착취정책과는 그 근본의 이념에 있어서 출발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조선 통치가 얼마나 사심 없고, 도덕적인가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사적(事績)으로써 최근 조선을 시찰하는 외인(外人)<sup>10)</sup> 등이 종래에 있어서 그들의 인식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정하러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전에 이탈리아 경제수교사절단이 내조(來朝)했을 때, 그 대표적인 한 단원이 "자신은 조선을 보고 비로소 진정한 일본의 모습을 인식했다. 오늘날의 일본, 내일의 일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을 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또 만주사변 당시 리튼 조사단의 한 위원이 "일본이 만약 조선 통치의 실적을 좀 더 자세히 세계에 이해시켰다면 만주사변에 대한 열강의 인식을 일변시킬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생각 있는 외인이라면 누구나 조선 통치의 특수한 의의를 흘려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어야만 하고, 이 점에 관해서는 우선 '내선인' 스스로의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바입니다. '조선 통치의 참된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대륙 문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직의 굳게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내선인' 쌍방의 자각 증진에 의해서 이 정신을 더욱 깊게 철저히 하여, '내선일체'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경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미 숙성하여 그 방법 또한 결코 빈곤함을 한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상, 정신 위에서 보는 인적 요소의 개선 향상은 '반도'의 광의 국방 또는 산업 경제를 고찰할 경우의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깊이 관심을 두시면서 관계되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고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물적, 경제적 요소에 대해서 보면, 시국 하에 있어서 시사를 받는바 역시 대단히 큼니다.

'팔굉일우'의 정신에 의거하여 이번 '성전'의 유원(悠遠)하면서 위대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국이 부담해야 할 전도의 사태를 천착해 보면, 더욱더 커다란 전시 태세에 돌입하게 될 경우도, 혹은 대륙에서의 장기 건설 수행에 있어서도, 더 한층 광범하고 또한 견고한 물적 자원의 충실을 급선무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륙 전진 병참기지인 반도의 사명에 비추어, 이들의 사단에 대비해서 유감이 없도록 계획의

10) 외국인과 같은 의미지만 일본 중심적인 이미지가 강함.

철저한 강화를 꾀하는 것의 긴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견지에 서서 고찰하자면 우선 제국의 전시 경제에 있어서 국민 식량의 자급자족의 안전감이 가져오는 바와 '반도'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나아가서 광의 국방에 입각해서 '일만지' 경제블록 상에서 접하는 '반도'의 직능을 고찰하면, 농림, 수산 등 식량 및 원료 생산 부문에서 농산어민의 복지 증진과 맞물려서 이들 자원의 배양 증식을 최대한도로 기도하는 길이 이번 기회에 충분히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 공광업의 확충 증산에 대해서 고찰하면 '반도'의 금후 사명은 나아가 더 한층 큼니다. '반도'의 지리적, 자원적, 국방적, 인적 제 조건을 종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제국의 전진 병참기지로, 혹은 '지나'의 경제 개발에 대한 협력의 임무에 있어서, 여기에서 '내지' 산업의 대륙 진출의 토대로서의 일대 중심지를 형성하는 것은 필연적인 귀추(歸趨)로서 다수 식자가 일찍부터 통감하는 바입니다. '내지' 산업의 대륙 진출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선일체' 심화를 위해서 '내지인'의 '반도' 이주를 유도하고, 한편에서는 입체전 시대의 국방적 견지에서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공업, 정밀기계 공업 등의 고도 산업을 '반도'에 일으켜 국내 산업 구성의 지리적 분포 상태를 대중적 국책의 노선에 따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오래 동안 주로 '내지' 자본 및 기술의 주입에 따라서 포육(哺育)되어 성장해 왔던 '반도'공업의 발전 경과에 비추어, 관계 식자 및 기업가에게 부과되는 중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의 광산업이 풍요한 지하의 처녀 자원 개발의 임무를 띠고 산금 사업을 시작으로 국가 재정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부문에 있어서도 더욱더 속도를 높여서 국가의 급한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는 '내선' 기업가의 적극적 진출을 필요로 하는 바입니다. 단 작금의 정세는 이들 공·광업 진흥에 필요한 자재 부족을 개탄해야 할 상황입니다만, 가능한 한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나라의 조성책의 적실(適實)과 발맞추어 그 최선을 기하는 것이 시국에 대하여 감내하는 국민의 시무라고 믿는 바입니다.

제작년 개최된 산업경제조사회에서는 농림수산업·광업·공업·상업·무역·금융·교통 등 제반에 걸친 '반도'의 산업경제 진흥책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져, 이 기록은 시정상 지극히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사변이 초래한 '동야'의 제 사정 격변 및 전시 국책상의 통렬한 요구 등을 거울삼아서, 심연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시국을 전제로 해서 새로이 이들의 제 문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바,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실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국의 중대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만, 전번 일소(日蘇) 간에 일대 충돌을 잉태한 장고봉사건(張鼓峰事件)<sup>11)</sup>은 우리 '북선' 국경과 일의대수(一衣帶水)<sup>12)</sup>의 강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이도 황군의 총렬한 위무(威武)와 외교 교섭이 잘됨으로써 일시적으로 해결되었다고는 해도, 상대방에 흑심이 있는 한 제2, 제3의 유사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 우리 국민의 인내력을 극점에 도달하게 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우리 '북선'지방의 특수한 중요성은 다시 검토해야 하

11) 1938년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일본 점령하의 조선, 만주국, 소련 접경인 두만강의 하산에서 벌어진 국경분쟁.

12) 한 줄기 떠 모양을 한 좁은 물의 흐름이나 해협.

고, 도로·항만·항공·통신·철도 등 제반 시설은 모두 국방의 안전 강화를 주안점으로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준비를 특히 필요로 하는 바입니다.

이를 요건대 조선통치의 현 단계로서 그 부가된 책무를 깊이 거울삼고 정신적 방면에서도 물질적 방면에서도 지금 바로 획기적인 태세를 정비하는 것이 긴요한 때라고 믿기에, 이의 대책에 대해서 중지를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 조사회 자문사항의 범위는 본직이 생각하고 있는 획기적 계획의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닙니다만, 모두 인적, 물적 양 요소에 걸쳐서 국책적 사명으로써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통찰하실 것을 바라고, 신중한 준비하에 심의에 진력하시기를 간절히 요하는 바입니다.

본직으로서의 물론 본회 성과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걸고, 제 심중에 있는 근본 방침에 일치·적합한 제 시책을 취함으로써, 이의 실현을 기하고, 사항 여하에 따라서는 총독부의 영구적 시정 방침으로 삼을 각오로 있는바, 관민의 두 입장에서 중지를 모아 서로 함께 실행하기 편히 도모하고 싶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938년 9월 6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출전 :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に於ける 總督告辭要旨」, 『朝鮮』 281호, 1938년 10월, 203~212쪽〉

#### 4)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자문답신서(시국대책조사회 회의록)』(1938)

1938년 9월 비(秘)

###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자문답신서

조선총독부

#### 제1. '내선일체'의 강화·철저에 관한 건

조선 통치의 근본은 '반도 동포'로 하여금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에 근거한 광대무변한 '천황'의 은덕을 받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완전한 '황국신민'화를 꾀하여, 추호의 간극 없이 내선의 일체를 조성하고 장래 복잡다기하게 전개될 때 시국의 어려움에 대처하여 제대로 제국의 대륙경영의 병참기지로서의 사명을 완수함과 동시에 나아가 '팔굉일우'<sup>13)</sup>의 건국의 대정신을 선명히 나타내는 데에 있다.

따라서 시국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물심양면의 시조(施措) 방책은 모두 다 이를 통하여 본래 취지로

13) 온 천하가 한집안이라는 의미에서 일제가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말한 구호.

하고 특히 민중의 정신적 지도 계발 방도는 모두 위<sup>14)</sup>에서 밝힌 정신에 출발점을 구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국에 대응하여 거국일치 정신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하여 위의 정신을 굳건하게 배양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점을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가급적 빠른 보급을 꾀하고 국체명징(國體明徵)<sup>15)</sup>, '내선일체', 인고단련(忍苦鍛鍊)의 3대 교육방침을 철저히 하여 완전한 '황국신민'의 육성을 기함과 동시에 일반 민중에 대해서도 더욱 국체 관념을 명료하게 해서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을 철저히 하여 일상생활에서도 그 실천화를 꾀하고 합리화, 풍속의 융화 그 밖에 각각의 생활 국면에 걸쳐 '황국신민'화를 목표로 시조 방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건은 조선 내에 있어서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지(內地)<sup>16)</sup>, 만주, '지나(支那)<sup>17)</sup> 그 밖의 조선인이 거주하는 지방에서는 본 취지에 의거하여 실시함으로써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당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위의 근본 방침에 의거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요(大要)는 아래<sup>18)</sup> 방침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시설계획

### 1. 조선 통치 정신을 천명할 것

조선 통치는 일시동인의 성지를 몸에 품고 '팔굉일우'의 개국 대 정신을 천명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조선은 외국에서의 이른바 '식민지'의 관념으로써 말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내선'을 불문하고 국민 일반의 뇌리에 각인시킴과 동시에 나아가서 위의 대 정신에 입각하여 도의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을 중외에 천명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그 구현을 기할 것.

### 2. 국체관념의 명징(明徵)을 꾀할 것

1) 경신(敬神)의 염을 한층 민중에게 확산하기 위해 적절한 방도를 강구할 것.

(1) 국난에 순사한 자를 제신(祭神)으로 하는 초혼사(招魂社, 가칭)를 국비로 창립하여 충군애국의 모범으로 삼을 것.

(2) 신사에 '신찬전(神饌田)<sup>19)</sup>을 설치하게 하여 민중에게 신의 후손 정신의 함양을 꾀할 것.

2) '폐하' 영정 봉배의 기회를 매우 많은 대중에게 줄 수 있도록 고려할 것.

### 3. '내선(內鮮)'의 역사적 관계 천명할 것

1) 국사 및 조선사를 통해서 '내선'의 국교, 문화의 교류, 혈연의 교차 관계를 분명히 할 것.

14) 일본어 원문은 중서이기 때문에 '오른 쪽'으로 서술된 것을 '위'로 바꿈. 이하 마찬가지.

15) 일제가 천황제 국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내세운 국가 개념.

16) 구 일본제국의 지역개념으로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등 변방을 제외한 일본 본토.

17) 구 일본제국주의가 중국을 차별하여 쓴 말.

18) 일본어 원문은 중서이기 때문에 '왼 쪽'으로 서술된 것을 '아래'로 바꿈. 이하 마찬가지.

19) 신사에 공양하는 백미를 재배하는 논을 신찬전이라 한다.

2) 백제, 신라, 고려, 임나 등 일본과 연관성이 깊은 지방에 박물관 설치 혹은 향토사 연구회 등을 조직시켜 '내선인'의 교통 및 혈연적 관계 인식을 심화시킬 것.

4.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철저를 기할 것

1) '반도' 민중을 일관적인 정신 하에 조직화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금후 민중지도의 근본으로 삼을 것.  
2) 전 '반도' 민중으로 하여금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을 철저히 지니게 하여 지성으로 봉공하는 결실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

3) '내선일체'의 신념을 함양 할 것.

4) 각 사회 계층에 있어서 '내선 인간'의 대우 차이에 대해서도 '내선일체'의 강화 철저에 따라서 점차로 제도와 그밖에 실제상의 취급도 개폐(改發)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것.

5) 전 '반도' 민중을 단련하여 근로 보국 정신을 양양 할 것.

6) 거국일치 시간(時艱) 극복을 강조할 것.

7) 국민정신총동원운동 각 기관 기구를 정비할 것.

(1) 본 부(府)<sup>20)</sup> 및 지방청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사무를 담당시킬 전임 직원을 배치하여 기존의 관계 행정부문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고 본 사무 수행을 도모할 것.

(2) 민간에 있어서 국민정신총동원 단체로서 이미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및 동 지방 연맹을 지도하고 원조하여 그것의 적극적이면서 유기적인 활동을 촉진하여 당국과의 연락을 긴밀하게 할 것.

5. 교육 보급 및 쇄신을 도모할 것

1) 조선인 초등교육 기관의 확충을 계속해서 단행하고 가급적 조속한 교육 보급을 꾀하여 개학(皆學)<sup>21)</sup>의 이상 실현에 매진할 것.

2) 국어 보급을 빠르게 이루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조선교육령 및 각 학교 규정 개정의 취지를 더욱 철저히 하여 교육 진흥을 꾀할 것.

4) 학교교원에게 교학 쇄신에 관한 철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시류에 즉각 대응하는 지방교육의 중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 청소년의 훈육 및 지도를 통제할 것

1) 청년 훈련소의 보급 확충을 꾀하여 청년의 규율 훈련을 더 한층 투철하게 할 것.

2) 1938년 조선연합청년단의 결성을 계기로 해서 '전선(全鮮)'청년단의 보급 및 내용 충실을 꾀하고 이들의 지도 통제를 더 한층 강화하는 것의 의의를 담아 단원으로 하여금 마치 '내지'의 징병제하에 있는 것과 같은 심경을 지니게 하여 거듭 근로보국 정신의 함양을 꾀할 것.

20) 조선총독부.

21) 국민 모두를 교육시킴.

3) 도시에서 소년단 보급을 피하여 점차 농·산·어촌에 미치게 하여 청년단과의 연락을 밀접하게 함으로서 지도 통제에 모자람이 없도록 할 것.

7. 근로보국대의 확충 강화를 피할 것

1938년 7월 결성된 학교 및 일반 민중의 근로보국대는 이를 더욱 확충 강화하여 애국의 열정에 불타는 공공적 근로에 봉사시켜, 이로써 국가 관념을 강화하고 근로우애, 인고단련, 공동일치, 희생봉공의 정신을 조장 강화하여 아울러 체력의 증진과 지방의 개발에 자원으로 삼을 것.

8. 일상생활의 '내선일치'를 강화할 것

- 1) 축제일의 본의(本義)를 철저히 할 것.
- 2)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를 철저히 보급하고 '황국신민' 체조의 보편화 장려를 피할 것.
- 3) 황기(皇紀) 및 황국 연호 사용을 여행(勵行)할 것.
- 4) '내선일체'를 저해하는 것과 같은 문서, 언동, 서적, 영화음악 등의 단속을 한층 철저히 할 것.
- 5) 국어 생활의 여행에 힘써 의, 식, 주에 관한 일상생활상의 풍속습관의 '내선' 혼화(混和)를 피할 것.
- 6) 무도 보급 장려를 피하여 일본정신의 체득, 심신 단련에 기여하게 할 것.

9. '내지인' 증가를 피하여 그 정착을 여행하는 방도를 강구할 것

10. 내선인의 통혼을 여행할 적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

11. 불교, 유교, 기독교 그 밖의 유사 종교로 하여금 일본정신에 합치하도록 노력하게 할 것

12. 지원병 제도 실시 정신 보급 철저를 피할 것

지원병 제도 실시가 조선 민심에 주는 영향을 비추어 고려하여 본 제도의 정신을 철저히 보급하여 더욱 국가 관념의 계배(啓培)에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제2. '북선(北鮮)<sup>22)</sup>의 특수성에 대응할 방책에 관한 건

만주국 및 '북지(北支)<sup>23)</sup>의 개발 촉진에 수반하여 조선은 대륙 진출의 우리 병참기지로서 더욱 중요성을 더해왔는데, 특히 일만(日滿) 연락의 첩로(捷路)에 해당하고 더욱이 소련과 국경을 접하는 '북선'은 그 지리적 특수성에 비추어 동 지방이 담당해야 할 중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즉각 대응할 제반 대책의 급속한 수립을 요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게다가 일전의 장고봉(張鼓峰)사건<sup>24)</sup> 발발

---

22) 조선 북부지역.

23) 중국 북부지역.

24) 1938년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일본 점령하의 조선, 만주국, 소련 접경인 두만강의 하산에서 벌어진 국경분쟁.

등 긴박한 사태에 비추어 임시변통 수단이 허용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그 구체화는 초미의 긴급 임무에 속한다.

이들 제 대책은 동 지방이 유사시에 직면하여 임전지대로 된다는 특수성에 비추어 오로지 국방을 근간으로 하여 전쟁이 발생함에 임하여서는 제대로 그 전 기능을 발휘하여 작전상 및 행정상 아무런 불안이 없도록 미리 그에 대하여 대비해 둘 것을 요한다. 처음부터 군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 그 방침에 순응해서 군사적 제 시설의 구체화에 수반하는 그 실현을 꾀하지 않으면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고는 할지라도 동 지방의 담당할 특수 사명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점에서 대요에 있어서 아래 방침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됨.

1. 일소(日蘇) 양국의 긴박한 정세에 비추어 우리 위대한 국력을 접경지 각종 시설을 통해서 알게 하여, 만약에 불화에 편승해서 축수를 뺏치려고 책동하는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야망에 대해서 예봉을 좌절시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확보할 정도까지 필요한 시설을 정비 강화를 요함.

2. 일단 교전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 행동은 모두 군의 임무이다. 전장이 '선내(鮮內)' 깊숙이 연장되는 것과 같은 사태는 우리 군의 무위(武威)로 볼 때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임전지대로서의 수동적 방위 및 배후에 있어서의 전면적 지원 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진용 정비를 요함.

3. 일반 지방민으로 하여금 평소보다 유사시에 있어서의 대비를 견지하게 하여 일단 사태가 발발하여 전화가 가령 우리 국토에 미칠 경우라 할지라도 평정을 찾고 침착하게 당국의 조치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게 함으로써 국내 민심의 동요, 혼란을 최소한도로 방지하여 평화가 초래 시까지 오랫동안 '총후(銃後)<sup>25)</sup>'의 질서 유지 확보를 요함.

'북선'지방에서의 현재 기구 및 시설에 대하여 이상의 여러 점들을 고려한 보강 대책 수립을 요함.

## I. 경비, 위생

### 1. 경비기구 및 시설

#### 시설계획

##### 1) 경찰관 증원 및 경비 기구 개선을 꾀할 것

경비력 보강 대책 중 주된 수단은 경찰관의 증원이다. 실로 유사시에 비상사태의 수습에는 강대한 경찰력이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방공(防空), 방첩, 군사 기밀 확보 등에도 충실한 경찰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이 소요되는 요원을 증원하여 근본적으로 경비 기구를 개선하여 전시에 대처할 특별경찰 계획을 수립하여 둘 것을 요함. 그리고 이들의 배치 방법은 남양(南陽) 이하 두만강가의 각 경찰서 및 웅기(雄基), 나진, 청진의 연안 세 경찰서를 제1선, 중성(鐘城) 삼장(三長) 간 국경 각 경찰서 및 나남(羅南), 부령(富寧)의 두 경찰서를 제2선, 그 외를 제3선으로 해서 정비한다. 나아가서 남부의 길주(吉州), 명천(明川), 성진(城津)의 세 경찰서는 사상 악화지

25) 직접적인 교전 지역이 아닌 후방.



대로서 별단의 고려를 요함.

2) 방공 방비 시설 및 무기 방구(防具)류를 정비할 것

사단 발발로 인해 임전 지대가 될만 한 지방에 있어서는 경찰관도 일시적으로 근무지가 폭격에 노출되어 전투원으로서 나서야만 할 경우도 각오해야만 함. 따라서 경찰관의 사기 진작 상 평시에 해당 지역 내의 경찰서에 청사, 숙사 및 주위 지물에 완전한 방공 방비 시설을 갖추고 고사기관총 및 방공기재, 총기, 탄약 기타 무장구류를 조달 보유하게 할 것

3) 경비 통신 시설을 정비할 것

공습 혹은 재해 등의 경우를 고려해서 본부, 도청 간은 이것을 무선화하고 그 밖의 주요 구간에 대해서도 무선 혹은 지하 케이블로 하는 것을 요하며 또 임전지대로서 상정될만한 지방에 대해서는 비상시 용 휴대무선 시설을 해 둘 것.

4) 교통 운수 기재를 정비할 것

사변 하의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특히 경찰관의 응원 수송, 배치전환 및 탄약 양식 등 필수품의 운반상 필요한 자동차 그 외 운수 기재를 정비할 것.

5) 해상경비 시설을 정비할 것

소련의 동향에 맞추어 방첩 및 활동에 있어서 해상 경비는 최근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는 실정에 따라 신속히 신예 고속선 및 수상 비행기를 신조(新造) 배비(配備)함과 함께 주요항만 및 두만강 가 주요 요소에 고속의 소형선 배비를 요할 것.

6) 각종 자위적 단체의 조성을 꾀할 것

비상사태의 수습 또는 군사 행동에 대한 배후 지원 등에는 소방조, 자위단 그 밖의 지방에서의 각종 자위적 단체의 협력에 기대지 않으면 도저히 소기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상호 간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부단한 지도 훈련에 의해서 이를 통제지도 할 것.

## 2. 고등외사(外事) 경찰 대책

함경북도에서의 사상 정세는 1936, 37년도에 걸쳐 남부 평야지대 3군에 걸쳐 검거된 관계자 2,100여 명에 달하는 미증유의 공산주의 사건을 비롯해 크고 작은 동일사건의 발생을 거듭해왔다. 덧붙여 외국 간첩의 도량(跳梁)이 왕성하여 '선내' 외첩 사건의 태반은 동도(同道)에서 검거되고 있는 등의 실상에 비추어 고등외사 경찰상의 대책도 평화 시와 전시 양쪽에 있어서의 상태를 고려해서 아래 사항을 실시하는 것을 요함.

### 시설계획

1) 방공 대책을 수립할 것

함경북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목하 일·소간의 국제 관계 등에 비추어 아래의 철저한 방공 대책을 수립 할 것.

사상 사건의 철저한 조기 검거 및 단속 강화를 꾀할 것

방공단을 조직할 것

2) 방첩 대책을 수립할 것

외첩의 도량이 극심한 실상에 비추어 아래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방지하는 데에 만전을 기할 것.

방공단에는 방첩활동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조직이 없는 지방 혹은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는 방첩단을 조직하게 할 것.

방첩 특수 지대 설정

두만강 연안 지대 및 군사상의 중요 지역을 방첩 특수지대로서 지정하고 방첩 활동을 집중 강화할 것.

3) 국경 왕래자의 단속 철저를 기할 것

공산주의 운동 혹은 외첩의 목적을 지니고 관현의 시선을 피해 잠입하는 자에 대한 검찰 철저 및 항만, 철도, 교량, 도선장 등에 대한 단속을 엄중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일반 통행자에 섞여서 '입선(入鮮)'하려고 하는 불령분자의 적발 검거에 노력할 것.

### 3. 위생대책

시설계획

1) 이동식 천막 병원을 설치할 것

설비 제재료 및 의료용 기기, 기구, 약품을 준비해두고 동시에 본 병원의 요원인 의사, 약제사, 간호부 그 밖에 직원의 동원 계획을 수립할 것.

2) 구료(救療) 약품의 배급을 철저히 할 것

경상자를 구료하기 위한 적당한 약품을 배급할 준비를 해 둘 것.

3) 음료수의 안전 확보를 기할 것

상수시설 특히 수원지, 여과지(濾過池) 등의 보호 경계의 만전을 기하고 수도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의 대책으로서 현존하는 우물을 조사해서 부족한 경우는 우물을 증설함과 동시에 수도 없는 지방에서 우물 조사 및 필요한 곳의 우물 증설을 하고 불량수 여과기구를 준비할 것.

4) 전염병 예방에 유의할 것

예방약, 혈청, 진단액류의 배급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세균의 조사 단속을 엄중하게 하여 세균전 등에 대한 경계를 충분히 유념할 것.

## II. 방공

'북선'지방은 국경 접경지 이외에서도 중요 광산, 중요 공업지 및 발전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해공군의 작전 근거가 될 여러 요지를 포함해 공습하기 좋은 목표가 되는 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 요지의 방공 완비 여부는 직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으로써 이에 대한 방호 시설

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조선중앙항공위원회 내에 이에 대한 전문위원을 설치하여 대  
요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따라서 조사 심의한 후 방공계획을 수립하여 점차로 실행에 옮기기를 요함.

## 시설계획

### 1. 방공 감시 시설을 확충할 것

- 1) 중요 지점에서 감시초소 및 감시대 본부 건물을 폭발에 견디는 건축물로 할 것
- 2) 해상 감시선을 설치할 것
- 3) 관설(官設) 감시원을 설치할 것  
중요 지점에서의 감시대 본부 및 감시초소의 근무원은 이를 관설로 하고 상치(常置)할 것.

### 2. 방공 통신 시설을 정비할 것

- 1) 정보 통신 시설을 정비할 것  
접경지대에서 정보 통신선의 피해를 국부적으로 그치게 할 수 있도록 통신선의 가설을 방사선 상  
으로 함과 동시에 지하 케이블로 하고 또한 유선의 사고를 고려하여 휴대무선 시설을 설치할 것.  
또한 해상 감시선으로부터의 통신시설로서 무선 설비를 할 것.
- 2) 그 밖의 방공 통신 시설을 충실히 할 것
- 3) 중요 통신 기관의 내폭 장치를 할 것
- 4) 방공용 무선 전신 전화 및 라디오의 확충을 꾀할 것

### 3. 등화관제의 통일을 꾀할 것

- 1) 중요 도시에 있어서 옥외등의 통일 관제를 할 것
- 2) 중요 시설 및 특수 화염의 등화관제에 대한 시설을 할 것
4. 중요 도시 및 중요 시설에 대하여 방호 시설을 강구할 것
  - 1) 중요 관청의 내폭 장치를 할 것
  - 2) 중요지에 방공 기구(氣球)를 설치할 것
  - 3) 중요 도시에 방화 시설, 급수 두절 방지, 피난 구호 시설 충실, 군사(軍事)에 공용할 수 있는 제  
시설의 충실, 통신 계통의 안전에 관한 시가지 계획을 세울 것
  - 4) 방공 건축 규칙을 제정 실시하여 중요 도시의 건축을 방공 건축으로 함과 동시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방공에 응할 수 있도록 개축 지도를 할 것
  - 5) 소방력 강화를 꾀할 것
  - 6) 방공에 대한 의료 기관 충실을 꾀할 것
  - 7) 방호단 강화 및 방호 설비자재를 정비 할 것
  - 8) 공중 폭격에 따른 피해복구 재료의 정비 및 복구반 편성을 할 것
  - 9) 중요 시설 즉 중요 항만, 국제교(國際橋), 비행장, 방송국, 발전소, 중요 공장 그 밖에 중요 시설의  
위장 및 방폭(防爆), 방화, 방독 등의 방공 설비 및 자재를 정비할 것

10) 교통 기관에 대한 방공 시설을 할 것

철도 방공의 강화를 위한 경보 전화 시설의 충실, 등화관제 배선 시설, 중요부의 위장, 소방 설비의 충실, 음료 및 기관차 급수 예비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시설을 할 것.

11) 방공 기구를 확충 할 것

12) 군 방공에 대하여 요망할 것

국민 방공은 군 방공과 상호 관련하는 것임으로 중요지 및 시설에 대하여 군 방공 완비를 요망할 것.

### III. 교통

#### 1. 철도 대책

##### 시설계획

1) 나진항을 종단(終端)으로 하는 선로 개량 및 증설을 할 것

나진항 부두 시설에 대응해서 시속 80킬로미터, 수송 능력 제1기 400만 톤(이 중 100만 톤은 '선내 수송) 제2기 800만 톤(이 중 200만 톤은 '선내 수송)을 목표로 해서 남양(南陽), 나진 간 선로를 개량 및 증설할 것.

2) 고 무산(古茂山), 청진, 나남(羅南) 간 선로 개량 및 증설을 할 것

무산 철광 개발에 수반하여 수송력을 증대하기 위해 고 무산 수성(輸城) 간에 선로를 증설하는 것 이외에 고 무산, 청진 및 나남 간 선로의 개량을 할 것

3) 청진 나진 간 선로를 건설할 것

본선은 함경선과 나진을 연락하는 최단 경로로서 시국 대책 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선 중 산악 지대는 광산물이 적지 않다. 또 연안 일대는 어획량이 어마어마하여 이들 자원을 개발함과 동시에 '북선 3항의 연락을 긴밀하게 할 것.

4) '북선' 철도 위탁 경영을 재검토 할 것

만철(滿鐵)에 경영을 위탁한 '북선' 철도는 그 뒤에 동 만주 지방 개발과 '북선'의 정세 변화에 따라서 그 경영에 거듭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관계 당국에서 다음 취지에 의거하여 협의를 진행해주길 바람.

#### 2. 도로 대책

##### 시설계획

1) 국방 도로의 축조 개량을 꾀할 것

함경북도에서 도로망의 완성은 최급선무이기 때문에 1937년도부터 4년 계속 사업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일부 노선의 공사 시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계획으로서는 국방상 방치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므로 더욱 중요한 노선을 추가하여 도로망 정비 충실을 꾀함으로써 군 행동의 민활함을 기할 것.

- 2) 옹기, 나진 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축조할 것
- 나진 경우 옹기, 청진 간 도로 총연장 110킬로미터, 도로 폭이 8미터로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축조할 것.

### 3. 해운 대책

#### 시설계획

##### 1) 일본 해항로(海航路)를 조정할 것

나진 니가타(新潟), 나진 쓰루가(敦賀) 간 '일만' 직통 항로 정비 확충을 피하고 아울러서 '북선' '우라 니혼(裏日本)'<sup>26)</sup> 간의 기존 로컬 정기항로의 일원적 통제를 하기 위해 대요에 있어서 아래에 따를 것

- (1) 일본항로에 종사하는 기설 정기항로 경영자 자격으로 주도적 구성요소로 하는 일본법인의 신 회사를 설립할 것

##### (2) 경영 항로의 정비 확충을 피할 것

###### ① 간선 직통 항로

우선 니가타 나진 간 및 쓰루가 나진 간에 총톤수 5,000톤급 배를 배치하여 격일 항해의 실행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 화객(貨客) 이동 실정에 응하여 점차 선형(船型) 및 속력 증대를 피하고 매일 항해에 도달시켜 명실공히 '일만' 연락의 최단 첩로가 되게 할 것.

###### ② 로컬 항로

전술한 간선 항로의 정비와 함께 그 밖의 '북선' 제 항구와 '우라 니혼' 제 항구와의 연락 발전에 있어서도 심분 고려하여 기설 로컬 항로의 중복적 시설에 대해서는 배급 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더 한층 배선의 충실을 기할 것.

##### (3) 항로에 대한 조성을 할 것

정부는 간선 직통 항로뿐만 아니라 로컬 항로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적절한 조성 조치를 강구할 것.

##### 2) 나진항 부두 설비를 완비할 것

제1기 공사에 이어서 점차 제2기 600만 톤 능력을 보유한 설비를 완성할 것.

##### 3) 대형 선거(船渠)를 건설할 것

'북선' 3항의 급속한 발전을 피하고 '일본해'<sup>27)</sup>에 있어서 해운의 신장과 국방 강화를 위해 '북선'에 대형 선거 및 부속 설비를 완비하여 아울러서 선용(船用) 기관 제작 설비를 시설할 것.

##### 4) 무선 방위 신호 설치 그 밖의 항로 표식의 충실 및 강화를 피할 것

- (1) 무선 방위 신호를 신설할 것
- (2) 등대를 신설할 것
- (3) 연무 신호의 강화를 피할 것

26) 동해 쪽 일본 지역.

27) 동해를 의미함.

5) 나진 경우 교통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해륙 운임 그 밖의 제 비용 저감(低減)을 꾀할 것

#### 4. 항공대책

##### 시설계획

1) 항공로의 신설 확충을 꾀할 것

청진-연길-목단강 선을 신설할 것.

도쿄-가나자와(金沢)-청진-신경선 급행 편을 신설할 것.

‘북선’을 중심으로 한 지방선을 정비 확충할 것.

2) 비행장의 설비 확충을 꾀할 것

청진 및 함흥 비행장의 확장 정비를 꾀할 것.

길주, 북청 불시착륙장의 정비를 꾀할 것.

3) 항공표식 및 비행장의 방호 시설을 할 것

경성, 청진 간 및 평양, 함흥 간에 항로 등대를 설치할 것.

함흥 비행장에 야간 조명 시설을 할 것.

청진, 함흥 비행장에 지하 연료통 및 지하 피난소를 설치할 것.

4) 항공 통신 시설 정비를 꾀할 것

청진, 함흥, 길주에 비콘(Beacon), 계기착륙 장치 및 대지(對地) 통신시설 등 신설 혹은 증비할 것.

5) 기상 관측 시설을 확충할 것

함흥, 청진, 용기 측후소(測候所)의 관상 시설을 확충할 것

#### IV. 통신

##### 시설계획

1. 기상, 방공, 항공 등 특수 통신망을 정비할 것

항공 기상 관측소 및 이들 통신의 정확, 신속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또 적 공습에 대한 방공 통신 시설 및 비행장 상호 간 및 대공 통신 설비는 ‘북선’ 지방의 특수 사정에 비추어 특히 이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상 통신용 전신선 신설, 방공 통신용 회선 신설 및 대공 통신시설을 행할 것.

2. 비상시 예비국을 설치할 것

공습을 받아 통신 전화망이 파괴되었을 때 주요 통신의 두절을 방지하기 위해 ‘북선’에 서의 전신 전화 회선의 집중국인 청진에 예비국을 설비하고 그 외 주요 지국 간에도 간이 예비국을 설비할 것.

3. 비상시 연락용 무선 통신 시설을 정비할 것

유선 통신망이 파괴된 경우의 응급 통신로로서 청진 대 경성 및 도쿄 간에 강력한 무선통신로를 개설하거나 주요지를 연락하는 소규모 무선통신시설 및 차량용 소형 무선통신 시설을 할 것.

#### 4. 경성 남양 간 및 두만강 연안 선로의 케이블화를 피할 것

현재 회선은 가공나선(Open wire)으로서 자연적 원인에 의한 장애가 많을 뿐 아니라 유사시의 폭격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파괴되기 쉽기 때문에 주요 간선 선로를 케이블화로 하여 통신의 안전 견고를 피할 것.

#### 5. 전신 전화 회선의 정비를 할 것

전 호의 주요 간선로의 케이블화와 함께 이를 이용해서 전신 전화 회선의 증설을 행함과 동시에 핵 케이블화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응급 시설로서 전신 전화 회선의 긴급 정비를 해 둘 것.

#### 6. 통신 단속 강화를 피할 것

1) 우편 전신 전화의 철저한 검열 단속을 행하기 위하여 주요 국에 단속 요원을 배치할 것.

2) 무선 통신에 의한 불온 통신의 단속을 강화할 것.

무선 통신 및 무선 전화에 의한 불온 통신 감청 설비를 확충하고 나아가서 주요 지에 소규모 감청 시설을 신설할 것.

#### 7. 방송 시설의 확충을 피할 것

1) 청진에 대전력 방송국을 설치할 것

최근 소련에서는 모스크바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대전력 설비를 지니고 공산주의 선전에 힘쓰고 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및 하바로브스크 방송국과 같은 것은 상당히 강력한 전력으로서 조선어 및 지나어 방송을 해서 시베리아 재류 조선인의 적화를 피하고 조선 및 만주의 치안을 교란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변<sup>28)</sup> 이래 그 활동이 왕성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청진 지방에 대전력 방송국을 설치할 것.

2) 외래 전파의 교란 설비를 할 것

전 호 대전력 방송국의 설비와 함께 '북선' 주요 도시에 위험 전파의 침입을 막기 위한 소규모 전파 교란 시설을 설치하여 민심의 안정 치안 유지에 기여하게 할 것.

3) 청진 방송국에 '국어',<sup>29)</sup> 조선어의 이중 방송 장치를 설비할 것

## V. 나진(羅津)에 대한 시설

### 시설계획

1. 시가지 계획 사업 시행을 피할 것

나진의 중심 지구에 대해서는 시가지 계획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거듭 장래 '북만' 지방의 개발에 따

28) 중일 전쟁.

29) 일본어. 이하 마찬가지.

라서 각종 공업 발흥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접지인 옹기읍도 포함시킨 종합계획을 실시할 것

2. 도로 축조 개량을 피할 것

- 1) 나진동 지내(地內) 도로 축조 공사.
- 2) 나진, 옹기 간 도륙 개수 공사.
- 3) 간선 가로 포장 공사.
- 4) 시가지 계획 가로 축조 공사.
- 5) 군마 보충부 용지 자리 건축 부지 조성 공사.

3. 연안 무역 부두의 설치, 어항의 부설 및 그 밖의 확충을 할 것

4. 상수도 계획을 수립할 것

나진의 인구 증가 및 각종 공업의 발흥에 대응하는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계획을 실시를 요함.

5. 군마 보충부 용지를 개방할 것

나진 부근에 있는 군마 보충부 용지를 개방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옹기에 있어서의 용지 개방을 피할 것.

6. 토지 이용 촉진을 피할 것

나진 부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과세 정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부의 발전상 특히 중요한 지구 내에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는 그 소유자에게 일정 기한을 부여하여 이용을 촉구하고 그 기한을 그냥 초과할 경우는 행정청이 해당 토지를 관리, 수용 혹은 교환하여 이용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식의 조치를 취할 것.

7. 면양모를 원료로 하는 공장, 관영 공장, 만주 특산 공장을 설치할 것

펠프 공장, 섬유공장(펠프 원료), 멸치 가공장, 제빙, 냉동 공장, 기계 제작 조립 공장, 전매국 공장, 면양모를 원료로 하는 공장 및 만주 특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장(유방(油房))의 설치를 피할 것.

8. 교육 기관 확충을 피할 것

나진 발전성에 비추어 점차 중등학교, 고등여학교, 각종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 등의 설치를 요함.

9. 부영(府營) 주택의 경영, 택지 건축 자금 공급을 주선 할 것

10. 금융 기구 및 상공회의소, 거래소, 시장 그 밖의 상업 기구를 정비할 것

금융 기구 등을 정비하고 상공회의소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 거래소에 대해서 현행 제도는 회원 조직에 의한 것 이외에 설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진의 현상을 고려하여 회원 조직에 의한 설립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도를 고쳐 주식 조직 혹은 국영 거래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의 실현을 피할 것.

11. '일만' 간 물자 교통에 대한 장애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만' 통관 사무의 일원화, 기타 통관 사무의 간소화를 피할 것



### 제3. 조선, 만주, '북지' 간의 사회적 연계 촉진에 관한 건

'일만지'<sup>30)</sup> 간의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sup>31)</sup>의 대륙 정책 수행 상 몹시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조선은 지리적 관계 및 '내선일체'의 통치 방침이 '팔굉일우'의 국시를 현저히 드러낸다는 점에 비추어 '선만지(鮮滿支)' 문화의 교류 접합을 꾀해야한다. 이를 통해 본 목적 달성 상 가장 첩경이며 또한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학예 미술 분야는 일국 문화의 추축(樞軸)으로서 직접 간접으로 민중의 생활 감정에 닿는바 가장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의 제후 원조는 특히 신중 그 적정을 기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만지' 양국에서 교육 상황이 어떠한지는 그 국민에게 진정한 제국의 황도정신을 이해시키고 '화협일치', 공존공영의 도의(道義)에 철저히 그 본성을 계발 배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런 점에서 힘을 기울여 견실한 발전에 기여하고 더불어 '반도' 교육도 이에 대응해 적절한 대책을 실시하여 국민의 대륙진출에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더 국민 상호의 교분을 두텁게 함으로써 친선의 촉진을 꾀하고 각종 조사 시찰의 방도를 강구함으로써 상대국 사정에 대한 인식 강화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이들 사항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목적 달성에 집중하게끔 경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상의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대요에 있어서 아래 대책을 택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인정됨.

#### 시설계획

##### 1. 진료반을 파견할 것

'만지'에서의 의료 시설이 매우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조선의 일반 및 학교 의료 기관에 각각 순회 진료반을 조직하여 '만지'에 파견해서 '선만지' 영세민의 무료 진료에 종사하게 할 것.

##### 2. 교환 교수의 파견 및 초빙을 행할 것

조선과 만주국 및 '지나' 정부와의 사이에 매년 대학 혹은 전문학교 교수를 상호 파견하여 교환 교수를 하게 함으로써 학술적 교분을 꾀할 것.

##### 3. 학생 생도 시찰단의 상호 유치 및 파견을 행할 것

'선만지' 사이에 있어서 상호 학생 생도의 시찰단을 초치(招致) 및 파견하고 그 실시에 대해서는 특별협정상에서 통제하고 그 밖에 상호 편의를 공여하는 방도를 강구함으로써 양국 문화 교류의 조장을 원활하게 할 것.

##### 4. 전문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만지'에 대한 교육의 충실 확장을 꾀할 것

중등학교에서 '지나어'과 교수를 더 한층 충실하고 철저히 함과 함께 일부 전문학교에 만주 및 '지나'에 관한 특수 교육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학교 졸업자의 대륙 진출에 대비할 것

##### 5. 중등학교 졸업생의 '만지' 진출을 장려하는 제도를 설립할 것

30) 일본, 만주, 중국을 말함.

31) 일본을 지칭함. 이하 마찬가지.

중등학교 졸업자 중 장래 '만지'에서 활약하고자 하는 지망(志望)을 지닌 자를 선발하여 만주국 및 '지나'에 유학시킴으로써 청년층의 건실한 대륙 진출을 조장 장려할 것.

6. 유학생을 수용할 것

경성제국대학 및 관립 전문학교에 만주국 및 '지나' 학생을 외국학생으로서 수용하는 제도를 설립하여 양국 학술의 융합 발전에 기여하게 할 것.

7. '선만지' 교분 운동 경기 대회를 거행할 것

'선만지'의 학생 생도 및 청년층 사이에 매년 행사로서 운동 경기 대회를 개최하여 상호 국민의 체육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운동 정신을 통하여 민족 친선의 실질을 고양하게 할 것.

8. 초등학교 아동의 학예전람회를 개최할 것

'선만지' 공동 주최 아래서 매년 이를 개최하여 초등 교육의 연구 발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동을 통해서 융화의 좋은 결과를 거두도록 할 것.

9. 영화에 의한 문화의 계발을 꾀할 것

물심양면에서 '반도' 문화의 현상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여 '만지' 주요지에 순회 영사를 기획함으로써 '내선일체'의 통치 방식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인방(隣邦) 서민의 문화 인식 계발에 기여할 것.

10. 각 방면의 전문가, 권위자를 파견해서 서로 간의 연락을 긴밀하게 함과 함께 조선 통치 상황을 빠짐없이 인식하게 할 것

제반 시설은 우선 그 지역 사정의 인식을 깊게 하여 그 적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에게 충분히 조사 연구를 시켜 이를 기초로 해서 각종 사업을 건설하게끔 하고 일면에 뛰어난 조선 통치의 업적을 소개해서 참고에 기여하게 할 것.

11. 문예 특히 미술, 음악 등에 의한 교류 및 석전(積奠) 참열원(參列員)의 교환, 문화 시찰단의 파견을 행할 것

미술, 음악, 석전의 형식 등 고래 '선만지' 그 경향을 하나로 하는 것으로서 이들 인연의 부활에 의해서 상호 연락과 결합을 밀접하게 하고, 시찰단을 파견해서 상호 문화 개발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게 할 것.

12. 대 '만지'협회를 설치할 것

'반도'에 있어서 대 만주, 대 '지나'의 사회적 연계의 중추 기관으로서 협회를 설치하여 이들 목적 달성의 촉진을 기할 것.

#### 제4. '재지(在支)' 조선인의 보호 · 지도에 관한 건

'재지' 조선인의 지도 방책을 수립 실행하여 그들에게 일본 국민으로서의 자질과 신념 등을 구비하게 하는 것은 현 상황의 시국에 비추어 절대적 긴급 사항임. 따라서 현지 군부 및 외무성 파견 관헌의 참

가에 의해 조직된 ‘복지’ 재주(在住) 조선인 지도위원회를 비롯하여 현지 각 기관 원조 아래서 조선인의 보호 지도 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중에 있지만 거듭 금후 더 한층 이를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을 취하기를 요한다고 인정됨.

### 시설계획

#### 1. ‘내선일체’의 취지에 의한 지도 보호를 할 것

‘지나’에서의 조선인에 대한 지도는 조선에서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속히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황국 신민’이 될 수 있게끔 그 방침 및 시설은 모두 ‘내선일체’의 취지에 의할 것.

#### 2. 조선 사정의 철저한 주지를 피할 것

‘복지’ 조선인은 그 이주해 온 원인이 매우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조선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 없이 대부분은 ‘병합’ 당시의 조선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자가 다수를 점하는 현상임. 이런 점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갱생시켜 진정한 일본인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 사정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바, 금후 ‘재지’ 조선인으로 하여금 조선을 시찰시킴과 동시에 필요한 인쇄물을 배포하고 혹은 강연, 영화 등에 의해 조선 사정을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노력할 것.

#### 3. 모범 농촌에 실업자를 수용하여 지도할 것

‘복지’ 재주 조선인 중 실업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구 기토(冀東)정부<sup>32)</sup>와의 협정에 의해 여대(廬臺)에 건설하는 모범 농촌에 될 수 있는 한 다수의 실업자를 수용하여 진정한 ‘황국 신민’의 본질에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성의로써 지도할 것.

#### 4. 직업보도(輔導)소(가칭)를 설립할 것

실업자 등 기술적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능력을 주고 나아가서 곤고결핍에 견딜 수 있는 정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직업보도소를 설치하여 한편으로 직업 소개 사무 및 신상 상담에도 응할 것.

#### 5. 각종 사업에 조선 자본을 유치하여 조선인을 사용하게 할 것

‘복지’에 안전 농촌을 건설하여 실업자를 수용하게 하지만 농장에만 의존한 ‘재지’ 조선인의 보호 지도는 갖가지 사정으로 지난(至難)하기 때문에 경제 통제 범위 내에서 조선인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선 자본의 유치에 노력할 것.

#### 6. 교육 기관의 충실을 피할 것

‘지나’에서 조선인의 초등 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방법 등을 조사 연구함과 동시에 시설의 충실을 피할 것.

#### 7. 금융 기구를 충실히 하여 소액 금융을 행할 것

조선총독부의 보조에 의한 금융 조합을 설립하고 소액 금융을 행하여 소자본의 업을 일으킴으로써

32) 冀東防共自治政府. 1935~1938년에 중국 하북성(河北省) 동부에 있던 일본의 괴뢰 정권. 수도는 통주(通州). 일본 상품 밀무역의 창구이기도 하였다. ‘冀’는 하북성을 가리킴.

생업으로 전향하게 할 것.

8. 의료 시설의 충실을 꾀할 것

‘지나’에서 조선인에 대한 의료 시설이 매우 빈약한 실정임에 비추어 전에는 조선총독부의 보조에 의해 조선인민회에서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촉탁의를 설치했지만 금후 더욱더 이를 확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순회 진료도 하게 할 것.

9. 조선의 현직 경찰관을 외무성 경찰관으로 채용해야만 할 것

조선의 현직 경찰관을 외무성 경찰관으로 채용해서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방의 ‘재지’ 각 영사관에 배치하여 조선인에 관한 조사를 하게끔 하고 나아가서 지도 방책의 실행에 협력하게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여, 이전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외무성과 교섭하여 약 백 명의 현직 경찰관을 동성 경찰관으로서 채용, 각지에 배치했는데 이것은 금후 성적에 의해 그 수 및 배치 개소를 증가할 것.

10. 조선인 장교를 지도에 담당하게 할 것

만주사변 이래 조선인의 인심은 군부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두터워 그 지도에는 환심으로서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번 사변 이래 조선인 장교에 대한 충심 존경의 마음이 높은 바 ‘반도’ 출신 장교로서 조선인의 지도에 임하게 할 것.

11. 정신 교육을 충실하게 할 것

이상 각항의 기능을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 교육을 수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에 ① 조선인민회 지도역으로서 조선총독부로부터 교화 전문의 촉탁을 배치 할 것 ②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촉해서 강연, 좌담회 등을 행하게 하고 ③ 필요한 인쇄물, 신문의 발행 배포를 할 것.

## 제5. ‘복지’, ‘중지’의 경제 개발과 조선의 경제 개발의 연계에 관한 건

‘복지’의 경제 개발은 장기간의 병화(兵禍)와 천재로 인하여 피폐의 극에 이른 ‘지나’ 특히 ‘복지’ 대중구제라는 점에서 보아 초미의 급선무이다. 동시에 ‘일만지’ 경제권 확립의 견지로부터도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요무(要務)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 계획 수립 및 실시에 있어 각 지역에서의 개발 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권내에 있어서 중요 부족 자원을 각 적지에서 충족하게 함과 동시에 각 지역 간의 모순되고 상극하는 것을 조정하고 나아가서 상호 완전한 협력 하에 동반 번영을 이루는 것을 요한다. 따라서 다행히 조선은 ‘지나’ 특히 ‘복지’와 경제적으로 상극 관계를 초래하는 바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자원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바 가급적 적극적으로 ‘지나’ 특히 ‘복지’의 경제개발에 협력함은 물론 상호 의존 관계를 더 한층 긴밀하게 함으로써 ‘국책’이 지향하는 바에 순응하는 취지하에 대요에 있어서 아래 방책을 취하는 것을 요한다고 인정된다. 또한 구체적 방책에 대해서는 현재 정세에 비추어 주로 ‘복지’와의 관계에 입각하여 입안하지만, ‘중지(中支)’에 대해서도 이에 준해서 고려하고 연구하여 상호 경제 개발의 연계에 있어서 완전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

## 1. '북지'의 개발 계획에 협력할 것

'북지'에서의 면화 및 식량 작물의 증산, 축산 증식, 어업 개발, 염전 개척, 식림 사업의 실시 등은 각종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유망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선의 협력이 가장 유효하다고 인정되는바 아래 방안을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 시설계획

#### 1) 면화 증산 계획 실시에 관해서 협력할 것

'북지'에는 면화재배 적지(適地)가 많고 농촌 경제의 부흥 및 '우리나라' 방적 원면 충족을 위해 이에 대한 개량 증산은 무엇보다 절박하고 또한 유망한 사항에 속하는바 신속히 그 실시 방안을 수립해야만 한다. 따라서 조선에서도 현재 면화 증산 계획을 실시 중인바 위의 계획 실시에 대해서는 조선에서 선출한 우량품종 종자의 공급, 재배지도, 재배 재질의 개선 및 확장에 관한 기술적 원조 등에 협력할 것.

#### 2) 가축 증산 계획의 실시에 관하여 협력할 것

'북지'에서 축산은 농경용, 운반용 및 비료 생산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자원임에도 이번 사변에 의해서 상당 다수의 감모(減耗)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복구의 충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과 시설 강구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 조선에서는 각종 종축(種畜)의 공급 및 우역(牛疫) 예방약의 공급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그밖에 특히 면양 개량 증식은 '우리나라' 양모 자원 확보 상 대단히 커다란 장래성을 지닌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조선에서의 면양 증식 계획의 진전에 수반하여 종양(種羊) 공급 및 지도 기술에 관한 협조를 할 것.

#### 3) 밀 증산 계획의 실시에 협력할 것

밀은 '북지' 주민의 주요 식량이 되는 바 수급의 원활을 기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 안정 상 긴급을 요하는 임무이지만, 현재 '북지'에서는 해마다 다량의 생산 부족을 고한다. 이의 공급을 국경 밖에다가 요청하는 현상에서 볼 때 신속하게 이에 대한 증산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북지'에 있어서는 경지 면적의 확장 여지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면화 증산을 위해 오히려 밀 경작 면적의 감소도 예상되는바 필연적으로 단위 면적 수확량 증가를 꾀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조선으로서는 유안(疏安)<sup>33)</sup>의 공급, 재배 지도 기술에 관한 원조 등에 의해서 위 계획 달성에 협력할 것.

#### 4) '북지'의 미산(米産) 계획 실시에 협력할 것

'북지'의 면적은 백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7천7백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생산액은 불과 백만 석<sup>34)</sup> 내외로서 수입입(輸入)에 기대는 수량은 주요항의 양으로만 보아도 약 백만 석에 이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장래에 있어서 치안 회복, 경제 공작(工作)의 진전 등에 따라서 인구 및 구매력 증진, '방인(邦人)' 증가 등을 고려하면 미곡 소비액은 장래 더욱 증가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면 '북지'의 자연적 조건은 과우(寡雨) 특히 춘기의 강한건조를 제외하면 대략적으로는 벼농사에 적합하며 저습지, 알칼리

33) 황산암모늄.

34) 주로 곡물을 세는 체적 단위. 1석은 10두(斗)로 180.39리터.

지(地) 등 수전 개척 여지가 많고, 경종법(耕種法) 개선의 여지 또한 크다는 점에서 수리 사업 및 경종법 개선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한다면 미곡 자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굳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조선은 자연적 제 조건과 기타 유사성이 많고 수리사업, 경종법 개선 등의 기술적 원조 및 우량종자 공급 등은 무엇보다 유효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제반 사항에 협조할 것.

5) 수산업에 대한 개발 원조를 할 것

황해 및 '지나' 동해의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상당히 개발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나'에서의 수산업 개발에 대하여 기술적, 물질적 원조를 함과 동시에, 동(同) 해구(海區)에 대한 조선의 어업 진출을 기도하기 위해 발해, 황해, 동해에의 수산 자원의 기초 조사를 행하고 아울러 '지나'에 어업 근거지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의 완비를 피함으로써 양자(兩者) 수산물의 수급 원활을 꾀할 것.

6) '북지' 염전의 개척 계획 실시에 대하여 협력할 것

'우리나라' 공업염자원의 확보, 국제 수지 균형이라는 견지에서 지나사변의 진전에 수반하여 '북지'에 있어서 염전 개발은 급속히 구체화 하려는 바, 천일제염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경우 '내지'는 전오식(煎熬式) 제염법이기에 때문에 경험자가 없고, 대만, 관동주<sup>35)</sup>는 천일제염이지만 민영으로서 기술원의 양성 훈련 기관이 없는데 반하여 조선은 관영으로서 이에 대한 기관을 보유하며 현재 정부 염전의 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따라서 제염 기술에서는 기상 그밖에 자연적 조건에 있어서 심각하여 이들 지방에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량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금후 '북지' 방면의 염전 개발에 수반되는 기술원 양성에 관해서는 필요한 경우 나서서 이에 협력할 것.

7) 식림사업 실시에 대하여 협력할 것

'북지'의 경제적 개발에 수반하여 용재(用材)의 수요는 엄청난 수량에 달할 것이고 또 '북지' 농민은 해마다 수해 및 한발의 빈발로 대단히 궁핍한 상태에 있으므로 용재 생산 및 치수 공작으로서의 식림사업은 '북지' 경제 개발 상 매우 긴요한 시설에 속한다. 따라서 현지의 상황은 적당한 시설을 강구하면 식림사업도 굳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에서 환경이 유사하고 또 그 업에 경험을 지닌 조선으로부터 적극적인 원조를 할 것.

8) 몽강(蒙疆) 지방으로 이민케 하여 동 지방 개발에 협력할 것

몽고 연맹 자치정부 관내 오원(五原) 지방<sup>36)</sup> 및 이커저우맹(伊克昭盟(오르도스 지방))은 광막한 평야 지대로서 황하에 위요(圍繞)되어 수리 교통편이 있고, 토지가 비옥하여 쌀 및 밀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장래 치안이 확정된 후에는 몽강연합위원회와의 긴밀한 연락 아래서 조선인 농업 이민을 보냄으로써 동 지방의 개발에 협력할 것.

9) 현지 조사단을 조직 파견할 것

전 각항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방책 결정을 위해서는 상세한 실시 조사에 의거하여 현지의 인식과

35) 랴오둥 반도 남쪽에 설정된 일본의 조차지로 1898년부터 1945년까지 존속했다.

36) 내몽고 자치주 중부의 현.

현지 당국과의 긴밀한 연락 등을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히 각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조직하여 파견할 것.

## 2. '북지' 자원 개발에 필요한 자재 공급을 꾀할 것

'북지'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거액의 자재를 필요로 하는데 현지에서는 이에 대한 자급능력이 결여됨으로써 유리한 제 조건을 구비한 조선으로부터 노력하여 이들 자재를 공급함과 동시에 조선의 병참 기지로서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아래의 방안을 취하기를 요함.

### 시설계획

#### 1) 기계공업을 진흥할 것

현재 '북지'에서의 금속 기계 기구 공업에는 불만한 것이 없고 그 투자액도 각종 공업의 2%정도에 불과한 상태이다. 따라서 장래 동지(同地)에서 각종 자원 특히 지하자원 개발의 진보와 함께 필연적으로 광산용 기타 제 기계의 수요 증가를 초래해도 그 원활한 공급을 기할 수 없고 도저히 급속한 효율을 거두기도 어렵다. 이에 지리적으로 가장 우위를 점하고 또 기업 상 각종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조선에서 목하 대두기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하여 한층 적극적 진흥 방도를 강구하여 조선 내에서의 수요 충족에 바탕이 되게 함과 동시에 '북지'에 대해서 우수하고 풍부한 제 기계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동 지역에서의 자원 개발에 기여할 것.

#### 2) 자동차 공업을 진흥할 것

'지나' 자원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교통 운수 시설의 완비에 기대야 하는 점이 매우 큰 것은 물론이거니와 철도의 건설은 상당한 시일과 다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여 곧바로 이를 보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철도에 선행하는 혹은 대행 기관으로서 자동차망의 보급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리적 관계 그밖에 각종 유리한 기업 제 조건을 구비한 조선에서 그 업의 진흥을 꾀함으로써 조선 내에 있어서 수요 충족을 꾀하는 한편 우수한 자동차 공급에 노력하여 동 지역에서의 군수 충족 및 각종 자원의 급속한 개발에 기여할 것.

#### 3) 화학비료 공업을 확충할 것

'북지'에서의 기존 경지 면적은 1천8백만 정보를 넘어 풍부한 농산 자원 산출을 보고 있지만 금후 면화 및 식량 작물 등의 증산 계획 실시에 따라 농업 경영상 필수적인 비료의 수요도 더 한층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북지'에서의 주요 토양인 황토는 카리움, 석회질이 풍부하고 시비(施肥) 상에서 볼 때는 유산 암모니아와 같은 것을 최적 비료로 하는 점에서, 풍부하고 저렴한 전력 자원을 지니고 이미 생산바탕을 지니고 게다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는 조선에서 이런 종류의 화학비료 공업의 증설 혹은 신설 확충을 꾀함으로써 현재 공급 부족에 있는 국내 화학 비료의 수급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북지' 농업 자원의 개발에 기여할 것.

#### 4) 폭약 공업을 확충할 것

‘북지’에서는 주요 광산 자원인 석탄, 철광을 비롯하여 각종 지하자원 개발에 따른 폭약의 소비가 장래 현저한 증가를 보일 것이고, 교통 운수 시설과 함께 각종 건설 공사에서 수요 또한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조선에서는 이들 폭약의 원료인 그리세린 제조에 서로 공통되어 쓰는 강화유용 염유의 산출이 풍부하고 또한 풍부한 전력에 의한 유산 암모니아 등 화학비료 공업의 확충에 따른 합성 암모니아 공업의 확립을 기대할 수 있어서, 따라서 초산, 초산 암모니아 등 합성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폭약 원료 제조 공업의 바탕을 지닐 수 있게 됨으로서 폭약 공업의 확충을 꾀하여, 조선 내에서의 산금(産金) 그밖에 중요 사업 수행을 위한 점증 추세에 있는 폭약의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기함과 동시에 ‘북지’ 자원 개발에 기여할 것.

#### 5) 시멘트 공업을 확충할 것

‘지나’ 특히 ‘북지’에서의 각종 건설 공사의 급속하고도 원만한 진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 자재인 시멘트의 원활한 공급을 기하는 것이 간절히 요구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 동지역에서의 시멘트 공장은 양회(洋灰) 계신(啓新) 공장(하북성 당산(唐山) 소재. 연 생산능력 약 32만 톤을 제외하면 모두 규모가 협소해서 도저히 이에 대한 급속한 수요 충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접국 만주국에서도 최근 급속한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을 고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이미 상당 설비의 확충을 하고 나아가서 지리적으로 최단거리에 있는 조선에서 동 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꾀하고, 조선에 있어서의 그 업의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동지역에서의 각종 중요 자원 개발에 기여할 것.

## 2. ‘북지’ 자원 이용에 노력할 것

조선은 ‘지나’ 특히 ‘북지’와 가장 근거리에서 원재료의 취득 상 대단히 유리한 지위를 점하는 바 ‘북지’에서의 개발이 예상될 법한 석탄, 철광, 소금, 면화, 양모, 우피 등 유용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아래 방안을 취하기를 요함

### 시설계획

#### 1) 제철업에 ‘지나’ 자원을 이용할 것

겸이포(兼二浦)<sup>37)</sup> 제철소는 현재 연 생산 선철(銑鐵) 35만 톤, 제강 11만 톤으로서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게다가 더욱 확장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장래 생산력 확충을 요하지만, 이 제철소의 제철 원료 특히 철광 및 석탄은 주로 조선, 만주 및 ‘내지’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상임에 비추어, 장래 ‘북지’의 철광 및 석탄의 이용에 노력함으로써 ‘북지’ 자원 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조선에서의 철강 정책 수행을 기할 것.

#### 2) 소다 공업에 ‘북지’ 소금을 이용할 것

‘북지’에서의 소금은 현재 장로(長蘆) 염전<sup>38)</sup> 9천 정보 및 산동염전 9천5백 정보로부터 대략 연 생산

37) 황해도 송림을 일제가 부르던 이름.

38) 중국 천진시에 있는 중국 최대의 소금생산기지.



80만 톤을 산출하고 있지만, 이 밖에 휴지(休止) 염전 및 염전 적합지가 많아 금후 개발에 의해 더 한층 증산이 예상되는바 조선에서의 공업염의 자급자족을 이룰 때까지는 이에 대한 이용을 꾀함과 동시에 근시일 내에 수요 점증 추세에 있는 소다회(soda灰), 가성(苛性)소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부한 전력 자원을 보유한 조선에서 이들 근해염을 원료로 하는 소다 공업의 확충을 기할 것.

### 3) 방직 공장에 '북지' 면화를 이용할 것

1936년도 '북지'에 있어서 면화작 해당 면적 10여만 정보, 생산액 4백8십만 담(擔)에 달하고 게다가 이에 대한 증산은 대단히 유망함으로 그 장래는 매우 기대가 되는 바이지만 조선에서의 면화 수요는 연액 80만 담(사용 비울 미면(美綿)급 40%, 인면(印棉)급 60%)으로서 미면급 면은 조선면으로 충족할 수 있고 '북지'면은 인면의 대용으로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

### 4) 양모공업에 '북지'양모를 이용할 것

'북지'에 있어서 양모의 산출은 대략 연액 3만 5천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약 반수는 현지에서 단통(緞通)<sup>39)</sup>, 모자 등의 원료로서 소비되고, 잔여양은 주로 천진으로부터 미국, 독일 등에 수출되고 있었는데, 작년 말 '우리나라' 업자에 의하여 결성된 몽강(蒙疆) 양모조합에서 독점 매수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공업 원료로서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에서도 현재 가내 공업으로서 장려하고 있는 담요의 제조 원료로서 매우 적당한 '북지' 양모 이용을 강구하기로 하여 계속 모직물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공급을 기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방모 공장, 모직물 공장 및 정리 가공 공장을 설립하여 '북지' 양모 및 면양 증산 계획에 따라 증산될 조선산 양모를 병행해서 모직물 생산을 꾀할 것.

### 5) 피혁 공업 및 축육(畜肉)가공업에 '북지' 원료를 이용할 것

'지나'에서는 현재 축우 두수 대략 1천6백여만 두의 다량에 달하고 산동성에만 한정해도 그 수 약 2백 30여만 두로 칭해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해마다 다수를 수출 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지리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조선에서도 '북지'로부터 우피 및 우육을 수입하여, 매년 다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외국산 우피의 수입 억제에 기여하는 한편, 이의 풍부한 원료 공급에 의하여 조선 내 피혁 공업의 진흥을 기함과 동시에 원료 부족에 의하여 그 신장을 저지당하고 있는 축육가공 공업 진흥을 꾀함으로써 군수 충족에 기여할 것.

## 제6. 해운 정비에 관한 건

'북지' 및 '중지'에서의 정정(政情) 안정에 따라서 지금은 동 방면에서의 경제 건설은 착착 실행에 옮겨지려는 정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선은 그 지리적 우위성에 비추어 보아도 제국 발전의 전진 기지 혹은 병참기지로써 정치 산업 및 문화 상 중요한 자리를 점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39) 고급 카페트의 일종.

반 시설에 선행해야 할 해운 시설의 현상은 대단히 빈약함으로써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취지하에서 거듭 개요에 있어서 아래의 방안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됨.

### 시설계획

#### 1. 대(對) '지나' 명령 항로의 확충을 꾀할 것

아래 각 항로의 충실 및 개설을 꾀하는 것을 요함.

##### 1) '서선(西鮮)<sup>40)</sup> - 천진 항로

사용선: 총톤수 1,500톤 급 이상 화객선 6척

항해 회수: 월 15회 이상 연 180회 이상

항해지 및 기항 순서: 갑선 인천을 기점 천진을 중점으로 해서 진남포 및 대련(大連)에 기항함. 을선 인천을 기점 천진을 중점으로 해서 진남포 및 치후(芝罘)<sup>41)</sup>으로 기항함.

##### 2) 서선-청도(靑島) 항로

사용선: 총톤수 2,000톤 급 이상 화객선 3척

항해 회수: 월 9회 이상 연 180회 이상

항해지 및 기항 순서: 인천을 기점으로 하고 청도를 중점으로 해서 인천 정박 중 진남포에 연장 항해시킴.

##### 3) 서선-상해 항로

사용선: 총톤수 1,500톤 급 이상 화객선 2척

항해 회수: 월 5회 이상 연 60회 이상

항해지 및 기항 순서: 인천을 기점으로 하고 군산, 목포를 경유하여 상해에 도착 인천에 귀항해서 인천 정박 중 진남포에 연장 항해시킴.

##### 4) '북선' - 부산 - 상해 항로

사용선: 총톤수 1,500톤 급 이상 화객선 2척

항해 회수: 월 4회 이상 연 48회 이상

항해지 및 기항 순서: 나진을 기점으로 하고 상해를 중점으로 하여 청진, 성진, 원산, 부산에 기항.

##### 5) '북선' - 부산 - '북지' 항로

사용선: 총톤수 1,500톤 급 이상 화객선 2척

항해 회수: 월 3회 이상 연 36회 이상

항해지 및 기항 순서: 나진을 기점으로 하고 천진(塘沽)을 중점으로 하여 청진, 성진, 원산, 청도에 기항시킴.

---

40) 조선 서쪽.

41) 이엔타이(煙台)의 옛이름.

비고)

① 부산과 천진을 연락하는 항로에 대해서는 위 이외 '내지' 천진 항로의 부산 기항 시설의 확충을 꾀할 것.

② 장래의 정세에 응해서 해주 및 다사도(多獅島)에 기항 항로를 고려하는 것으로 함.

## 2. 선박 수선 설비의 정비를 꾀할 것

현재 조선 서해안에는 선박 수선 설비가 불만한 것이 없고 해운업자가 입는 불리, 불편이 적지 않으므로 이것을 제거하여 대 '지나' 항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천에 5천 톤급 건조기(乾船渠)<sup>42)</sup> 및 그 밖에 부속 설비의 정비를 꾀하는 것으로 하되 이것을 국가에서 정비하든가 혹은 적당한 조성 방법을 강구하여 민간 업자로 하여금 시설하게 할 것.

## 3. 인천항 제2 선거 건조공사 준공기 조기 완성 및 공사 추가를 할 것

대 '지나' 항로의 기점이 되는 인천항은 최근 그 출입 화물이 급속히 격증하여 현 선거의 협소가 극에 달하고 있음으로 목하 공사 시행 중인 제2 선거 준공기를 2개년 앞당겨 1942년도에 준공하게 함과 동시에 위 준공기 무렵에 있어서 출입 화물톤수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의 기한 내에 기정 계획된 안벽(岸壁, quay wall) 800미터를 1,200미터로 연장하고 또한 갑문(閘門) 한 곳을 증설할 것.

## 4. 항로 표식 시설을 확충할 것

조선에 있어서 항로 표식 시설은 대단히 불비되어 있는데 이번 사변에 의해 그 정비의 필요 특히 긴급하게 된 바 가급적 신속하게 전 조선 연안에의 등대, 연무 신호, 무선 방위 신호소의 신설 강화를 꾀할 것.

## 5. 특수구조선(特殊構造船)의 건조 조성을 꾀할 것

'북지' 항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지' 및 '서선' 항만의 특수 조건에 적합한 천흡수(淺吃水)와 내빙성을 구유한 특수선을 건조하는 것으로 하되 그 건조비의 증가는 이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함.

## 6. 민간 해사(海事) 단체를 강화할 것

해운 발전은 이를 돕고 협력할 민간 해사 단체의 활동에 기달 바가 크다. 그런데 조선에 있어서 유일한 해사 단체인 사단법인 해사회의 기능이 대단히 미약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바 동회를 확충 강화하여 국가에서도 적당한 조성 방법을 강구하여 대 '지나' 및 일반 해운의 발전에 기여하게 할 것.

42) 큰 배를 수리하거나 소제할 때 그 배를 집어넣는 구조물.

## 제7. 통신시설(라디오 포함)의 정비에 관한 건

조선이 제국의 전진 병참기지로서 그 사명이 중차대하다는 것에 비추어 이에 대한 기초적인 요건의 하나인 각종 통신 시설의 확충 및 운용의 적절을 기하는 것은 대단히 긴급하기에 대요에 있어서 아래의 방안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됨.

### 1. 전기 통신 시설의 확충을 꾀할 것

기상, 방공, 항공 등의 특수 통신망 및 비상시 통신망의 정비를 평시 및 전시 양쪽에서 적절히 대응하게끔 시설하는 것은 물론 그밖에 대 '만지' 전기 통신 시설을 확충하여 대 '만지' 시책에 기여해야 마땅함에도, 여전히 위의 특수 시설 외에 현재 조선에서의 일반 전기 통신 시설이 전신 전화 어느 쪽도 그 설비가 매우 불충분하여 평시 통신에서조차 부담 과중으로 인하여 통신 소통이 양호하지 않아, 왕왕 장시간 경과 시간을 요하는 점에 비추어, 전시 유사시 생길 수 있는 군 및 군수 수송, 작전 연락, 정보수집 및 그밖에 각종 긴급 요무(要務)를 위해 필요한 중요 통신의 이상 격증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로서 도저히 이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통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이에 급히 이에 대한 확충 정비를 하는 것을 요함.

#### 1) 기상, 방공, 항공 등 특수 통신망 정비를 꾀할 것

항공기의 발달에 따라서 기상 관측 및 그의 통신의 정확, 신속이 절대 필요하기에 이르렀다. 또 적기의 공습에 대한 방비 상 방공 통신은 최단 시간 내에 연락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박하다. 따라서 회선(線)의 증가와 결부되어 ① 기상 관측 기관의 정비에 따른 기상 통신망의 정비 ② 방공 요지를 연락하는 방공 전용 통신망의 정비 ③ 비행장 상호 간의 유선 무선 연락 통신 시설, 대 항공기 무선통신 시설, 계기비행 무선 시설의 정비를 할 것.

#### 2) 비상시 예비국 및 비상시 연락용 무선 통신 시설의 정비를 꾀할 것

만일 공습을 받아 전신 전화 주요국소가 파괴될 경우에 대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주요 통신의 두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신 전화 회선의 대집중국(大集中局)인 경성 및 '북선'의 집중국인 청진의 두 국에 대한 예비국을 정비하고, 또 유선 통신망이 파괴될 경우의 응급 통신로로서 주요지를 연락하는 상당히 강력한 무선 통신로, 각 도청 소재지 등을 연락하는 소규모 무선 통신시설 및 자동차 적재용 소형 무선 통신 시설을 정비할 것.

#### 3) 대 만주, 대 '지나' 전기통신 시설의 확충을 꾀할 것

평시 전시 양쪽을 통하여 대 '만지' 통신 연락을 확보하여 전시 사변 시에 대비함과 동시에 '만지' 경제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의 시설과 관련하여 조선 주요지와 신경, 봉천, 목단강, 대련, 북경, 천진, 제남, 청도 등의 주요지 간의 전신 및 전화의 통신로를 신속히 정비할 것.

#### 4) 주요 선로의 케이블화를 꾀할 것

현재 전신 전화 회선의 대부분은 가공나선으로서 풍설해 등의 자연적 원인에 의하여 고장이 많을 뿐

만 아니라 조선의 특수 사정으로서 인위적 장애도 상당 다수에 이르고 있는데, 그 위에 유사시 폭격이나 그밖에 방법에 의하여 파괴될 경우가 있어 통신 연락 확보 상실로 우려할만한 상태에 있으므로, 주요 간선로를 케이블화 함으로써 통신의 안전을 꾀할 것.

#### 5) 전신 및 전화선을 증설할 것

현재의 전신 및 전화 회선 설비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통신 구역의 협소, 경과 시간의 과대, 통신 오류의 증가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상태에 있는 바 최근 시국에 관계된 중요 통신을 더욱 증가하여 그 소통의 곤란이 더욱더 심각하여 만일 유사시의 통신을 예상할 때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때 전 항의 케이블화에 수반하여 조선 내 주요 회선의 증설을 할 것.

#### 6) 대 선박 통신망의 확충을 꾀할 것

최근 만주의 흥륭(興隆), '지나' 경영의 진보 및 이번 사변의 추이에 따라서 조선 근해는 작전상 및 해운 상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조선의 해안 무선국은 해안선이 장대한 데에 비하면 그 수가 매우 적고 또 비론 그밖에 항해 안전에 관한 시설도 매우 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 무선 전신국 수를 증설하고, 그밖에 나아가서 부산, 인천, 나진 등의 주요 항에 대 선박 무선 전화를 신설하여 항해 중의 선박과 육상 중요지와의 연락을 개시할 것.

#### 7) 고속도 통신기를 채용할 것

1), 4) 및 5)의 정비와 병행해서 유선 무선 전신기를 개량하여 통신 속도를 높임으로써 격증하는 통신 소통을 꾀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요 국소에는 사진 전신기, 인쇄 통신기, 기송관 통신방식 및 광전관식 초고속도 송 수신기 등을 채용할 것.

#### 8) 전기 통신 기재 제조공장의 유치를 꾀할 것

전 각호에 의하여 통신시설 정비 확충 상 다량의 통신 자재를 필요로 함으로 이에 대한 자급자족을 꾀하고 아울러 산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선 내에 다음과 같은 전기 통신 관계 제조 공장의 유치를 꾀할 것.

### 기(記)

- ① 전신 전화기 제조 공장
- ② 전선류 제조공장

## 2. 통신 단속 및 정보 수집 시설의 강화를 꾀할 것

현재 시국 및 국제 정세에 비추어 통신 단속 및 각국 정보의 급속 수집은 국책 수행 및 국토방위 상 가장 긴요한 급선무이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시설은 대단히 소규모이고, 빈약해서 불만한 것이 없어 실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바 이에 대한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평시부터 아래 시설을 해둘 필요가 있다.

## 시설계획

- 1) 우편, 전신 및 전화의 철저한 조사 단속 기관 및 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것
- 2) 무선 전신 및 무선 전화에 의한 불온 통신 및 첩보 통신의 감청 및 제 외국에서의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한 조선 내 몇 개소에 무선 통신 감시 시설을 증설하여 이에 대한 확충 강화를 꾀할 것

### 3. 방송 시설 정비를 꾀할 것

방송 사업 목적은 위안 오락을 중국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민중을 교화하고 목하 시국에 있어서는 더욱이 나아가서 국론을 통일하고 민심을 안정하게 유도하는 등의 중대 사명이 있는바, 조선 내 어느 곳에서도 간이 수신기를 가지고 감청할 수 있도록 설비하도록 함께 노력해서 청취자의 증가를 꾀하는 등 방송국책의 철저를 기하는 것이 요구됨. 특히 조선의 지리적 행정적 특수 사정에 비추어 국책으로서 방송망을 확충하고 방송 내용을 충실해서 위의 목적 수행상 유감이 없도록 아래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시설계획

- 1) 방송국을 증설할 것  
조선 내 필요한 지역에 방송국을 증설할 것
- 2) 이중 방송 장치를 완비할 것  
전조선 방송국에 '국어', 조선어의 이중 방송을 실시할 것
- 3) 각 방송국 간의 전용 중계선을 정비할 것  
각 방송국 간의 연락, 동시 방송에 편리하게 할 것
- 4) 공중 용 라디오 수신 설비를 꾀할 것  
조선 내 각지에 공중용 라디오 수신기를 설치할 것

- 5) 대전력 방송국의 설치 및 해외에서 오는 전파의 교란 장치를 할 것

최근 소련에서는 모스크바를 비롯하여 각지에 대전력 설비를 하여 공산주의의 선전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블라디보스톡 및 하바로브스크 방송국과 같은 것은 상당히 강력한 전력으로 조선어 및 '지나어' 방송을 하여 극동 시베리아 거주 조선인의 사상의 적화를 꾀함과 함께 '우리나라' 특히 지리적으로 소련 방에 접근하고 있는 조선 및 만주의 치안을 교란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사변 이래 그 활약 더 한층 심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외래 유해 전파의 교란 장치를 설치함과 동시에 청진 지방에 대 소련 국책 선전용의 대전력 방송 시설을 할 것

### 4. 우편 체송(遞送) 시설의 정비 확충을 꾀할 것

시국의 추이와 '일만지' 경제 블록의 성립에 수반하여 조선은 우편 체송 상 더욱 중요성을 더해, 그

체송 우편물은 가속도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이번 사변에 즈음해서도 이미 현 체송 시설은 모두 부족을 폭로하고 체송 연락 상 관란에 조우하였기에 주요 체송 선로의 차실(車室)의 확장 및 편수 증가를 꾀하여 이에 대한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8. 항공 시설의 정비에 관한 건

조선은 구아(歐亞) 연락 국제 항공로의 요충에 해당하고 또한 ‘우리나라’ 대륙 정책 수행의 기지로서 평시 전시 양시를 통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지님으로써 조선 내에서의 항공 제 설비의 양부(良否)는 국운의 소장(消長)에도 지대한 관계를 지닌다. 그런데 이의 시설을 보면 대단히 불충분한 현상에 있는바 정기 항공의 충실과 개척을 꾀하는 것은 물론 비행장, 항공 무선 및 항공 기상 관측 제 설비를 정비함과 동시에 국민의 항공 지식 및 지향을 더 한층 철저히 보급시킴으로써 민간 항공의 약진을 기도하는 취지 아래서 대요에 있어서 아래 방책을 취할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 I. 항공로의 신설 확충

#### 1. 정기 항공의 충실 및 개척을 꾀할 것

만주국의 발달 및 ‘지나사변’의 진전에 따라서 조선을 경유하는 ‘내지’ 및 만주, ‘북지’ 간의 항공 교통량은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기설 수송 능력만으로는 화객의 수요에 대해서 현저히 부족을 초래함이 현재의 상황이다. 또 조선 내 항공로는 대구, 경성, 신의주를 연락하는 간선 외에 경성, 광주선 및 본년도 중에 실시 예정인 경성, 청진선만 있어서 산업 교통 경제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전시에 있어서 후방 수송 연락 및 방공 상 심히 유감스러운바 신속히 이에 대한 충실을 기하는 것을 요한다.

#### 시설계획

##### 1) 경성-청도선을 신설할 것

대 ‘지나’ 작전의 진전에 따라 그 공략지에 있어서 평화공작 역시 점차 진보하고 있어 이미 신정부가 성립하고 이들 지방에 대한 ‘우리나라’ 경제력의 진출 또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조선과 ‘북지’는 지리적으로 보아도 군사, 교통, 경제상 밀접한 관계에 있음으로 상호 교통 연락의 급속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선을 신설할 것.

##### 2) 후쿠오카-경성선의 증편 및 기종 변경을 꾀할 것

‘내지’, 대만 및 신경, 대련의 양 방면을 잇는 주요편인 급행 편은 경성, 후쿠오카 간에서는 한 대로서 수송되는바 필연적으로 후쿠오카, 경성 간의 폭주는 꾀할 수 없어, 최근 실상에 비추어 보아도 수요의 약 삼분의 일은 탑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반드시 경성, 후쿠오카 간에 대형기 한 편의 증가 운행 및 현재 취항기를 대형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완화를 꾀할 것.

3) 도쿄-오사카-요나고(米子)-경성선 특급 선을 신설할 것

4) 경성-북경선 급행편의 기종 변경을 피할 것

도쿄, 오사카 방면에서 대련, 천진, 북경 방면으로 가는 여객 수는 조선 내 통과 총수의 약 70퍼센트를 넘는 상황으로서 장래 '북지' 방면의 건설 공작 진전에 수반하여 더욱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의 중심과 '북지'의 중추를 연락하는 특급편의 설정은 정치 외교 무역 및 군사상 필요하다. 따라서 도쿄, 오사카, 요나고, 경성선을 신설함과 동시에 경성보다 먼 기정선의 대형화를 피할 것.

5) 도쿄-가나자와-청진-신경선 급행편을 신설할 것

'북선' 삼 항은 만주국의 현관일 뿐만 아니라 청진은 '내지'에 가장 접근한 최단 경로이므로 이것과 고속도의 교통기관으로 연락하는 것은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동선(同線)은 일본해 횡단의 중대 사명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상으로 보아도 대단히 중요함으로 급속히 본선을 개설할 것.

6) 청진-연길-목단강선을 신설할 것

현재 청진, 신경 간에는 만주항공주식회사에 의한 정기 항공선이 있다고는 해도 '북만'의 요지 목단강과 청진을 잇는 '북선' 및 '북만'의 항공 연락의 긴밀 강화를 기하는 것은 평시와 전시 양시를 통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오는 10월부터 실시 예정인 경성, 청진선을 다시 연길을 경유하여 목단강으로 연장할 것.

7) 조선 내 지방선의 정비 확충을 피할 것

조선 내의 방공 시설, 산업 경제의 개발을 피하기 위해 지방 항공노선의 정비 확충을 피할 것.

## 2. 비행장의 정비 확충을 피할 것

새로이 정기 항공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비행장 신설을 요할 뿐 아니라 조선에서 기설 비행장으로서 항공기의 현상에 비추어 이에 대한 사용상 완전하다고 할만 한 것이 매우 드물어 특히 우기 또는 해빙기에는 지면 연약 혹은 침수에 의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일이 왕왕 있다. 정기 항공의 사명상에서는 물론 전시에서 항공 작전 및 방공상의 견지로 보아도 실로 유감스러운 부분으로 상시 사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항공기 발달의 장래도 예상해서 확충을 피하는 것을 요한다.

### 시설계획

1) 청진 비행장을 확장 정비할 것

청진 비행장은 주위 수전 때문에 지하수위가 높고 더욱이 배수가 양호하지 않으므로 우기 및 해빙기에는 자주 침수하여 진흙탕화되는 상태에 있다. 동 비행장은 동해 횡단 항공로의 주요 지점으로서 위의 결점을 제거함과 동시에 대형기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확장 정비를 할 것.

2) 함흥 비행장을 확장 정비할 것

함흥 비행장은 1938년도부터 경성, 함흥, 청진 간 정기 항공 실시 상 군용지를 차용 설치 예정인바 동 군용지는 군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게다가 그 지역은 동해 방면의 주요기지로써 대형



기의 사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장 정비를 할 것.

3) 불시 착륙장을 정비할 것

길주 외 세 곳은 불시 착륙장으로서 단순한 정지만을 실시해둔 곳이지만 모두 정기 항공로 상의 주요 지점으로서 취항기의 대형화에 따른 협소를 느끼게 되는바 이를 확장할 것.

4) 비행장 및 불시 착륙장을 신설할 것

정기 항공에 필요한 비행장 및 정기 항공의 안전 시설로써 아래 개소에 비행장 및 불시 착륙장을 신설할 것.

비행장            강계 외 5개소

불시 착륙장    북청 부근 외 5개소

3. 야간 항공 표식 및 방공 시설을 확충 정비할 것

시설계획

1) 야간 항공 표식을 확충할 것

야간 비행의 안전 항법 시설로서 무선 설비에 병행하여 항로를 지시하는 등대 및 함흥 외 1개소의 비행장 조명 설비 시설 등을 실시할 것.

2) 주요비행장에 방공, 방호시설 등을 실시할 것

전시에 있어서 비행장은 적 공군의 폭격 목표로 되는 것은 이번 사변으로 명백히 드러난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항공기 활동의 근원인 연료 확보 저장을 위한 지하 격납고를, 또 인원의 방호, 방독 시설로서 지하 피난소를 경성 외 5개소에 시설할 것.

II. 항공 통신의 정비 확충

1. 항공 통신망의 확충을 꾀할 것

항공 통신망 즉 지상 상호의 연락 및 대공 통신 시설의 확충을 꾀함으로써 비행장 상호의 통신 기상 정보의 수집 등을 신속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적시(適時) 비행 중인 항공기와 소요(所要)의 통신을 송수(送受)하는 것은 항공 안전 유지상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조선에서의 항공 통신 시설은 아직 현저히 불비된 바 항공로의 개척 계획 수립에 따른 소요의 확충을 기하기를 요함.

시설계획

1) 전용 유선연락 시설을 실시할 것

비행장 상호 간의 연락에는 현재 일반 유선 및 무선 통신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중 통신의 폭주에 따라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전용 무선으로 하면 전파 통제 상 부적당한 바 주요 비행장 간, 즉 경성, 신의주 간 외 2개소에 한하여 전용 유선 전화를 시설할 것.

## 2) 무선 통신 시설을 확장할 것

비행기와의 대공 통신 및 비행장 상호 연락용 무선통신 시설은 항공의 안전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수 사항이다. 따라서 대 항공기 통신 시설을 경성 외 4개소에, 또 대 비행장 통신 시설을 경성 외 12개소에 설치할 것.

## 3) 무선 항법 시설을 확충할 것

비행기로 하여금 천후 기상 영향의 정복하고 항공의 안전성을 증대함과 함께 정기 항공의 정확한 발착을 기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및 항공 통신망의 완비에 이어 무선 항법 시설을 확충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경성 외 6개소에 '비콘'을, 경성 외 7개소에 방향탐지기를, 또 경성 외 3개소에 계기 착륙 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함.

### III. 항공기상 관측의 정비 확충

#### 1. 항공 기상 관측 기관 및 기상 통계를 정비할 것

항공기는 늘 기상의 영향을 받음으로 항공 수송이 교통 기관의 첫째로서의 사명 달성 상 그 정확 및 안전 유지를 기하기 위해서는 기상 관측의 정밀 정확함과 신속한 보도 및 통계 조사의 결과인 참고자료를 요하는 것으로 또 전시 하에서는 방공의 기본으로서 그 통계 정비를 요하기에 이에 대한 정비 확충을 기도하는 것을 요함.

#### 시설계획

##### 1) 지방 관측 기관의 확충을 기할 것

항공 기상의 관측은 직접 항공로에 해당하는 지방은 물론 기상이 단시간에 변화하는 것에 비추어 상당 범위의 기상을 정확하고 또한 신속하게 예지하기를 요함으로 이를 위하여 지방 관측 기관을 더 한층 확장 정비할 것.

##### 2) 관상 기관 이외의 기관에 의한 기상 조사를 할 것

정기 항로에 취항 중의 항공기 및 기선으로 하여금 기상 통계의 수집을 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항공기 및 기선을 본 목적을 위해 운행하게 할 것.

##### 3) 동해연안 및 산맥지방의 기상상황을 조사할 것

동해 연안 및 동해 연안 방면의 기상 상황은 매우 특이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 미비는 동해 횡단 항로 설정에 영향을 주기에 안개 발생 시기 및 상황을 급속 조사할 것.

### IV. 항공 공업의 흥륭 촉진

#### 1. 조선 내 항공기 공업의 발달 조장에 노력할 것

조선 내에 항공기 제조 공업의 발달 조장에 노력할 것

조선 내에 항공기 제조 공업을 완비하는 것은 항공 사업의 진보를 꾀하는 데에 있어서 비익(裨益)하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즈음해서는 비행기의 보급, 수리를 원활, 신속하게 하고 또한 위험을 분산하는 취지로서 이것의 흥륭 축진을 요함.

### 시설계획

민간 항공기 제작회사의 조장(助長)을 꾀할 것

조선에서 항공기 제작 사업은 종래 전무한 상황으로서 모두 외국기를 구입 혹은 '내지'에서 이입해 온바 본 연도부터 쇼와(昭和)비행공업주식회사 평양 제작소에서 일부 작업 개시의 단계가 되어 다소 면목을 일신하기에 이르렀지만 나아가서 배양공업 등의 설정을 촉진하여 제조 능력의 증진 및 숙련공을 양성할 계획을 세우는 데에 대하여 장려금의 교부 등을 꾀하고 그 업의 조장에 노력할 것.

## V. 항공 지식의 보급

### 1. 항공 사상의 보급 선전을 할 것

'우리나라'의 항공이 단시일에 건전한 발달을 이루고 있는 사실은 이번 '지나사변'에서의 육해공군의 활약을 비롯해서 민간기의 각종 기록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일반 민간항공에 있어서는 구미 제국에 비해서 아직 현저하게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바 오늘날 국민의 항공지식을 함양하는 것은 '우리나라' 항공의 발달을 기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승무원 양성, 활공기 보급, 항공 단체의 조성 및 각종 선전을 꾀하고 항공 사상을 보급하기를 요함.

### 시설계획

#### 1) 조종 교육을 실시할 것

항공기의 발달에 병행해서 승무원의 양성이 필수적인 것은 물론 최근 국제 관계의 긴박화에 따라서 민간에 상당수의 조종 요원을 양성 보유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배양하여 돕을 요한다는 것은 이번 사변에서 민간 항공 승무원 부족의 사실에 비추어 명백해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비로 상당 인원의 양성을 꾀함과 동시에 중등학교 이상의 생도 학생의 항공 적성자에 대한 훈련 방도를 강구할 것.

#### 2) 활공기의 보급을 꾀할 것

비행기 조종의 기초가 되는 항공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 데에 있어서 활공기 조종 훈련은 가장 적당한 방법이므로 각국이 균일하게 실시하는 바이다. 그런데 조선에서의 실정은 매우 빈약하여 활공기 단체로서 불과 하나, 둘을 세는 데에 지나지 않으니 신속하게 전선(全鮮)<sup>43)</sup>에 이에 대한 보급을 꾀할 것.

#### 3) 민간 항공 연구 단체를 조성할 것

항공사업의 발달은 민간 항공 연구에 기댈 것이 많고 특히 학생층에서의 연구열 진흥은 가장 효과가

43) 전 조선의 의미.

크다. 따라서 장려금의 보조로 이에 대한 조성을 꾀할 것.

4) 항공에 관한 지식을 박람회, 전람회 및 강연 등에 의해 선전, 보급할 것

세계열강의 항공에 관한 현상을 바로 알고 '우리나라'의 현상을 아는 것은 국민의 비상시 인식 강화를 꾀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각종 재료를 수집하고 박람회, 전람회, 강연회 등 대중 집합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목을 통해서 항공 지식의 보급 선전에 노력할 것.

## 제9. 해외 무역의 진흥에 관한 건

조선에 있어서 대외 무역의 추세, 특히 조선이 대 만주 및 대 지나 무역에 대하여 점하는 지위에 비추어 대 '만지' 수출입에 대해서는 자원 혹은 가공품의 상호 보완하여 융통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역의 신장과 진전을 꾀하고 원(圓) 블록 내의 물자 조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재의 시국에 비추어 원 블록 이외의 제3국에 대한 수출 무역을 강력하게 촉진함으로써 국제 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취지 아래에서 더욱 대요에 있어서 아래 방책을 취할 것을 요한다고 인정함.

### 1. 대 만주 무역의 진흥을 꾀할 것

조선과 만주는 지리적으로 밀접하여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그 무역은 시정(始政) 이래 늘 대 외국 무역의 7할을 점하는 상태임에 비추어 금후 더 한층 수출입 무역 및 통과 무역의 신장과 진전을 기함과 동시에 동북 만주 지방은 최근 현저하게 치안이 안정되어 경제 및 산업의 개발 정비에 따른 '선만(鮮滿)' 무역의 진전 역시 기대되는바 크다. 특히 '북선' 제 항의 시설 개선과 함께 '일만' 최단 거리인 동해 해륙 연락 교통로를 동맥으로 해서 대외 통과 무역의 진전은 필연적임으로 조선에서도 위의 추세에 순응하고 '북선' 루트에 의한 동북 만주 지방에 대한 상권의 확립, 판로의 확장을 꾀하기를 요함.

### 2. 대 지나 무역의 진흥을 꾀할 것

'일만지' 경제 제휴의 기조에 따라 '지나'에 있어서의 작전 진전 및 치안 회복에 따른 경제적 공작 특히 대 '지나' 무역의 신장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긴요한 점이라는 것에 비추어 서남부 조선의 주요 항을 대 '지나' 무역의 탄토항(呑吐港<sup>44</sup>)으로 하여 이에 대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커다란 규모 아래서 제반 시설을 급속히 완비시켜 천진, 청도, 상해 등에 대한 '내지' 및 외국의 통과 무역 촉진을 꾀한다. 아울러 이들 제 항에 대해서는 공업 지대를 조성함과 동시에 '선내' 대 '지나' 수출품에 대해서는 집하 시설을 함으로써 대륙 발전의 기지로서 중요 사명의 달성에 매진할 것을 요하고, 더욱 몽강 지방은 이미 치안이 현저히 확보되어 조선의 생산품은 동 방면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큰 데에 비추어 몽강에 있어서의 유력한 기관과 결합하여 상호 보완하

44) 화물의 출입이 많은 큰 항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